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회사),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회장 노대원/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상/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8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0월 8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45 호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감 목 구

내가 아비 업살해 죽, 감나무 아래서 닭똥이 모이를 쪼고 있는 것이 너와 놀고 있었다. 목탁소리가 들려 대문쪽을 보니 탁발스님이 열려진 문간에서 계셨다. 어머니께서도 합장 되송하시고 집에는 나혼자 덩인데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뛰어들어 가면서 "우리는 여수를 믿는다"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다. 교회에 다니면서 불교는 우상을 만는 나쁜 종교라고 철저하게 배웠으며 스님을 보면 마귀중이라고 놀리는 것이 신으로 당연하고 당당했었다. 수학여행때 설악 가던 차안에 방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심계점을 어긴 죄인으로 여겨지 죄책해이던 였다. 그리고 고등학교때 세례를 받으면서 왜 내가 죄인인가를 모르면서 무조건 죄인이니 용서해 달라는 신앙고백을 했다.

그러다가 1963년 미국에 유학을 온 뒤 남편의 선물로 준 크리슈나무르티의 저서 《교육과 인생의 의미》에서 진리와 유일신 종교가 같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내가 바르는 길만이 제일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 종교들의 가르침을 공부했다. 특히 남편의 영향으로 선(禪)에 접근하였다. 그후 1992년 미국에 오신 청화큰스님을 법계 되었고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곧 한몸이라는 계당을 안에서만이 자비가 가능하다는 동체대비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서

'나' 버리려고 매일 염념참회

그간 나를 에워싸 왔던 공과 지비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그 기쁨으로 보살계를 받고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내가 본래 부처인 그 자리에서 아미다불을 염하는 염불선을 하고 있다. 부처가 부처를 염하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다 보면서….

염념수행은 우리가 순간순간을 반야안에서 살도록, 순간순간 동체대비를 실현토록 하기위해서이며 염불선은 나로 하여금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다 참괴무참할 뿐이다. 실사 불교를 만나기 이전의 흑백논리에 따른 편협함과 비다성은 아닐지라도 탐·진·치 3독 머리를 추켜들게 되니 말이다.

이 생(生)에서 나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고는 감히 바라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기쁘기를 바라는 시심 하나 품고 매일 염념수행인 염념참회를 하고 있다. (재미 시인)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정부 입장료 폐지 '난색'

조계종-내무부 등 4자 실무회의 의견조율 못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등과 관련 조계종과 내무부 문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4자 실무회의가 9일중에 3차의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총무원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4자실무회의에서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인상시 상호 협의 △공원입장료중 문화재 수리보존비의 지급규정을 자연공원법에 강제규정화 △합동징수 합의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명문화 △공원입장료의 폐지 검토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 가운데는 상당한 의견차가 있어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음을 밝히며 "공원입장료 폐지등 종단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4자 실무회의는 조계종이 '10월15일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삼문데해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더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무부가 공원입장료의 폐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관리공단까도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자회의는 기본 골격부터 난항을 거듭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도 정부의 공립입장료 폐지 의지가 확고히 법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4자 실무회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9월 29일 오후2시 합동장수사찬 주지회의를 비공개로 소집 4자회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은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해 징수하고 있는 입부사람에 대해 해당관리소의 협의해 조정하라고 해 해당사찰의 반발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임연태 기자)



◇ 팔만대장경전신화 성공기원 대법회. 단일행사로는 최대 금액인 3억5천만원의 후원금이 모이졌다.

"21세기 대장경 만들자" 성황

대행스님 부산법회 3만여명 동참… 3억5천만원 모금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 불교부산방송(지사장 유진수)이 공동 주관하는 '21세기 팔만대장경을 만들시다-대행스님 부산대법회'가 9일 2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봉행됐다.

혜총스님(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회장) 법산스님(영주압 주지) 등 대덕스님들과 조순 민주당총재, 문정수 부산시장, 권익현 한국외정직회장, 손하규 추미애 이규정 의원 등 사부대중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은 '삼은 곰가 아니다'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속의 모든 행위가 자성(自性)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잊지말고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만대장경 간산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열린 이날 법회에서 대행스님이 5천만원의 후원금을 약정한 것을 비롯 법어시스님들과 문정수시장등 많은 대중불이 동참, 현장접수금과 약정금액을 합쳐 총 3억5천여만원의 후원금이 접수됐다.

"분리징수 철회해야"

박종웅의원, 국감서 촉구

1일부터 시작된 제18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속 박종웅(신한국당)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의 분리징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 박의원은 "국립공원지정시 입장료 수입의 30%를 사찰의 문화재 유지보수비로 당해부터라도 지급하라"고 따졌다. 정부측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훈민정음·조선실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훈민정음(국보 70호)과 조선왕조실록(국보 151호)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산하 국제자문위원회는 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제3차 세계기록유산회의를 열고 훈민정음은 제안이 창제한 문자로서 과학성과 독창성을, 조선왕조실록은 전본가가 기록한 독립적인 역사기록물로서의 희귀성을 인정,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대불교 창간 3주년 철야기도

"참회하는 삶 위한 바람(願) 정진(力)"

3천배 대법회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주년을 맞이 불교계와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참회하는 삶'을 위한 3000배 바람(願) 정진(力)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법회는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연중으로 벌이고 있는 '참회의 삶을 살자' 캠페인의 실천행사이기도 합니다. 3000배기도는 불자라면 간절한 발원의 성취를 위해 꼭생 한번쯤은 수행하고 싶어하는 신행의 상징입니다. 원소 3000배 기도원력이 있었지만 여두를 내지 못했거나 기회가 적절치 않았던 분들 많은 분들이 동참해 3000배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포를 드립니다.

행사 안내

△입 제: 1997년 11월 1일(토) 오후4시
△회 향: 11월2일(일) 오전5시(새벽예불후)
△장 소: 참회도량 삼각산 도선사
△참석인원: 사부대중 1천명(선착순)
△동참비: 5천원
△일 정
입제식→5백배씩 하고 10분씩 휴식→저녁공양 간식공양→새벽예불→회향식
△준비물: 수건, 작은 개인 물통, 따뜻한 겉옷
△접 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21-0631-145(예금주 최상철)
(입금후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나 단체단위로 참가하시면 더욱 뜻깊을 것입니다.
※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은 앉아서 동참하는 방편도 공덕이 된다고 故 백산엄스님은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동참인덕이 귀하다 하겠습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 · 도선사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제3회 신행수기 공모

마 감 12월15일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를 거듭할 수록 감동과 신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공모 내용

△주 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매자 원고지 30매 내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시상내용
· 유마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중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본사사장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일타마당 - 북돕기 교계창구 21면
한글이름 절 '눈에 띄네' 23면
단풍따라 익는 가을불심 11면

「부다피아 포교기금」은 PCS 016과 함께 하는 불교통신사업입니다.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신청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이란?

PCS 016 가입시,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나라."

100년 기술이
PCS 016에 모아집니다

■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 전국 가입처 ■

서울본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69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3872 경동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366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5 포항지사 0561-84-0735 금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62-7745 경주지국 0572-344-1429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사 설

대선정국과 불교계

대선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정부의 각종 선심정책이 발표되고, 후보들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묶였던 그린벨트가 철회되어, 땅값이 치솟고 있다고 한다.

불교계에도 서서히 대선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표밭갈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후보들이 불교계의 지도자들을 방문하는가 하면, 전국사찰과 신행단체 등의 법회장에도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물론 정치인들이 불교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불교계가 경험했던 과거를 돌아보면 정치판에 휘말려서 본래의 부처님정신을 잃고 굴절되었던 적이 많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경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할 새로운 국가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중대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를위해 국민전체가 지혜를 발휘해야 하며 우리 불교계에도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불교가 종교로서 본연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 지난 94년 3월 개혁불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만해도 역대정권은 불교계를 당연히 여당의 표밭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사부대중의 힘이 모여 각계각층의 불교사회단체가 결성되고 대사회적인 역할이 증진됨으로써 많은 변화를 겪었다. 많은 불교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각성과 비판의 눈으로 정치계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 전술전략이나 당리당략적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정신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본연의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이다.

둘째, 올바른 대통령뽑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무리 불교가 순수한 종교적 위치를 지킨다 하더라도 역사와 사회속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계도할 도덕적 의무가 부여된다. 대통령책임제를 정치체제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운이 좌우된다.

또한 불교계의 발전과 불교중흥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지난 역대정권의 종교정책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미 정치가 가정의 부엌살림까지 파고들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문민정부를 자칭한 현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정치권력에 의해 우리 불교계가 적지 않은 탄압을 받아왔음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쌀불사건, 대통령 국방부예배사건, 교과서 왜곡사건,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각종 불교차별적 편향정책으로 갈등을 겪어 오고 있다. 불교의 인적 물적 자원이 아직도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삼보정재이고 민족문화유산인 불교문화재들이 부처님정신에 의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이 국가 권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른 대통령 뽑기에 불교계가 앞장서야하는 이유의 하나다.

셋째, 불교계가 합심하여, "정치권이 불심을 분열시킨다"는 식으로 불교계의 선거바람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의 권력지향적인 외부적 작업에 대해 불교계는 더욱 단결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불교중흥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을 비롯하여 정치권에 당부하고자 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인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존중하는 정치권이 되길 바란다.





◇대선후보들의 사찰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인제 前경기지사는 9월30일 월하스님을 예방, 환담했으며(사진 왼쪽) 자민련 김종필총재도 1일 월하스님을 친견한 후 부산 삼광사 법회에 참석했다(사진 가운데). 조순 민주당총재는 9월28일 대행스님 초청 부산대법회에 참석, 인사말을 했다.

대선후보들, 불심구애 '바쁜 걸음'

월하스님 예방 필수코스…불교행사마다 얼굴알리기

대선후보들의 '불심 잡기' 경쟁이 뜨겁다. 각 후보들은 9월 30일을 전후한 영남지역 방문기간 동안 경쟁적으로 월하 조계종 종정스님을 예방하는 등 '불심 잡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는 5일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친견하는등 그간 불교계와의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회창후보의 부인 한인옥씨도 지난 9월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친견하는등 사찰을 연달아 방문했고, 2일에는 범어사를 방문했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5일 동화사 방문을 시작으로 통도사 등 유력 사찰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또 당내 불자의원 모임인 연등회(회장 박상규의원)는 최근 홍보지 〈새정치 포럼〉 25호에 '큰 뜻 이루소서'란 주제로 불교 특집호를 제작 배포했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1일 통도사와 부산 천태종 삼광사를 잇달아 방문해 법회등에 참석하면서 불심 잡기를 통한 지지기반 확충에 주력했다. 김총재는 월하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요즘은 언론사 토론 위주로 선거운동이 진행돼 정신적으로 더 긴장된다"고 말했으며, 월하스님은 "일부러 찾아주어 고맙다"고 화답했다.

9월 28일 부산을 방문한 조순 민주당 총재는 2박3일간의 부산일정을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 초청 부산대법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법회 참석을 위해 부산일정을 하루 앞당기는등 대선후보로 지명된 이후 처음으로 불교행사에 공식 참석함으로써 본격적인 불심잡기에 나섰다.

이인제 前경기지사는 부산 MBC초청 TV토론회 준비와 시장방문등 시간을 쪼개 짠 바쁜 일정에도 "통도사 방문만은 차질이 절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성의를 보였다. 이인제후보는 9월30일 오전 통도사를 방문 월하스님에게 삼배로 인사를 올리고, 10여분 정도 자신의 아내 김은숙씨가 불자라는 것과 동향이라는 점을 들며 환담했다. 월하스님은 '인화년풍(人和年豊)' '민화안국(民和安國)'이란 휘호 두 점을 전달하고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경·천미희 기자〉

"전·노씨 사면해야"

월주스님, 시사지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주간 시사지 〈뉴스메이커〉 최근호(10월2일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사면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이 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역사적 평가가 났고 처벌을 받았으므로 사면절차를 밟아야 하나, 그 시기는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율 수정보완 '불가'

조계종 계단위 공고

조계종계단위원회(위원장 청하)가 그간 종단내에서 거론된 계율 수정·보완 논의에 대해 '더이상의 논의가 없기를 바란다'고 쐐기를 박았다.

위원회는 9월3일 개최된 회의 내용을 최근 공고했다. 위원회의 공고는 △계율제정은 율장과 경전에 기록된 바 없고 △재제정 논의는 경장·논장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생기게 하며 △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다 △개차와 방편을 자의로 해석하는 경향은 부처님의 참뜻을 잘못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日스님·청년불자 연내 방북

北어린이 식량 전달

일본의 스님과 청년불자들이 북한의 어린이에게 식량을 전달하기위해 년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다

방북단에는 통역자격으로 리선행법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감사)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북해도지역 청년회는 9월25일 삿보로 시니 게이요프라자 호텔에서 '굶고 있는 북한어린이 돕기 식량도금대법회'를 열고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조동종 삿보로교구장 요시다스님 약천사 주지 다나까 고오인스님 참의원 다까키 마사아끼의원 도의회 노무라 요시쯔루의원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조동종 국제청년회(회장 다나까 세이젠)의 간부로 방북단이 구성돼 추진되고 있는 북돕기 운동에 대해 회장 다나까스님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 등을 초월한 부처님 자비사상의 실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어린이 돕기운동으로 모아진 성금은 쌀과 국수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방북에 앞서 북해도 지역 청년회 간부들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판문점을 방문 시찰한다.

종단협 인권위 '활동'

위원장에 혜공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3일 오전 11시 종단협 사무실에서 인권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인권위 운영은 태고종이 맡게 되며, 위원장에는 태고종 재무부장 혜공스님이 내정됐다.

인권위는 매월 인권법회를 개최하고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한 명예회복 및 배상 추진, 인권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연대하는 등의 활동을 펼 계획이다.

'97 국정감사 불교관련 정부답변 요약

제185회 정기국회가 상임위별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1~18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불교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와 정부답변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문체공위

▲석굴암 보존대책=대한건축학회의 석굴암 구조안전진단결과 구조상 문제는 없다. 다만 공조시설 및 송풍관의 소음과 진동의 영향과 미세한 누수 및 균열이 우려돼 이에 대한 보수지침과 기계시설교체를 경북도에 시달했다. 불국사측에 의해 제2석굴암 건립계획이 공식요청되면 관계기관 및 학계 종교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검토해 나가겠다.

▲사찰문화재 도난실태 및 방지대책=사찰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현재 8개사찰에 1백20억원을 투입, 유물전시관을 건립중이며 동화사 등 4개사찰에 대한 유물관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보호관리가 어려운 개인사찰이나 말사소유의 문화재는 국·공립박물관에 위탁보관을 주선하고 있다. 문화재명예관리인 및 자매결연단체를 활용,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검·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로 사찰문화재 도난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겠다.

▲북한문화재 외부반출=통일을 대비 1984년부터 북한소재 문화재를 조사, 현재 슬라이드 등 6천2백89건의 자료가 수집돼 있으나 북한문화재의 수입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이 동시가입해 있는 국제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민간차원의 북한문화재 수입을 고미술협회를 통해 파악, 점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외무통일위

▲해외우리문화재 환수=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유출 경위가 명확한 국·공립소장 문화재는 외교통로를 통해 환수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출경로가 불명확해 환수가 곤란한 문화재는 소재국 박물관에 한국관을 설치 및 확대를 추진,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

환경위

▲사찰환경=사찰환경보호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에 드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 자연환경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각 시·도에 지침을 하달하여 지방조례를 제정토록 하겠다. 조례제정시 지침을 권고사항으로 전달하겠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아름다운 우리말 많이 쓰자구요

국립·도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돼야 합니다

—최근 사태에 대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의 입장—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에서는 제6차 회의를 제주 관음사에서 갖고 사찰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로 심한 갈등관계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듣고 토론하였다. 국립공원 관리소측이 내무부 부속기관으로서 내무부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과 약속한 사찰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를 통합징수한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분리징수를 요구하며 사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한 심한 우려를 함께 했다.

정부는 국립공원지역을 설정할 당시 강제로 사찰소요임야를 편입시키면서 입장료 30%지급의 약속도 무시하였다. 근래에 와서 10년간 공원입장료를 인상시키면서 사찰문화재관람료는 동결시켜 오던 차 96년 여름에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립공원 관람료 사찰에 요금인상자율권를 부여하였다.

이에 국립공원 관람료사찰에서는 관람료위원회를 결성, 작년과 금년에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작년과 금년에 또다시 정부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김남으로 하여금 공원관람료사찰의 문화재관람료징수를 합동으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일반언론에 마치 사찰이 큰 잘못이나 있는냥 왜곡보도를 하도록 하였으며 급기야 근자에 사찰과 관리소에 분리징수를 강요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어 사찰운영과 문화재보호에 큰 손해를 주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국립공원에서 막대한 입장료(주차비 3,000원, 입장료 1,000원)를 받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그것도 남의 땅(사찰)에서 입장료를 받아 공원관리공단의 인적물적관련 모든 운영경비를 지출하며 관리공단 입장료의 절반(주차비 포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찰문화재관람료를 두고 여러가지 트집을 잡아 사찰 길들이기나 하는냥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정부부처와 불교계간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립공원에 향락·퇴폐적인 시설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천년고찰 수행도량의 환경파괴는 물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들도 중단되기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실천사항을 제시한다.

— 결의 사항 —

1. 문화재보호법 적용사찰 및 임야를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하여 불교 자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람료 징수 사찰에서의 공원 입장료 징수를 즉각 중단하고 공원 관리 정비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여 국민의 이중부담을 해소하라.
3. 1997년 9월 22일에 발표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위와같은 결의가 실행되고 관철되도록 우리는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 주지 및 신행단체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도 교구연합으로 결의대회를 거친 뒤 다시 중앙에서 전국규모의 결의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립, 도립, 군립공원안에 있는 조계종 사찰에 가해지는 모든 문제가 정부의 편향과 무지한 종교정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적절차까지도 강구하여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1997년 9월 23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 일동

"타협안 오직 입장료 폐지뿐"

성과없는 '입장료 4자 회의'…교계반응

조계종 "산문폐쇄 15일 시한 변함 없다"
내무부 "수익자 부담…장기적 검토필요"

정부가 15일 이전에 국립공원입장료 철폐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답을 내놓지 않는한 조계종이 천명한 산문폐쇄가 단행되는등 분리징수를 둘러싸고 빚어진 조계종과 정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9월중 3차례 열린 조계종 내무부 관리공단 문체부등 4자회의가 아무런 결론없이 공전된데다 4자회의 내용에 대한 교계 일각의 반론도 거세다. 따라서 산문폐쇄 최종시한인 15일까지 정부와 조계종이 모두 만족할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무회담에서 거론된 내용 가운데는 조계종과 정부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뿐 아니라 '공원입장료 폐지'라는 대전제 아래서는 어떤 논의도 모순점을 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15일까지 획기적인 '타안'이 합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무회담에서 조계종이 "공원입장료의 폐지시한을 명확히 정하자"고 요구한데 대해 내무부측은 "내년 예산편성이 이미 끝난 상태여서 당장은 어려운 일"임을 내세우며 "수익자부담 원칙과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내무부는 합동징수와 관련한 조계종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여 "합동징수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등에 명문화하고 공원입장료 가운데 일정금액을 사찰의 공원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문제도 현재의 자연공원법을 개정 강제조항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총무원 실무자의 전언이다. 내무부와는 달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문화재관람료가 자율화된 이상 합동징수는 종전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 내무부와 공단의 의견조율도 아직 과제로 남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9월 29일 조계종이 소집한 합동징수사찰 주지회의 이후 4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알려지자 교계 일각에서는 상당한 반론이 나오고 있다. 공원입장료의 철폐만 확약되면 나머지 문제는 부수적으로 해결될 것인데 합동징수등의 문제와 입장료 폐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데서 모순이 생겼다는 것이 반론의 요지다.

4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9월22일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강도 높은 성명 내용과도 상치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월주스님의 대정부 성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던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 회장 설조스님(불국사주지)은 "종단 집행부가 그렇게 무책임하고 유약하게 대처했을리가 없다"고 역설하며 "그런 회의가 진행된 것이 사실이라면 오는 13일 열리는 교구본사주지 모임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29일 합동징수 사찰주지회의에 참석했던 한 스님은 "방향이 빗나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만이 종단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종단이 더이상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공원입장료 폐지의 의지를 확인하고 종단의 실익을 챙기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해 산문폐쇄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연태 기자

법주사 강경대응…홍보주력

신도·주민들 "공단 분리징수 철회하라"

공단측의 일방적인 분리매표가 시작된 8월29일 즉각 산문폐쇄조치를 내렸던 법주사는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사찰측 단독 합동징수 매표를 강행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속리산관리사무소는 기존의 매표소 아래 별도의 매표소를 설치 공원입장료만을 매표하기 시작했으나 법주사측이 합동징수표만 인정해 통행을 허용하자 분리매표를 간헐적으로 실시하며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조장하고 있다. 관리소측은 또 9월20일 법주사에 공문을 보내 '법주사측의 단독 매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등 법적인 대응을 시도하며 법주사와 대립해 왔다. 거기다 관리소측은 '법주사는 사찰 담장안의 1만여평의 땅에 대해서만 주권을 행사하라'고 주장, 집단지구에서 문장대까지 이르는 7백50만평의 토지주인 법주사를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

관리소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법주사 신도 1백50명이 9월 2일 항의시위를 했으며 전날에는 주민들도 탐방객의 격감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법주사와 관리사무소에 '상가철시' 의지를 담은 생존권 대응 결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보은군도 법주사쪽 탐방객이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하고 중재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법주사는 8일 국립공원 규탄법회를 갖고 공원입장료 폐지 서명운동을 정개할 방침이다.

지역과 중앙언론에 입장료 폐지의 당위성등을 담은 홍보자료를 꾸준히 발송하며 9월 23일 자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등 법주사의 강경대응이 지속되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속리산관리사무소장을 직위해제하는등 강경으로 맞서고 있다.



◇공원입장료 폐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법주사 신도들

수요 인터뷰

강화에 외국인선원 개원 원명 스님

"해외포교 인재양성 급해요"

20여년 해외포교 외길만을 걸어온 원명스님은 인천 강화에 외국인들의 수행공간인 국제선원을 세우고 9월28일 개원식을 가지면서 해외포교의 또다른 장을 열었다. 종단의 지원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원명스님을 만났다. 〈편집자 주〉



- 해외포교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외국인을 위한 변변한 수행공간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서양인들은 합리적이라 체험을 통해서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강화 국제선원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와 체질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 등 6개국에 포교당 불서 해외소개에도 앞장

- 해외포교에 전념하게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82년과 84년 스리랑카와 영국에서 수행과 공부를 하던 중 수십나라 수백개 종교단체가 포교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또 영국 불교도서관에서 우리나라 불교서적이 한 권도 없다는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85년 귀국해 선방으로 갈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 불교가 이대로 멈춰있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 서울 안국동에 연등국제불교회관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이뤄온 성과도 결코 작지 않은 줄 압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싱가폴, 인도네시아 6개국에 포교당을 개설해 현지 교민과 그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불교경전과 성철스님 저서를 번역해 출간하는 등 출판사업을 통한 포교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해외포교의 중요성은 이젠 표현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일본과 티벳 등 다른나라의 포교활동과 비교하면 한국불교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구촌은 이미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포교는 단순히 불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민족성을 알릴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 해외포교의 과제를 제시해 주십시오.

▲우선 해외포교를 위한 인재양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단순히 불교만을 아는 사람이 아닌 그 나라 언어와 관습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아낌없는 지원과 불교계 전체의 해외포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한명우 기자

목어

韓·日 축구

옛날 어떤 사람이 왕사성에서 걸식하다가 암소한테 떠받쳐 목숨을 잃었다. 소 임자는 겁이나서 그날로 소를 팔았다.

소를 산 사람은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끌고 가다가 소가 떠받아 죽고 말았다. 그집 아들은 화가 나서 그 소를 때려 잡았다. 어떤 사람이 그 소머리를 사서 메고 가다가 나무밑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소머리가 떨어져 시골사람은 그 뿔에 찔려 죽었다.

빔비사라왕은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 달려갔다.

"세존이시여 실로 괴이한 일이 있습니다. 한 마리 암소가 세사람을 죽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옛날 세사람의 상인이 이웃나라로 장사하러 가서 외로운 노파집에 머물렀소. 그들은 며칠동안 편히 숙식을 했으면서도 노파를 무시해 값도 치르지 않고 빠져나왔소. 노파는 그들을 저주했소. '다음생에는 축생이 되어 서라도 너희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말것이다'

그 노파가 바로 오늘의 저 암소이고 죽은 세사람은 장사치들이요."

부처님은 게송을 읊으셨다.

"함부로 남을 업신 여기면 미움과 원한이 움튼다/맺힘을 풀고 욕됨을 참으면 미움과 원한은 저절로 사라지리"

한국과 일본의 축구경기는 늘 치열하다. "일본에게만은 이겨야 한다" 우리의 국민정서 못지 않게 일본도 "한국에게만은 이겨야 한다"는 심정일 것이다.

9월28일 도쿄의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한·일전을 어느 신문은 '총성없는 전쟁'으로 표현했다. 우리의 5천여 '붉은 악마'들은 5만명의 홈관중에 맞서 응원했다. 서울에선 근교산에 등산객이 끊겼고, 운행을 멈춘 택시들이 많았다. 다른나라와의 경기에서 자국을 위한 열띤 응원과 승리의 축배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스포츠정신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민족감정이 깔려있는 응원은 두나라 사이에 골만 더욱 깊게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관중의 야유와 질시, 일본언론의 한국승리에 대한 짧은 사설보도, 가모 감독경질의 목소리 등은 스포츠 정신과 거리가 멀다. 어느 불교학자는 이런 모습을 '세계화 정신위배'라고 말했다. 한일양국은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를 계기로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 나가자.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10월 테마여행 - 화엄사 연곡사

한국인의 삶과 죽음(부도·석등의 의미)

단풍빛 고운 산사(山寺)를 찾아 보시지 않으렵니까?

한민족의 영산 지리산(智異山). 이 산에는 화엄사상의 으뜸도량 화엄사를 비롯 연곡사, 천은사, 쌍계사 등 이름높은 고찰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엄사는 지리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찾게 되는 곳입니다. 독특한 생김새를 자랑하는 화엄사 4사자3층석탑과 석등, 2층구조로 이루어진 각황전의 중후한 건축미, 도량에 스며있는 신비한 이야기 등 볼거리와 이야깃거리가 풍성한 곳입니다. 또한 이 사찰은 화엄사상이라는 고매한 불교사상이 깃들어 있어 단순한 눈요기 이상의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6·25당시 빨치산의 주요무대였던 지리산 피아골에 자리잡은 연곡사. 빼어나게 아름다운 부도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신라부도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국보53호인 동부도를 비롯 국보54호인 북부도, 보물154호인 서부도 등 통일신라시대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거쳐간 이름모를 고승들의 부도가 사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아골을 온통 피빛으로 새빨갛게 물들이고 있는 단풍과 그 속에 스며있는 빨치산의 한, 그리고 고승들의 열렬했던 수행정신이 깊이 살아숨쉬는 이곳에서 한 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가 안내

◇출 발: 10월 25일(토) 밤10시 · 조계사 앞
◇회 비: 4만원(조식제공)
◇안 내: 소재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개 관

· 10月 10日 ·

해인사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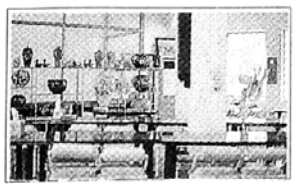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으로 곱게 물든 가야산에서 그동안의 지극한 정성과 동참으로 향후 우리문화와 교육의 요람이 될 「해인사 미술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로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개관기념 『큰스님 특별전』을 개최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간망하옵니다.

● 미술관 구조 ●



1층: 도예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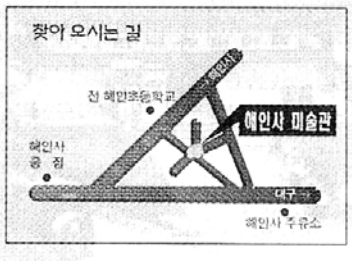


2층: 한식당

3층: 전시실



● 초계대광대탈 전시실



● 개관기념 큰스님특별전 ●

선서화및서찰 등70여점

구하봉담하주타 · · ·
경청월석일



구산중광성훈환경송월수안 · · ·

해인사 미술관 ● 주소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 전화 : (0599)31-8778 · 31-9846 ● 관장 : 性空 합장



세계불교단체 연합회 결성

경우스님 · 달라이라마 공동의장

경우스님(부산 대각사 조실)이 9월22~23일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벳 승왕 달라이라마를 만나 유엔내 '세계불교단체연합회'를 결성키로 합의하고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는 형제결연식을 맺었다. 경우스님과 달라이라마가 공동의장을 맡아 추진되는 '세계불교단체연합회'는 세계의 불교국가, 불교단체들이 총 망라될 예정이며 향후 세계평화와 티벳의 독립 등 불교국가들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회담후 경우스님(사진 오른쪽)은 달라이라마에게 108염주와 봉덕사종 도금본을, 달라이라마는 경우스님에게 티벳 전통 석가모니불상을 선물하며 우의를 다졌다.



◇부산 자비사주지 삼중스님(사진 왼쪽)과 일본 남장원주지 하야시스님이 자매결연증서를 교환하고 있다.

"국경없는 재소자 교화 편다"

자비사, 日 남장원과 결연협력 다짐

부산 자비사(주지 삼중)와 일본 후꾸오까 남장원(주지 林覺乘)은 9월27일 자매결연을 맺고 국경없는 교도소 교화 사업을 다짐하고 기념식수를 했다. 이날 결연식에는 한국신도 7백여명과 일본신도 1천여명이 참석했다.

자비사 주지 삼중스님은 결연식에서 "두 사찰이 국경을 초월해 재소자 교화에 협력한다면 밝은 세상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장원 주지 하야시스님은 "한국의 자비사와 결연을 맺은 것은 남장원이 펼치는 교화사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후꾸오까 남장원은 전장 41m 높이 11m의 대형 부처님 열반상이 있는 유명사찰로 20여년전부터 미얀마 네팔 등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과 의약품 등을 제공해 왔으며 재소자 교화사업도 폭넓게 펼치고 있다.

대입 수능 D-50…참선으로 재충전



Focus

"자 학생불자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에 남아 있는 집착과 욕심을 떨쳐 버립시다."

지난 9월27일 오후3시 대입 수능50일 참선수행법회가 봉행되고 있는 충정사(주지 도윤스님) 대웅전.

청보리학생회(회장 이병곤) 50여명이 김재영법사(동덕여고 교사)의 지도로 가부좌를 틀고 참선에 들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 촌음이 아까운 고3 수험생이지만 심리적 불안과 동요를 떨쳐버리고자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매달 한번씩 법회에 참석한다는 이병곤(중앙고3)군은 "절에 와서 참선하고 가면 마음이 편해져 재충전이 된다"고 말했다. 17년동안 수험생들을 지도해온 김재영법사는 "마음을 비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들이 결과가 좋았다"고 충고했다.

김주일 기자

"생활불교 · 주는불교 전환해야"

전국신행단체대표 수련회 여는 송재건 회장



조계종중앙신도회가 18~19일 경기도 화성 신흥사에서 신행단체 대표자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교구본사 · 말사신도회장과 주요 신행단체 대표자 등 1천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이다.

"수련대회 준비는 원만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일 행사 진행만 남았습니다. 이번 수련대회는 불교의 생활화,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의 전환을 모색하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29일 열린 운영회의에서 최종 일정을 확정한 송회장은 이와 함께 교단의 일원으로서의 신도회역할 찾기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말만 사부대중이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수련대회에서 승단과 재가, 각급 신도회와 중앙신도회의 바람직한 관계설정도 논의될 것입니다."

송회장은 또 요즘처럼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국민들은 불교를 통해 삶을 되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때에 불교는 국민들의 뜻을 응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신도회도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교차로

선학원서 토요선학강좌

인환 동국대 명예교수 스님은 11일 오후3시 선학원 중앙선원 대웅전에서 열리는 추계 토요선학강좌에서 강의한다.

은평대상 봉사상 수상



성운 삼천사(은평구 진관외동) 주지는 1일 은평대상 봉사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인덕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며 전국 교도소 수감자 위로방문, 책보내기, 아프리카 구호기금 기탁활동 등을 펼친 공로로 선정됐다.

'국제 불교 통일' 포럼 개최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스님은 15일 온양 그랜드 파크호텔에서 창립 12주년 기념 '국제 불교 통일문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직영 반야여행사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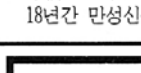
현근 조계사 주지스님은 2일 조계사 직영 반야여행사 개원식을 가졌다. 반야여행사는 불교성지 순례 전문 여행사로 일반여행 업무도 취급한다.(02)730-0020

한글보급 공로 감사장 받아



덕수 부산 삼광사 주지는 제551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장 감사장을 받는다. 스님은 외래어 남용반대와 올바른 언어생활지도 및 부산지역 국어학 연구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대구 원효불교대학 개교



증악 불교회관 보리원 원장스님은 9일 대구 서구 내당4동에 소재한 원효불교대학을 개교한다.

동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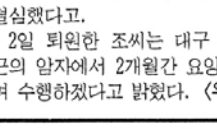
혜자 상계동 도안사 주지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12대 총학생회장에 선출돼 9월29일 총학생회 출범식 및 신입생환영회를 가졌다.

'한민족어디로…' 강연

정재각 前 동국대총장은 9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열리는 제78회 다보문화강좌에서 '한민족은 어디로'를 주제로 강연한다.(02)703-0108

동대 인문학 겸임교수 맡아

한병삼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최근 동국대 인문학부 겸임교수로 임명됐다.



■하이텔 새회장 김주서씨

"수련회 정례화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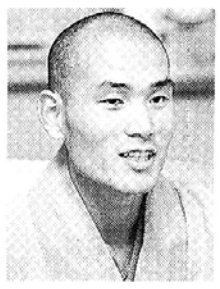
"사찰에 가기 어려운 불교입문자들을 위해 사이버법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PC통신 하이텔불교동호회 제7대 대표시샵에 선임된 김주서(광명어린이집 대표 · 46)씨는 "PC통신을 통한 포교에 적극 나서겠다"며 "2 · 30대 불교입문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정례화 하는 한편 제주도에 지역모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PC통신 경력이 4년인 그는 19세 때 불국사에서 3개월 머문것이 불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재〉

"북동포에 통일법등 밝힐 터"

백령도에 철탑 세우는 진우스님



"평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최북단 백령도에 철탑을 세워 북한 동포들의 가슴에 통일의 법등을 밝히려 합니다."

심청의 전설을 간직한 인당수 등 불교지명이 곳곳에 산재한 백령도.

이곳 백령도 가장 높은 곳에 처음으로 철탑을 세우는 해병대 제6여단 군법당 흑룡사 주지 진우스님은 포교 불모지인 백령도에 불심을 심기위해 오늘도 삼시예불을 쉬지 않는다.

진우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해인사 강원에서 수행하다가 지난 7월3일 부임한 이래 열악한 백령도 포교현황에 경악, 기도로써 불심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서원으로 매일 새벽 3시면 도량석으로 어김없이 초소를 돌며 배고픈 위병들에게 컵라면과 김밥을 보시해 왔다.

이런 정성 덕분인지 진우스님은 지난 7월 백령도를 방문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로부터 1천만원,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으로부터 2천만원의 불사금을 지원받아 내년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15m 높이의 철탑을 세우게 됐다.

하지만 인구 1만명의 백령도 포교는 이제 걸음마 단계. 교회 18개, 성당 2개와 비교할 때 초라하기만한 법당을 책임지고 있는 스님은 유치원 설립 등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신도 · 예산 부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백령도에 상주하는 스님으로는 80년만에 처음이라는 진우스님은 "언제나 긴장감이 감도는 이곳에 자비로운 부처님의 법음이 넉넉하게 울려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32)836-0108

김재경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이준희 200,000원 △최윤형 200,000원 △김동은 100,000원 △최태련 100,000원 △최현숙 90,000원 △최광호 65,000원 △김희수 50,000원 △한진희 50,000원 △이동수 40,000원 △강애란 30,000원 △김금순 30,000원 △김영순 30,000원 △김인교 30,000원 △박상춘 30,000원 △박세철 30,000원 △양순희 30,000원 △채희주 30,000원 △허종법 30,000원 △김윤열 20,000원 △신연수 20,000원 △오의숙 20,000원 외 △한 끼 굶기운동 190,333원 〈1일 현재 총 829,186,26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자비 남기고 간 '아까운'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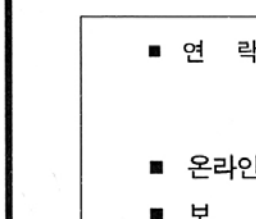
故 장지수씨, 소년가장 등에 전재산 회향

8세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산 대덕사에서 살아온 장지수씨(32)가 전재산 4천5백25만원중 2천만원은 소년 · 소녀가장에게, 2천5백25만원은 사찰불사에 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져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월30일 금정산 중턱에서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된 장씨는 독학으로 방송통신고와 대구보건전문대 치기공과를 나와 치기공사로 일해왔다. 경찰은 장씨가 고독감을 못이겨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살동기를 조사중이다. 〈원〉

"생명 살린다 생각하니 기뻐요"

신장기증 조해봉씨



"수술로 인해 내가 아픈 것보다는 나로인해 다른사람이 생명을 찾았다는 것이 기쁩니다.

18년간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해온 박대석(43)씨에게 신장을 기증한 조해봉(30 · 광고업)씨는 자신의 아픈 곳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혜자가 건강하냐"고 물으며 환하게 웃었다.

대구 만불사 신도로 미혼인 조씨는 생명나눔실천회 회원인 주지 혜경스님으로부터 박씨의 사연을 듣고 신장 기증을 결심했다고.

2일 퇴원한 조씨는 대구 인근의 암자에서 2개월간 요양하며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제 5회 한국 고승 초청

금 구국 금강경 대설법회 금

세상에는 구하려해도 혹 얻지 못하는 것이 있으며 세상에는 구하면 반듯이 얻는 것이 있다.
힘써 구하려해도 얻지못하는 것은 이익이고 힘써 구하면 반듯이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곧 도(道)이다.

■ 일 시 : 1997년 10월 20일 ~ 10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오후1시, 매일 오후 7시~9시
■ 장 소 : 중구 부평동 삼보예식장내 삼보불교대학
■ 문의처 : 부산삼보불교대학(051-244-3481 / 253-0681)
학장 서 보현 합장

강 사	약 력
서 암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종정
천 운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해남대흥사주지
월 운큰스님	동국대학교 역경원장
무진장큰스님	조계종 전포교원장
인 환큰스님	동국대학교 전교수
암 도큰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이 두큰스님	조계종 전법주사주지
원 광큰스님	조계종 삼장불교문서 포교원장
묘 주 스님	동국대학교 불대교수
회 암 스님	전경련 회장 녹야원 주지



주 최 : 삼보불교대학
후 원 : 삼보예식장, BBS 불교방송, 대한불교신문
협 찬 : KBS, MBC,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것이 마음이다.

진심직설(眞心直說) 강의

「禪과 敎를 두루 섭렵하신 無比스님의 강의」

마음, 마음, 마음. 참으로 찾기 어렵구나. 넓히면 온 우주에 가득하고 좁히면 바늘 끝도 용납하지 못한다. 나는 본래 마음을 구할 뿐 부처를 구하지는 않는다.
내 마음이 없으면 온 우주가 텅 비어 아무 것도 없음을 아나니, 누구든 만약 부처가 되고 싶다면 단지 마음만을 구할지니라.

마음, 마음, 마음,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달마대사)

1. 진심직설 강의 테입(90분) 18개 : 4만 5천원
※ 아래의 강의 테입도 계속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 지장경 강의 테입(90분) 16개 : 4만원
3. 유마경 강의 테입(90분) 38개 : 7만원
4. 임제록 강의 테입(90분) 26개 : 5만원
5. 증도가, 신심명 강의 테입(90분) 16개 : 4만원

■ 연 락 처 : 전화 (051)515-7870
(609-340)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23-10번지
경전연구실 문수원
■ 온라인 번호 : 부산은행 241-02-001356-2 김 지 애
■ 보 급 : 경전연구실 문수원 대중 합장

우리 모임에선

경불련 훈할머니후원 추진

대구경실련불교시민회(회장 강인성)는 9월 27일 마산에 있는 훈할머니를 방문해 환담하고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불련은 대구지역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훈할머니 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불련은 7일부터 12월16일까지 '불교와 가정'(박선영 동국대교수) '불교와 시민사회의 오늘과 내일'(김동흔 불교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의 강좌로 불교시민통신대학을 개설한다. 또한 조만간 '생활속의 선체조 강좌'를 열 예정. (053)353-1597

호불연 경찰가족 도와

호남불교대학 제1회 졸업생으로 구성된 호남불교발전연구회(회장 정준모)는 광주 서부경찰서 양3파출소 최명석 경장의 둘째 아들 준용군(생후 2개월)이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고도 수술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성금 62만원을 전달했다. (062)361-2287

광명회 개안수술 100여명

새생명광명회(봉사단대표 김기원)의 도움으로 개안수술을 받은 사람이 9월말 현재 100명을 넘어섰다. 또한 심장부전증 등 각종 질환에 대해 검진·치료 등을 받은 수혜자는 모두 16,968명에 달했으며, 사후안구 기증자도 28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김기원교수는 89년도에 감로심장회를 설립 환자 108명의 심장수술을 도운 바 있다. (0591)758-6611

녹색감시단 불국사 정화

대구불교산악회 부설 녹색환경감시단(단장 홍성식)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 산하 청소년환경감시단은 26일 경주 불국사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인다. (053)556-3553

구미운불 월정사 순례

구미택시운전불자회(회장 이춘도)는 23일 월악산 월정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매달 둘째 화요일 도리사 등 구미·선산지역 사찰에서 순례법회를 열고 있는 同회는 내달중에 불우이웃 돕기도 실시할 예정. (0546)53-3244

노인무료 합동결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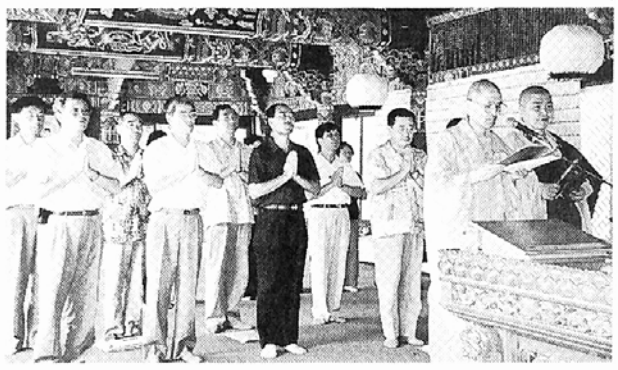
포항학산복지관(관장 난승스님)은 17일 노인무료합동결혼식을 거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생계곤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부부 10쌍이 초대된다. (0562)48-6165

캠퍼스 불심 이끄는 포교사

탐방 서울대 불이회

교수등 회원50명…'일당백 불심' 자랑
가야산 골프장 반대등 환경운동 앞장

◇불이회는 불법을 배우고 가르치며 우리나라 지성불교를 이끌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을 수계법사로 봉행한 수계법회 장면.



새학기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은 9월28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직원불자회인 불이회(회장 송해균 교수) 회원과 가족 50여명은 경기 이천의 설봉산 깊은 계곡에 자리잡은 유서깊은 영월암을 찾았다. 일요일 새벽 일찍 서둘러 출발해 오전 9시 30분에 도착, 10시30분에 사시마지예불을 올리고 오후 12시에는 모처럼 발우공양을 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불이회와 인연이 깊은 지도법사 정무(전 용주사 주지)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들었다.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곳에서 덕높은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는 사찰 순례법회는 불이회의 가장 중요한 공식 행사. 매달 가족을 동반, 신흥사 용주사 봉선사 청계사 등 주변 사찰을 순례하면서 큰스님들께 법문을 듣고 때때로 방생법회를 열며 불심을 다진다.

불이회는 지난 94년 4월29일 청계사 지명스님을 증명법사로 신흥사 가릉빈가 합창단의 축하속에 돛을 올렸다(초대회장 안원영교수). 현재 회원수는 교수 24명(전체교수 130명)을 포함한 50여경.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회원들은 일당백의 불심을 자랑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회원으로서 대장경 전산화에 일조하고 있는 안원영교수(임산가공학), 신흥사 신도회장으로서 매일 염불과 5분향례 반야심경 독송을 쉬지 않는 전재근교수(식품가공학), 조계종 포교사로서 경을 강독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류제룡씨(전기기사) 등이 이들. 특히 전재근교수는 '불교와 과학'을 주제로 다양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이회는 또 교내 학생들의 불교동아리인 농불회(지도교수 최영찬)를 지도하면서 매년 3명의 학생을 대원정사에 추천, 장학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에는 '학생·교직원 연등만들기' '봉축법회' '제등행사' 등을 열어 교내를 축제분위기로 장엄한다.

불이회 회원들은 각자 배운 불법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한편, 지성인으로서 대사회적인 역할도 게을리 않는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는 금산사 앞 모악랜드 조성반대 서명과 가야산 골프장 건설반대 서명을 전개했다. 특히 가야산 골프장 반대 서명에는 서울대교수 300명을 참여시켜 여론을 크게 환기시켰었다.

수원=김재경 기자



"진실한 말은 향기 지녀"

이계진씨 길상사 법회서 강연

"말하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묻어나는 말이 향기롭고 좋은 말입니다."

2일 길상사(주지 청학) 창건기원 법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이계진 아나운서는 진실한 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씨는 "오랜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로의 말을 많이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청학스님을 비롯 윤청광(방송심의위원)씨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리더십 자질은 자비와 사랑"

지광스님 청불회 초청법회서 법문



◇지광스님

"지도자는 진실의 파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모술수는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이며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기에 리더의 자질은 자비와 사랑에 의해 관가름납니다."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은 9월27일 능인선원 대법당에서 열린 청와대불교신행회(회장 박세일) 순회법회에서 "나라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나와 남을 분리하지 않는 형제애를 지닌 인물이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지광스님은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록 의식을 정화하고 위대한 영감과 하나되는 마음밝히는 수행을 쌓아야 한다"면서 "이것이 쌓이면 개인과 나라가 정화되어 세계화 국제화시대에도 탁월한 영혼들과 교류하며 국위를 선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회에는 회장인 박세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비롯 이각범 정책기획수석, 배재육 사정비서관(부회장), 박동석 민정비서실과장(총무) 등 80여명의 청불회 회원이 참석했다.

충북불교교양대학 개교
거사불자 60% 눈길

9월22일 개교식을 가진 제천 한산사 부설 충북불교교양대학(학장 각철스님) 입학생중 2/3가 거사불자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입학생 300여명중 거사는 180명으로 이는 불교교양대학 입학생중 대다수가 보살이란 점에서 보기드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일 개교기념 숭산(화계사 조실)스님 초청 발심대법회에서는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충북지역 거사불교의 중흥을 다짐했다.

충북불교대는 11월10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고승초청 발심대법회를 열어 중부권 불교중흥에 나설 각오다.



◇정신지체시설 녹향원은 인원수는 작지만 다훈증후군 환자까지 있어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어느 곳보다 필요하다.

"정신장애인 불심으로 재활"

청계사 교계 첫 정신지체시설 '녹향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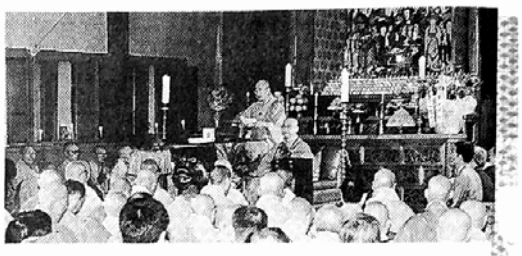
군포 청계사(주지 지명)가 교계최초로 정신지체아수용 전문시설인 녹향원(운영이사 정경자)을 인수하고 최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청계산 중턱에 자리잡은 녹향원은 대지 5백여평 건평 90여평에 2개동의 숙사가 있으며 5명의 지체장애인에 1명의 보육사가 거주하는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녹향원은 뇌성마비환자 12명이 수용돼 있으며 무인가 시설이어서 관계자들의 어려움도 큰 편. 프로그램은 신변처리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언어훈련, 직업기술훈련, 미술 음악 직업 운동을 통한 정서안정및 활동력 강화운동 등 다채롭다.

녹향원운영의 어려움은 불교시설로 되면서 인근 기독교 봉사단체의 손길이 끊어져 원생들의 의로움이 크다는 것.

정경자 이사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생활공간과 훈련의 장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30평의 1개동 숙사를 90평으로 증축하여 30여명을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김원우 기자



덕암스님 '원융불교의 실천' 출판회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덕암스님의 '출가 70주년 고승평전〈원융불교의 실천〉 출판기념법회'가 9월28일 태고종 법륜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혜초스님(前 태고종총무원장), 무공스님(대륜불교문화연구원장), 서돈각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 한정섭박사, 오형근교수(동국대), 권기종교수(동국대)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에 이어 '대승사상과 원융불교' '현대불교와 사찰운영법' 등 기념특강도 진행됐다.



붕해스님 일붕선교종정 취임식

일붕선교종 붕해스님 제2세 종정 추대법회가 9월26일 올림피아호텔 본관 2층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무찰(총무원장) 동명(종회의장)스님 등 종단 관계자와 영명(법상종) 일공(원융종) 대산(삼론종) 운파(조동종) 성도(대승종) 김광태(한국법화종) 등 각 종단 종정스님 및 보인(원융종) 송정(조동종) 남정(총화종)스님 등 총무원장, 서한샘의원(신한국당)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실천승가회 통도사서 정진도량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 '97 추계정진도량이 '종단개혁 3년에 대한 평가와 종무행정 발전전략'을 주제로 9월30일~10월1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렸다. 이날 정진도량에는 보광원 조실 화산스님, 종회부의장 법등스님, 종회의원 지홍스님 등 3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리더십 평가' '종단 인사정책의 현황과 과제' '종단의 재무관리 시스템의 평가와 전망'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동산불교대 美LA 분교 개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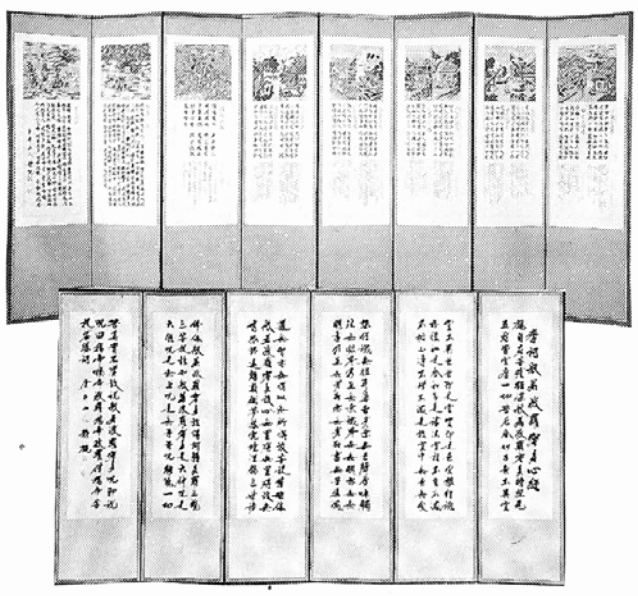
동산불교대 미국 LA분교(학장 도안스님·관음사 주지)는 9월21일 LA관음사에서 개교식을 거행했다.

김재일법사의 '해외지역 불교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특강을 겸한 이번 법회에는 학장 도안스님을 비롯 김재일(동산불교대 이사장), 김안수(LA분교 교무처장)법사등 교민불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 고급비단천 10색칼라 완제품』

석가 세존 일대기 팔상록 부모은중경(금강경 반야심경) 8폭 병풍 보급

▼ (전면) 부모은중경



▲ (후면) 반야심경

귀의 삼보하옵고
본 성불불사 포교원은 2,000만 불교도의 불심정진과 바른신행생활을 위하여 우주의 근본이며 人生의 자부이신 석가세존(부처님)의 장엄하신 위엄과 구도를 널리 깨닫게 하고저 一念의 포교 차원에서 전통불화와 공예품을 발굴하여 작가의 독특한 예술적 정화를 통해 하나하나 불교혼을 불어 넣어 실체감 있게 살아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각 사찰은 물론 가정과 사무실에 一品씩 소장하시어 항상 직접 보고 깨달음으로 더욱 크신 佛心 경지를 달하게 할 것이며 특히 佛心을 모르는 수많은 중생들까지 佛心을 심어 하시는 일이 부처님의 가피원력으로 모두 이루시고 佛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충분하시길 합장 발원하옵니다.

특별 할인 가격 (신용카드 18개월 할부가능)
● 팔 상 록 : 360,000 ● 부모은중경 : 380,000

성불 불사 포교원
■ 문의처 : 02)831-2848~9 / 02)831-7075
수신자부담 전화 : 080)284-2848
■ 팩 스 : 02)831-2849

● 작품규격 : 5.5尺 × 폭 12尺 ● 표구재질 : 고급실크지 수입스기목

▼ (전면) 팔상록



▲ (후면) 금강경

법회안내

도선사 (02)993-3161



◇주지 등광스님

신중기도법회 매월 1~3일 (음) 오전10시
방생재일법회 매월8일(음) 오전11시
미타재일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1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1시
청년·학생·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오후3시
철야정진법회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7시
도선불교자원봉사회활동 매월 2회

불갑사 (0686)52-8258



◇주지 도현스님

초사흘기도 매월3일(음)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선우회법회 매월2회

혜운사 (02)871-6653

정기법회 및 신도입교식 매월1~5일(음) 오전10시
산신기도 매월5일(음) 오전10시
관음기도 및 신중기도 매월3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마하연포교원 (032)523-9911

정기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 학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호국의 빛 대장경법회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보광)는 15~16일 '팔만대장경 수호 보살계 수계법회 및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국난의 위기에서 온 국민들의 호국염원을 하나로 결집하여 조성된 팔만대장경. 해인사는 이 팔만대장경이 완성된 음력 9월을 맞아 그 지극한 염원을 널리 기리고자 보살계 수계법회와 만등불사의 자리를 마련했다. 보살계동참금 3만원, 연꽃등 3만원 일반등 1만원. (0599)31-1011

7일7야 '남위해 정진'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철스님의 이같은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해인사 성철스님문도회(회장 법전스님)는 14일부터 20일까지 '칠일칠야 참회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기도법회는 매 두시간에 걸쳐 일천배를 칠일 밤낮동안 이어나감으로써 모두 팔만사천배를 마치게 된다.

입재는 14일 오전7시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추모재는 21일 오전10시30분 해인사 대적광전.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대참회 기도이다. (02)265-5215

사경 사불 1080배

부천 보운산 석왕사(주지 영담)는 창건21주년을 맞아 12일부터 18일까지 기념법회 및 사경·사불·1천8십배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는 법회외에 16일 탑돌이 및 강강수월래 18일 노래한마당과 12~18일 우리농산물 큰장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 한편 이번 법회기간에 초청되는 법사는 △13일 효림(보광사주지) △14일 혜담(각화사주지) △15일 지선(백양사주지) △16일 법등(직지사부주지) △17일 종범(중앙승가대 교수) △18일 명진(연주대선원장)스님이다. (032)663-7771

영주에 깃든 불교문화

의상대사의 숨결이 서린 부석사에서 8일 오전11시 영주의 고대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가 열린다. 영주향토사연구회(회장 김영하)가 마련한 이날 회의에는 황수영박사(문화재 전문위원)가 '영주의 고대불교문화'를, 김상현교수(동국대 사학과)는 '의상대사 추동기'를 각각 발표한다. (0572)31-3300

장학재단 설립 기금전

선서화와 도자기의 기풍을 통해 신심을 점검하고 아울러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설립 기금도 마련하는 뜻깊은 작품전이 열린다.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원통보전에서 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 작품전은 환희복지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구하, 벽안, 보성스님 등의 선서화와 소공, 벽계거사 등의 도자기, 중국 다탁등 총 3백여점이 전시된다. (051)205-0069

자연과 승무의 만남

단풍이 물든 계룡산에서 불교의식무용을 만나보자.

충남전문대 무용과 엄정자교수가 이끄는 엄정자춤무리가 2일 동학사 공연에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계룡산 매표소 주변 야외무대에서 바라춤 법고승무 등의 불교의식무용을 선보인다. (042)866-0292

'아시아나' 인도직항

장엄한 자연과 5천여년의 역사의 불교성지 인도. 아시아나항공(사장 박삼구)은 1일부터 서울에서 인도의 수도 델리까지 수·일요일 주2회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다.

새 비행기로 취항된 이번 직항로 개설은 델리에 근접한 8대 성지를 순례할 불자들에게 편리하고 편안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델리취항 기념으로 10, 11월 2개월간은 스님들에게 특별요금제도를 운영할 예정. (02)758-8218

사부대중 '화합' 한마당

조계사 등 전국서 체육대회 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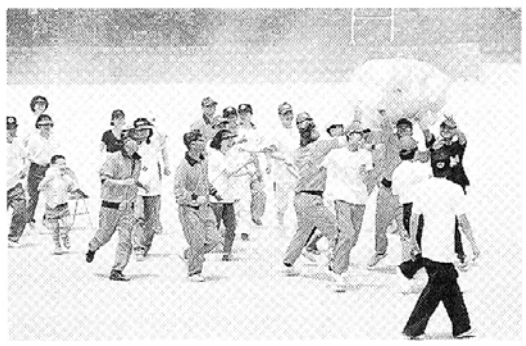
불자들의 화합된 한마당으로 꾸며지는 불교체육대회가 12일 조계사를 시작으로 사찰 및 신행단체 중심으로 펼쳐진다.

서울 조계사(주지 현근)는 12일 제9회 육화제를 서울 재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다. 청년회 관음회 자모회 대승불자회 어린이회 학생회 등 조계사에 적을 두고 있는 7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원광초등학교에서는 무진법장사(주지 법장)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로 불심을 함양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이어 능인선원은 30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갖고 신도들간의 단합된 힘을 과시한다.

청주 관음사학생회(지도법사 홍자운)는 19일 창립 기념법회 및 체육대회를 관음사 경내와 청주대 운동장에서 갖는다.

전주 전북·이리·군산·남원·화엄불교대학 등 전북지역 5개 불교대학이 연대한 전북불교교양대학연합이 19일 전주교육대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통한 우의를 다진다.

강화 강화불교신도연합회(회장 장기천)는 26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지역 18개 사찰 중 14개 사찰이 참여하는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사찰 신행단체들의 체육대회가 한창이다. 선우-육사 친선 체육대회 모습.

나의 수행일기



곽종형 〈경상대 교수〉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교와 인연을 맺은지 36년. 긴 세월이 흘러 갔으나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알찬 수행생활을 하지 못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여름, 3박4일간 해인사 원당암에서 혜암스님을 모시고 전국교수불자연합회가 해마다 주관하는 여름수련회에 동참하여 마음의 거울을 닦는 공부를 한 것과 올해 7월 중순 2박3일간 강원도에 있는 보리수마을 수련장에서 법사원불교대학이 주관하는 수련회에 동참하여 묵언정진과 발우공양, 참선수련 등을 하며 심신의 배터리를 충전한 일은 흐트러진 내마음을 추스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뒤 본격적인 신행활동에 동참한 것은 1974년 송광사 진주불일회 사무국장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직무수행을 하다보니 송광사 8차 중창불사와 삼월불사에 동참하게 됐으며, 그 계기로 당시 방장이신 구산(九山)스님을 자주 친견하게 되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시에 수련지도를 받을 때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회향하고 나면 또다시 동참을 원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을때마다 나는 신도회장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된다.

직장포교 활동도 중요한 나의 수행생활이다. 내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상대에 교수불자회가 조직된지 15년. 초대 회장 소임을 맡아 많은 사찰을 순례하고 스님들을 만나 법문을 듣고 법담을 나누었다. 인근 청곡사 주지스님을 법사로 모셔 매월 법회도 열었다.

또 전국교수불자연합회와 교류하며 각종 세미나, 법회와 수련회 등을 개최한 것은 아직도 감동이 생생하다. 개인적으로는 불연이 깊은 경북 김천시 청암사 승가대학과 경남 산청군 심적사(深寂寺)를 매월 아내와 같이 방문해 사경(寫經)지도를 한다. 사경수행법은 공덕으로 으뜸가는 신앙의 식이며 좋은 수행법이라는 것을 신도들에게 이해시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고, 법사원 불교대학 학생과 법사들에게 〈반야심경〉 체본과 불교천자문을 보급하는데 힘쓰고 있다.

요즈음 내 일상은 교수로서 강의와 연구에 바쁘지만 틈틈이 인연이 있는 사찰, 송광사 불일회, 승가대학, 법사원불교대학등을 순방하면서 불사에 힘을 보탠다. 또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연구실에서 〈반야심경〉 270자를 사경한다. 사경삼매경에 젖어 나를 찾으며 녹차 한잔으로 세속의 때를 씻는 이 시간은 재충전의 소중한 시간이다. 이처럼 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늘 마음에 새겨 풍요로운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즐겁게 살고자 노력한다.

이제 10월이다. 매년 이즈음이면 연례행사처럼 진주불일회원 및 심덕사 신도들과 함께 적멸보궁인 봉정암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이번엔 더 치열하게 용맹정진하고 오리라.

사경삼매로 '마음의 때' 씻어

구산스님 미소 주장자…직장포교 큰 보람



간 날 때마다 경상대교수불자회 회원들과 미소실을 방문해 큰스님 법문을 청할 기회를 가지곤 했다. 그때마다 미소 띈 얼굴로 조금이라도 더 법문을 들려 주려고 애쓰시던 큰 스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요즘도 수행의 한계에 봉착할 때마다 큰스님께서 지금 살아 계셨더라면 좀더 깊고 바른 수행법을 배울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시절 인연으로 현재 전국불일회 수석부회장직을 맡아 불일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송광사신도회장으로서 신도들과 함께 해마다 개최되는 여름수련회에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동참시켜 불교의 교리와 수행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익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송광사 4박5일 수련회는 불교의 기초교리와 의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마치는 날까지 묵언생활을 하는 등 규율이 타수련회보다 엄격하기 때문

게 시 판

♣ 인사

△경주 신라문화진흥원=고문: 혜국스님(남국선원장)·윤경렬(향토사학가), 이사장:김주학(변호사), 부이사장:배기수(한독금속), 원장:진병길, 이사:김상현 등 29명, 운영위원:이임수등 16명, 신라바라밀회장 이정숙, 교사모임회장 안중기, 청년회장 박태곤, 사진동우회장 염팔만, 산악회장 이구동, 시다림회장 김순화, 수미산마니회장 강진.

△PC통신 하이텔불교동호회=대표시샵 김주서(광명어린이집 대표), 고문 오상룡(상주산업대 교수)·한승규(화인케이블대표), 총괄시샵 조준구·박경주, 지역총괄시샵 변인택·박정희, 회원·홍보시샵 김성길·장인식.

♣ 알림

△불교사진 공모=대한불교신문사(사장 도봉스님)는 제6회 불교·전통문화사진을 공모한다.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 흑백이나 컬러(규격 11×14) 사진으로써 마감은 31일. (051)867-1515

△백양사 청정대회=청정운동 추진위(총재 서돈각)는 12일 오전 10시 박성배 동국대 석좌교수를 초청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생원리'를 주제로 장성 백양사에서 청정운동 실천대회를 개최한다. (02)719-2606

△자양사회복지관 무료급식=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매일 11시30분~12시30분까지 복지관내 식당에서 지역내 65세이상 노인 1백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02)458-1664

♣ 모집

△무료전통혼례식 후원자=공창사회복지관(관장 심산스님)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혼례식을 치루지 못한 부부를 위한 무료 결혼식을 마련하고 그 후원자를 모집한다. (051)363-2063

△자원봉사=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수발 및 말벗상대가 돼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성별 연령의 제한이 없다. (02)203-3677

♣ 강좌

△선학=(재)선학원 중앙선원(원장 성해)은 제1회 추계 선학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재는 선가귀감. 모집인원은 50명. 회비는 5만원. (02)732-3327

△성훈따주기=수효사(주지 무구)는 성훈따주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2시. (02)313-3060

♣ 답사·순례

△정암사=국토문화순례 터사랑(회장 전숙희)은 11~12일 1박2일 태백산 단군성전, 정암사, 이효석생가, 가산공원 등을 탐방한다. 회비는 5만원. (02)725-1284

△송광사·위봉사=청주 관음사(주지 이두)는 17일 전주 송광사와 위봉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회비는 2만원. (0431)56-6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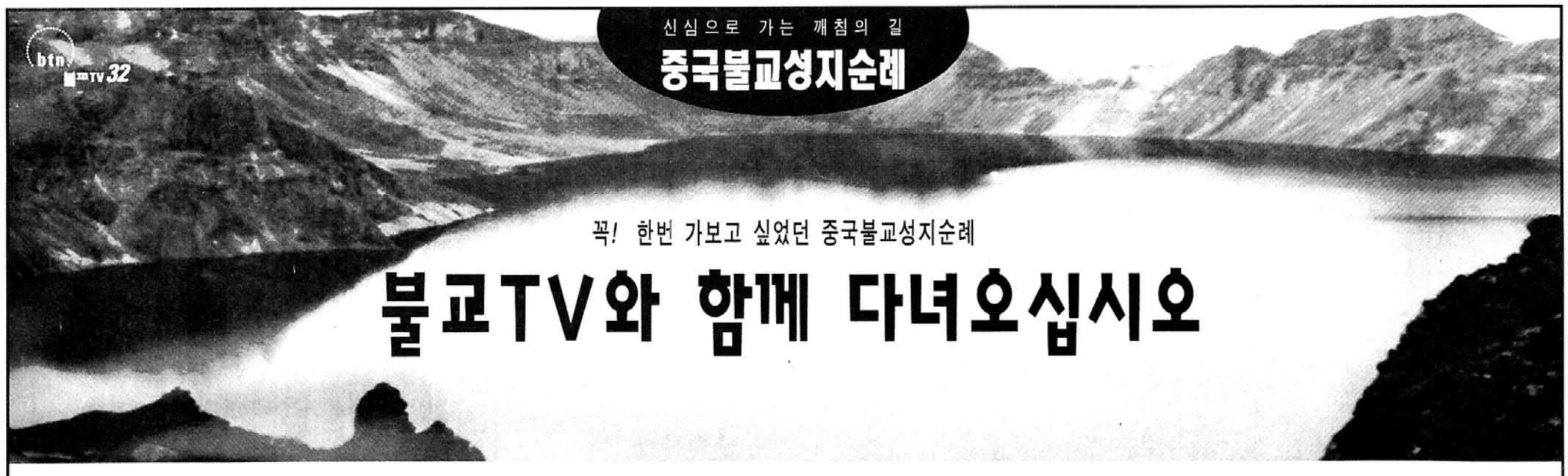
♣ 화촉

△문종남 前 불지사부장은 9일 낮12시 과천경마장내 육각정에서 이종석씨(불지사 근무)와 화촉을 밝힌다. (02)277-2676

△김충현 불교TV PD는 11일 오후2시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이영아씨를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02)3270-3475

독자와 함께 만듭니다

법회·모임·전시회·결혼·모집·강좌·인사 등 알리고 싶은 행사내용과 사진 독자제보 의견을 보내주시면 지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전화722-4162·팩스737-0698



해인사 미술관 고찰문화포교 '새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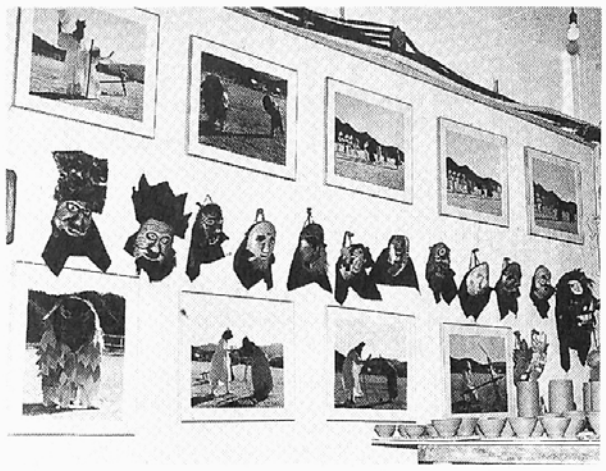
10일부터 개관기념 고승선서화展 열어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사 들어가는 초입에 불교 전용미술관이 개관된다. 10일 문을 여는 '해인사미술관(관장 성공스님)'은 해인사 입구 기념품을 파는 상가 건물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3층 연건평 70여평 규모의 불교전용 미술관이다.

해인사미술관 3층은 전시장, 1층에는 도예교실과 전통찻집 '이뭣꼬'가 들어서며 2층은 식당이다. 더도시에도 불교전용전시관이 드문 현실에서 고찰(古刹) 앞에 위치한 해인사미술관의 개관은 불교문화발전과 포교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인사미술관은 개관기념으로 10일부터 해인사와 인연있는 고승 선서화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구하 구산 경봉 청담 환경 월하 석주 일타 송월 수안 중광 스님 등 고승대덕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불교적 사유를 엿볼 수 있는 서예와 그림 70여점이 전시돼 해인사를 참배하는 관람객들에게 선향을 느끼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1층의 도예교실에는 합천의 자랑거리이며 오광대의 시발지인 합천 초계대광대탈 20여종과 광대놀이 사진과 발우 다기 등 도예가 상설 전시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 2회 도예 정기강습과 관람객들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볼 수 있는 실습의 기회도 제공한다. 성공스님은 도자기실습을 위해 인근 舊자산초등학교 부지에 도자기가마도 마련해 놓았다. 또 전통찻집 '이뭣꼬'를 국악공연 등에 언제나 장소를 개방해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10일 개관하는 해인사미술관의 1층 초계대광대탈과 도예전시장 모습.

해인사 미술관은 앞으로 그림으로 유명한 중광·수안스님 초대전, 불교테마기획전, 불교사진전, 유명 도예가작품전 등 다양한 기획전을 계획하고 있다.

관장 성공스님은 "연 1백만명의 해인사를 찾는 참배객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살아있는 포교공간이 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불교미술전을 기획해 해인사미술관이 경남의 새 문화명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천=이윤호 기자

불심시심 〈102〉

물성은 다르지만

嗟爾山中菊與楓 서글프다, 산 속의 국화와 단풍은
(차이산중국여풍)
胡爲天賦不相同 어찌하여 천성으로 타고남이 같지 아니한가
(호위천부불상동)
三春嫩葉濃千樹 봄날의 연한 잎 일천 나무 짙으며
(삼춘눈엽농천수)
九夏殘莖叵數叢 여름철 두어 줄기 몇 떨기 무성하다가
(구하잔경출수총)
爛慢重陽枝戴萼 흐드러진 중양절 가지 끝 꽃부리이고
(난만중양지대악)
衰凋一夕絳顔紅 쇠잔한 하루 저녁에 푸르름이 붉음으로 변하다
(쇠조일석록번홍)
香皓十月凌霜立 시월달 향기로운 꽃 서리 눌러 서 있어서
(향파시월릉상립)
應笑悴容散谷風 골 바람에 초췌한 모습 날림 응당 웃겠지
(응소췌용산곡풍)

이 시는 오암대사가 지은 단풍과 국화는 본성이 다르다(楓菊殊性)한 시이다. 이렇듯 서로 다른 처지이나, 자연 이치의 구현은 다를 것이 없다는 내면의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의도 속에서 이 시는 구성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립시키고 있다. 앞 구는 국화요 뒷 구는 단풍을 대조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국화가 제 계절을 만나 화려함의 극치라면, 단풍은 비록 빛의 화려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잎이라는 생명력이 한계에 다다름을 대조시켜 영화와 쇠락의 갈림길을 잘 맞물려 놓았다.

봄날 일찍이 잎을 피워 온 숲을 푸르게 물들였던 단풍이 있는가 하면, 여름철 느지막이 두어 줄기를 돋아내는 늦은 출발이 가을을 맞이하여서는 서로 영화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 출발했던 단풍은 이제 비록 붉음의 빛으로야 국화와 맞설 수 있겠지만, 이는 조락이라는 떨어짐을 앞에 둔 황혼의 노을빛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화는 이제 식물로서의 절정에서 꽃을 피우고 있어 서릿발에 오히려 빛을 더하는 싱그러움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듯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상황은 다른 것이 바로 사물 각각의 태어남의 차이이다. 이것을 일러 본바탕의 차이라 하지만, 태어남의 본바탕인 물성의 본연에서야 다를 것이 없다. 마치 학의 다리 길다하여 잘라서 짧게 할 수 없고, 오리 다리 짧다 하여 길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히려 이 길고 짧음이 있어 자연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지는 나뭇잎이 있기에 늠름한 국화의 꽃이 더 돋보이는 것이요 그 향기 더 아름다운 것이지, 단풍의 붉음이 국화와 맞서 내내 지지 아니한다면 국화의 아름다움이 돋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시는 이 다른 본성이 바로 다 같은 불성임을 암시하려는 대사의 의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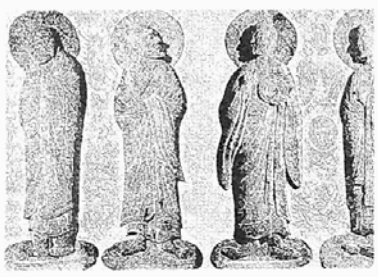
이종찬 〈동국대 교수〉

불상·탑소재 신작 30여점 감상

정비파 목판화전 11일까지 대구 예술마당 '솔'

불자 관화가 정비파씨의 목판화 전시회가 11일까지 대구 예술마당 솔(053-427-8141)에서 열린다.

'흙냄새, …부처마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석굴암 십대제자, 운주사 천불천탑, 경주 남산의 불상과 탑 등을 소재로 한 30여점의 작품들이 채색목판화로 소개된다.



◇정비파 作 '석굴암 10대제자'(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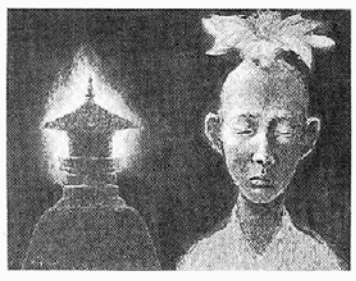
화제의 전시

"그림으로 보는 마음자리 찾기"

박항률 개인전 31일까지 관훈동 추제화랑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불자화가 박항률씨의 개인전이 31일까지 관훈동 추제화랑(02-738-3583)에서 열린다.

마음자리 찾기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박항률씨는 독특한 서정성을 표출한 '생의 명상' '유혹' '새벽' 등 4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박항률作 '생의 명상'.

"정토의 그리움 화폭에 담았어요"

귀국전 여는 재독화가 정영창씨

전쟁 마약 에이즈 등 사회성 높은 테마를 즐겨 다뤄온 재독화가 정영창씨(40)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귀국전을 갖는다. 9월 서울 전시에 이어 오는 9~19일 광주 송원갤러리(062-510-7121)에서 또 한차례의 개인전을 갖는 정씨는 유럽화단에서 '신표현주의의 성격을 띠면서 한국적인 정신성을 강하게 표출하는 작가'로 주목받아 왔다.

"반야심경등 늘 독경을 들으며 작품을 합니다. 독경을 하다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 마음을 비워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윤회' 시리즈는 부조리한 현실과 대비되어 정토에 대한 그림움과 강한 회귀원력이 한층 표출된 작품.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각지에서 16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는 정영창씨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신도회 총무를 맡고 있는 등 독일에서의 불교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는데 첫 귀국전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고국을 자주 찾아 작품을 선보이게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작품 '전쟁' 앞에 서 있는 정영창씨.

이경숙 기자

문화재 소식

"제주법화사 1269년 이전 창건"

'지원 6년' 명문기와 출토…연혁 확인자료

제주도 법화사가 1269년 이전에 창건됐으며, 중창공사가 10년이상 걸렸음을 알려주는 명문기와가 발견돼 불교계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대박물관(관장 고창석)이 지난 2월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 법화사지 7차발굴조사 결과 '지원6년기사(至元六年己巳)'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됐다. 박물관측에 따르면 '지원6년'은 원(元)나라 세조6년 즉 고려 원종10년(己巳)인 1269년을 가리키는 것. 93년 5차발굴 때 발견한 '시중창십육년기묘필(始重創十六年己卯畢)'이란 명문기와와 맞춰볼 때 중창공사가 1269년부터 고려 충렬왕5년(己卯)인 1279년까지 10년에 걸쳐 이뤄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창석교수는 "지원이라는 연호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된 것은 7차에 걸친 발굴 중 가장 큰 수확"이라며 "법화사의 연혁(증창연대)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주사 칠성바위 천문관측용"

황호균씨 주장…"배치상태 북두칠성과 유사"

운주사의 칠성바위가 세계 최고(最古)의 천문관측 수치를 실물로 제공하는 초국보급 유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전남대박물관이 마련한 호남의 문화유산 강좌에서 황호균(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사)씨가 제기한 것.

황씨에 의하면 칠성바위는 한때 원반형 7층석탑의 옥개석으로 오해받기도 했지만, 배치상태를 보면 원반의 각도나 지름크기가 북두칠성의 방위각이나 밝기와 흡사해 고려불교에 수용된 칠성신앙의 사례가 분명하다. 칠성바위가 운주사에 만들어져 신앙돼 온 것에 대해 황호균씨는 "칠성신앙 자체가 도교의 중요신앙 형태이며 고려시대에 도교가 융성했다는 사서(史書)의 내용으로 미루어 칠성신앙이 불교와 관련을 맺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별의 밝기에 대한 등급을 문헌으로 남긴 최초의 자료는 〈동국문헌비고〉(1770년刊)의 '象緯考'로 운주사 창건을 12세기로 볼 때 이보다 6백년 앞선 유물이다.

"흥덕사 복원" 청주시민 90% 찬성

'시민의 소리' 설문, "市서 비용부담해야" 60%

청주시민의 90%가 직지심체요절을 주자·인쇄한 곳으로 알려진 흥덕사 복원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는 복원된 흥덕사에 직접 스님이 거주, 실제 사찰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60%의 시민은 흥덕사지가 청주를 세계적인 인쇄메카로 알리고 있는 만큼 흥덕사 복원비용은 청주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청주시 공무원 연구모임인 시민의 소리(팀장 오유석)가 청주시민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시민의 소리는 최근 열린 21C 청주모임 과제발표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복원된 금당과 고인쇄박물관만으로는 청주를 세계적인 인쇄문화의 성지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복원된 강당, 회랑 등을 고려의 전통적인 사찰건축양식으로 복원해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흥덕사 복원은 고증자료의 부족과 막대한 복원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는 조바심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00여년간 승가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양생의 지혜. 군더더기 없는 삶, 군살 없는 몸매 유지의 비결 — 불교 다이어트.

저울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 아니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다. 모든 것을 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따라 생활할 뿐, 특별한 방법으로 몸을 돌보지 않는다. 승가의 생활 그 자체가 건강의 비결인 까닭이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몇십년 동안 1~2kg 정도의 차이로 몸무게를 유지하며 생활한다.
몸은 항상 변화한다. 그것이 늙음이고, 병듦이고, 죽음이다.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 바탕 위에서 불가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이어트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책들 ①

불교 다이어트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국판 224쪽/ 학림 지음
여시아문 /값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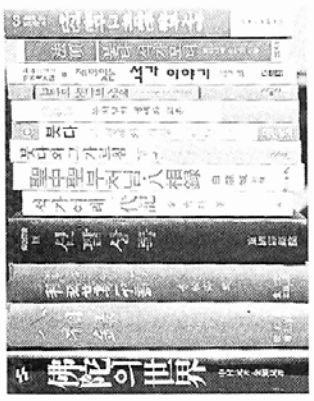
제1장 승가의 생활
제2장 음식물로 다이어트를
제3장 쾌변으로 다이어트를
제4장 쾌면으로 다이어트를
제5장 호흡으로 다이어트를
제6장 식욕을 끊어 다이어트를
제7장 몸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제8장 요가로 다이어트를
제9장 마음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035(영업부), 737-0081(편집부),737-0097(팩스)



◇동국대에 소장된 초간본 석보상절.



◇지금까지 출간된 부처님 일대기 책들 중 일부분.

대부분 번역서…연구 '제자리'

한글날 맞아 살펴본 우리말 부처님 일대기

인류의 영원한 스승 석가모니부처님은 삶 자체가 곧 그의 사상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전생애를 담은 부처님 일대기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은 가장 기본적인 불교입문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부처님일대기는 바로 〈석보상절〉(釋譜詳節 1447년 간행)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1446) 이듬해에 펴낸 〈석보상절〉이 올해로 발간 550주년을 맞았다. 〈석보상절〉 이후 현재까지 나온 우리말 부처님 일대기는 50여종. 그러나 지금까지 출간된 부처님일대기 대부분이 번역서에 치중되고 있고, 일부는 내용면에서 부처님을 신비화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석보상절〉 발간 550주년을 맞아 우리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우면서도 내용이 알찬 부처님 일대기 출간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세종대왕의 둘째아들 수양대군이 왕명으로 소헌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위해 당나라 도선의 석가씨보와 〈법화경〉 〈지장경〉등에서 가려뽑아 번역한 〈석보상절〉은 조선조 초기의 불교를 체계화 하고 학문적으로 총정리한 작업의 소산이자 당시 불교학과 서지학 인쇄술 등 총체적인 문화수준을 말해주는 귀한 자료다.

우리나라 최초의 불경번역서인 〈석보상절〉은 한문을 모르는 일반 지층에 널리 읽히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만든 훈민정음을 보급한다는 뜻도 있었다.

최초의 한글 번역서 〈석보상절〉을 효시로 한말(韓末)에 안진호스님이 삽화〈팔상록〉을 펴냈고, 그 뒤에 몇몇 출판사에서도 신편 〈팔상록〉을 펴냈다. 김대은 스님의 〈석가모니 일대기〉와 역경원에서 펴낸 〈부처님의 생애 상·하〉 〈석보상절 상, 하〉를 비롯 〈인간 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재미있는 석가이야기〉 〈인간 석가 상, 하〉 〈붓다〉 〈고타마 붓다의 생애〉 〈신필상록〉등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책들이 나왔다.

'석보상절' 등 50여권 나와 지나친 신격화 지양해야

단순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것에서 그 생애와 사상을 조명한 것 등 지금까지 발간된 책들 상당수가 외국 번역서다.

번역서외 저서들가운데 대부분의 부처님 일대기들은 〈불본행경〉(佛本行經)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불소행찬〉(佛所行讚)등 불경을 바탕으로 재편집된 것들이어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또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은 너무 관념적이어서 독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 등 부처님일대기 관련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연구나 발전을 보이지 않은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6년 〈석보상절〉을 최초로 정리해 단행본을 펴낸 김영배씨(前 동국대 교수)는 "전체 24권 가운데 1/3 정도만 전해지고 있는 〈석보상절〉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분석이 부처님 생애를 한국불교적 토양위에서 재조명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불교를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내력을 아는 것은 신앙의 밑거름이자, 삶의 길잡이가 된다. 부처님의 일대기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수많은 경전의 바다로 인도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스님은 "부처님 일대기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다보니 새롭게 연구하기보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출판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것같다"면서 "구태의연한 기존의 틀을 벗고, 현대 독자들의 정서에 맞게 역사적, 과학적, 철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처님 일대기가 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문화중대 세우자" 책으로 열강

김준호씨 '우리소리 우습게…' 펴내



민속학자이자 소리꾼인 김준호(35)씨와 한국무용가 손심심(35)씨 부부가 전국을 열풍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우리 소리' 강연을 〈우리 스리 우습게 보지 말라〉(이론과 실천 刊)라는 제목의 책으로 내놓았다.

이들은 전통문화라는 비인기 소재를 가지고 지난 6월18일 MBC 〈10시! 임성훈입니다〉에 출연한 뒤 전국적인 명사가 됐다. MBC는 그의 강연을 7월에 심야특집으로 방영하고, 또 추석연휴때도 이들동안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 책은 그동안 강연하면서 못다 풀었던 내용들을 더욱 알차게 보완하고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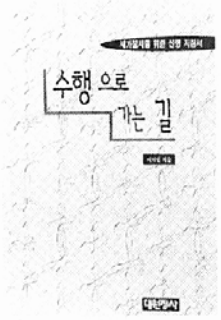
우리민족이 세계 어느민족보다 타악에 능한 이유를 젓가락 장단때문이라는 흥미있는 화두를 던진 김씨는 젓가락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음식문화를 통해 우리의 민족성과 문화에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불교문화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문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물놀이 형식 또한 절에서 예불할 때 사용하는 사물에서 유래한 것"이라 말하는 김씨는 젊은 시절 누더기 승복한벌로 전국방방곡곡을 떠돌며 우리소리 지킴이로써의 삶을 시작했다.

"우리문화는 서로 나눠주는 문화. 바로 불교의 보시사상, 보살사상이 깊이 내재돼 있다"는 김준호씨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우리소리를 우습게 보지말고, 문화중대를 세우자는 것"이다. 〈은〉

'수행으로 가는 길' 초심자의 방향타

이제열법사 펴내



이제열법사(유마선원장)가 재가불자를 위한 수행지침서 〈수행으로 가는 길〉(대원정사 刊)을 출간했다.

도대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불자들을 위해 펴낸 이 책은 한국불교가 안고있는 신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한국불교 변해야 한다'에서는 신도들의 신행구조에 대한 질적 변화를 촉구하면서 삼보를 받들고 공양하는 것도 자기자신에게 수행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해탈의 길을 지도해 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라 강조한다.

제2장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제3장 '생활 속의 수행'에서는 기도의 의미와 발원, 진정한 귀의의 대상, 경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염불의 자세, 여러가지 참선법, 보살도의 실천 등 생활 속의 수행법을 정리했으며 제4장 '바른 앎 바른 삶' '제5장 구름넘어 허공을 보라'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향해 정진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나온 책



▲부처에서 짐승까지= 파격속에 치밀한 논리가 있고, 거칠 것 없는 자유로움 속에 또한 치열한 고뇌가 있는 선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널리 알려져있는 〈선문염송〉 〈전등록〉 〈임제록〉 〈조주록〉 〈벽암록〉등과 한국과 일본, 인도의 옛이야기들 중에서 비교적 쉽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을 뽑아 정리했다.

▲사십구재란 무엇인가=행원생활불교시리즈 제1권 〈사십구재란 무엇인가?〉는 사십구재를 통해 인생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오늘이란 어제의 연속이며 또 오늘은 내일의 연속상에 있는 것과 같이 금생(今生)은 전생의 연속이며 또 내생(來生)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불교의 윤회설과 인과설을 설명하고 있다.

▲반야심경 금강경=1974년 고 이기영 박사가 펴냈던 〈반야경 금강경〉 개정판이다. 이 책은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산스크리트 원문과 한문을 비교공부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반야심경〉부분에는 이기영 박사의 논문 〈원효에 의한 반야심경 신해석〉이 실려있으며, 〈금강경〉 부분에는 조선초기 고승 함허당 득통스님이 편찬한 금강경오가해 가운데 육조 혜능의 견해를 토대로 한 별개의 주를 첨부했다. 〈한국불교연구원 8천5백원〉

▲그 겨울, 대바람 소리=전남 완도 기상대에 근무하는 불자 주봉구씨가 펴낸 에세이집. 79년 〈시와의식〉에 당선된 후 집필활동을 해 온 주씨는 시집 〈머슴새〉 〈향토 한 줌〉 〈잠들지 않는 바다〉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책은 주씨가 시로써 형상화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신아출판사 6천원〉

법화사상 | 혜학 번역

'일불승' 사상 中·日학설 면밀히 검토



〈법화사상〉은 83년 일본 춘추사에서 펴낸 강좌 대승불교 네번째 〈법화사상〉의 완역본이다. 이 책은 〈법화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통해 경의 중심사상을 밝히고, 다른 관련서와 달리 〈법화경〉의 독특한 사상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법화경〉의 특색을 살펴 대승불교에서의 사상적 위치를 밝히고, 〈법화경〉의 여래수량품을 중심으로 〈법화경〉의 불타관을 살핀다. 〈법화경〉 전반부의 중심 사상인 '일불승'의 사상을 용수, 세친을 비롯 중국 일본등 제학자의 학설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해 일승사상의 특색을 고찰한다. 특히 천태지의 법화삼대부(法華三大部)에 설해진 〈법화경〉에 관한 중요한 교리와 사상을 해명해 법화사상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경서원 1만2천원〉

화제의 책

조주록 탐구 | 고목 지음

조사 말씀 쉽게 접근하는 통로역할



선(禪)은 말과 생각이 끊어진 경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치를 스스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선을 말과 생각으로 하고, 본분사를 말과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병폐에 빠지게 된다. 조주선사는 이러한 범부의 정량(情量)을 깨뜨리고 본분의 일로 나아갈 바를 빈틈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끌어 준다. 간결한 일상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조주록〉은 가장 조직적이고 완벽한 선사상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어록중의 어록이라고 한다. 〈조주록 탐구〉는 조사의 말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 이 책은 〈조주록〉의 모든 어구에 내포된 선사상을 그 요지에 따라서 테마화하고, 다시 이것을 체계화시켜 선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삼양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3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4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 타	효 림
5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림	행 원
6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탄 허	교 림
7	인연(작은책)	서 정 주	민 족 사
8	신반야심경강의	혜 담	불교시대사
9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틱 낙 한	한 민
10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구입문의:(02)737-0695

—禪書의 白眉, 宗門의 寶庫

碧巖錄 譯解





碧巖錄
:중국 宋나라의 원오(圓悟) 설두(雪竇)선사가 지은 송고집(頌古集)을 評唱한 선수행의 뛰어난 지침서. 10권. 碧巖集

● 고급한지, 수제본, 케이스入 ● 정가 330,000원

일우스님이 생존시 현토(懸吐)하시고
淨圓스님이 한자, 한획 혼을 기울여
필사와 역해하신 것을 고급한지에
담아 낸 소장가치가 높은 벽암록 완결판!

· 본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선에 뜻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原文에는 친절하고 철저하게 토를 달고, 역해에는 번역과 함께 해설을 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나 술어 색인도 따로 색인하지 않고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처리를 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 「벽암록 역해」를 보지 않고 벽암록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벽암록의 이해없이 하는 참선은 마치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것처럼 바른 선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 달마가 불심천자 양무제를 뿌리치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간 까닭을 아십니까?

· 본서와 인연 맺는 분
임제의 「할」소리를 한 번은 들을 수 있고
덕산의 「방망이」한대 쯤은 얻어 맞을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738-6270, 735-7202 팩스:733-1016

"의천사상, 다종교사회 화합 열쇠"

보조사상硏 11일 '대각국사의 불교사상…' 학술회의

천태사상을 전해 고려불교의 통일을 유도하고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 전적을 모아 〈속장경〉을 간행한 대각국사 의천(1055~1101). 스님의 천태사상은 원효스님의 화쟁사상 재해석 발현으로 오늘날과 같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 한층 요구되는 평화사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굵직한 불교사상의 주제를 다루어온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이 의천스님의 천태사상과 〈속장경〉 간행 등이 지닌 불교사상사적 의미를 폭넓게 조명하기 위해 '대각국사 의천의 불교사상과 역사적 위치'를 주제로 제10차 학술회의를 11일 법련사에서 개최한다. 학술회의에 앞서 발제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의천의 천태사상 수용의 두 단계'를 발표한 이병욱박사(고려대 철학과 강사)는 의천스님이 고려말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 천태사상을 받아들였다고 전제하고 "처음에는 징관(澄觀, 738~839)의 천태사상을 수용했지만 나중에는 원효의 화엄사상으로 천태사상을 재해석하고 교(敎)와 관(觀)을 병행했다"며 의천스님이 천태사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시대별로 분석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의천스님이 종밀의 〈원각경소〉를 논하면서도 종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원효의 화쟁사상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당시 고려의 다양한 불교 종파와 유가·도가를 통합하는 것으로 해석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이박사는 "이것은 의천스님이 당대 사상을 회통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천태사상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말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특징인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의천스님의 화쟁의 도리는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화쟁사상을 천명한 의천스님이 귀족불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의 화엄적 실천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티호코프 블라드미르교수(경희대)는 '의천의 한국불교사 의식'에서 의천스님이 〈속장경〉을 간행한 것의 동불교적인 사상이 발로이지만 원효의 초소동등론(緖素同等論)

고려불교의 유·도가 통합 중추역할
속장경 간행 통불교사상 조명

과 같은 대중불교의 이론적 기반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천의 화엄사상'을 발표한 겨환스님(동국대 불교학과)도 "〈대각국사문집〉에서 의천스님이 화엄학적 용어들을 단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화엄학을 완전히 수용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것은 화엄사상이라기 보다는 '화엄적 입장'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말해 현대 불교학자들이 의천의 삼중관법(三重觀法) 등의 학문적 이론만 가지고 문헌에도 없는 의천의 실천방안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의천의 〈속장경〉'을 발표한 박상국실장(문화재연구소)는 "의천은 20년동안 동아시아의 장소(藏疏)를 수집해 중국의 〈개원석교록〉과 비견되는 장소 목록집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함질(函帙)로 엮어 간행했지만, 현존본에서 합차 표시가 없고 관식이 일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치·사회적 난국으로 인해 〈속장경〉의 간행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암사에 봉안되어 있는 의천스님 영정.

오증욱 기자



◇9월30일 유식학의 거장 오형근교수의 '정년퇴임 및 출판기념 강연회'가 있었다. 이날 오교수는 유식학을 주제로 퇴임 강연을 가졌다.

"'색법설' 연구에 여력 쏟을터"

유식학 권위자 오형근교수 정년퇴임

지난 25년간 대승경전의 유심사상(唯心思想), 대승보살도, 불교적 물질론 등의 연구에 몰두해온 유식학의 권위자 오형근교수(65)가 9월30일 동국대 개교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정년퇴임 및 출판기념 강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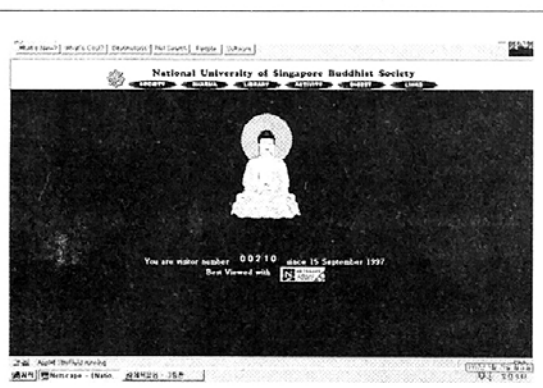
강연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이사장, 동국대학교 송석구총장와 동료교수, 제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퇴임강연에서 오교수는 "한국불교는 처음부터 대승불교를 도입해 토착화시킨 종교로 그 법맥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으나 실제의 수행은 소승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소승적 요소를 발본하고 명실공히 대승불교를 수행하는 불교가 되려면 보살사상을 철저히 연구해 이론을 제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하며 유식학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경구(警句)를 아끼지 않았다.

故김동화박사의 학맥을 계승한 오교수는 1967년 동국대에서 '아뢰야식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지난 25년동안 유식사상이 한국사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꽃피웠는지를 체계적으로 천착해 '유식학의 오위백법'(74년) '세친의 오위관에 대한 소고'(76년) 〈유식사상연구〉(불교사상사, 83년) 〈불교와 자연과학〉(집문당, 92년) 〈불교의 물질과 시간론〉(유가사상사, 94년) 등 70여편의 논문과 8권의 연구서를 발간했다. 오교수의 방대한 연구성과는 그동안 연구자가 전혀없어 황무지에 비유되던 유식사상 연구에 새로운 장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정년퇴임식에서는 오교수가 90년도부터 각종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중 '불교의 연기설과 창조설' '가정과 불교사상' '민족의 공동체 의식과 화쟁 사상' '불교사상의 사회적 기능' 등을 엮은 〈유식사상과 대승보살도〉(열린불교 刊) 논문집 출판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이 논문집은 총 600쪽 분량으로 논문 27편이 실려있다.

故 김동화교수 학맥계승
기념논문집 '유식사상과…'

오형근교수는 "앞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유식학 관련 단행본 저술에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유식학 중 '색법설'(色法說)을 연구해 불교에서 정신과 물질이 항상 평등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왕성한 연구 활동에 의욕을 보였다. 〈욱〉



동남아 불상특징·제작방법등 소개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부처님의 미소

호주 시드니대학에서 제공하는 '부처님의 미소'는 아유타, 스코타이,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유적지에서 발굴된 불상 30여개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곳을 방문하면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불상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아유타 유적과 태국 치앙산에서 발굴된 불상의 경우, 치앙산 불상이 뾰족한 머리 모양을 한 반면 아유타 불상의 두상(頭上)은 완만한 곡선 형태이며 용상(凶相)과 비교해 비대칭적이다. 두 불상의 결가부좌에서도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스코타이의 청동불상은 이 민족의 놀라운 금속 주조기술을 엿보게 하며, 미얀마의 불상은 동자(童子)의 미소를 간직하고 있다. 5세기에 제작된 미얀마의 목제 열반상도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태국의 치앙마이 박물관이 대불(大佛) 발굴 보고서를 제공하는데 이 보고서는 1996년 치앙마이 근교에서 5백여년전 불상을 발굴했던 기록. 또 미얀마에서 청동불상을 제작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소개한다.

http://felix.anitquity.ars.su.edu/

"육바라밀 실천은 환경보존 운동"

美 그로스교수 '불교환경윤리를…' 발표

최근 위스콘신대 비교종교학 리타 그로스교수가 〈미국종교학회지〉(Th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통권62호)에 사성제와 육바라밀 등 불교사상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강조한 '불교환경윤리를 향하여'를 발표해 화제이다.

그로스교수는 "사성제의 '고성제' '집성제'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이 문제는 육바라밀의 보시(布施) 지계(持戒)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는 인간의 삶이 '삼독'(三毒)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불성(佛性) 역시 인간에게 내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성제와 집성제를 바로 볼 때 '삼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보시와 지계의 실천적 수행이야말로 삼독을 막을 수 있고 자연적으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고성제와 집성제란 향락적 욕망을 구하고 개체의 생존에 탐닉하는 망집. 또 보시와 지계란 자비심으로 선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살찌게 하는 행위.

그러나 그로스교수는 "현대인이 불교를 개인적 해탈만을 꾀하는 종교로 생각하고 중도(中道) 등 불교의 주요 교리들을 긍정과 부정이 불분명한 사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불교의 그릇된 이해는 결국 사성제, 육바라밀 등의 불교환경윤리가 사회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해 깨달음이 사회로 적극 환원될 때 '반사회적'이라는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고 불교환경윤리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달라이 라마(티벳), 아웅산 수지 여사(버마), 술라 시바락스(태국) 등의 아시아 불교 지도자들이 불교적 가치관을 사회와 정치의 안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라며, 이것은 불교환경윤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소식

국제여성불자연합 '불교에서 여성' 12월 국제학술회의

국제여성불자연합(Sakyadhita)이 '불교에서 여성'을 주제로 제5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2월29일~1998년1월4일 개최되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불교단체에서의 여성의 지위 △불법(佛法)-비교문화적 접근 △평화와 사회참여 △불교육아법 등이 논의된다.

국제여성불자연합은 세계 여성불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1987년 인도에서 설립됐다.

스리랑카 스님들 정부 '헌법개정안' 반대시위 전개

스리랑카 스님 1백여명이 지난달 30일 수도 콜롬보에서 정부의 헌법개정안 반대시위를 전개했다.

이 행진은 스리랑카 정부가 최근 티밀 등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법률을 재정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발생했다.

스리랑카 승단은 이번 시위를 통해 "이것은 스리랑카의 분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제원효학회 번역자 15명 선정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가 현존하는 원효저술 번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번역자를 15명을 선정했다.

번역자에는 〈대승기신론소기회목〉을 영역하는 박성배 석좌교수(동국대)를 비롯해 로버트 버스웰(UCLA大, 〈금강삼매론〉) 찰스 퓨러(도요가쿠엔大, 〈이장의〉) 조성택(뉴욕주립大, 〈열반경종요〉) 김용표(동국대, 〈대혜도경종요〉) 피터 그레고리(코넬大, 〈십문화쟁론〉) 존 맥레이(인디에나주립大, 〈법화경종요〉) 등 국내·외 불교학자 15명.

국제원효학회는 한국 불교학자 중 번역자 3명을 추가로 선정해 원효저술 21권중 각각 1권씩 3년간 담임-번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표교수(국제원효학회 한국지부 간사)는 "12월중 해인사에서 국제원효학회 '워크숍'을 마련해 원효저술 번역에 따른 '용어' '교리' 등에 대해 토론을 거쳐 세부적인 '번역 통일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 법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큰스님. 일타큰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Ⅱ.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Ⅲ. 베풀며 살자 / Ⅳ.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Ⅴ.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Ⅵ. 화두 드는 법 / Ⅶ. 마하반야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큰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B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스님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 주변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육성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582-6612 팩스 : (02) 586-9078

한 형 조

무문관 답방

24

동산의 삼베

*동산에게 누군가가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동산이 말했다. "삼(麻)세 근."

*나 혜개가 말한다. "동산노인은 조개선(禪)을 얻을 수 있어, 양 껍질을 여니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더라도 어디 말해 보라. 대체 어디에서 동산을 볼 것인가."

*송하여 가로되, 난데없이 삼 세 근이라. 말이 친절한데 뜻은 더욱 친절하다. 여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자는 시비에 빠진 한심한 자이다.

洞山三斤

洞山和尙因僧問, 如何是佛. 山云, 麻三斤. 無對曰, 洞山老人參得些鮮蛤禪, 纔開兩片, 露出肝腸. 然雖如是, 且道. 向甚處, 見洞山. 頌曰, 突出麻三斤, 言親意更親. 來說是非者, 便是是非人.

동산이란 이름이 나올 때는 슬쩍 긴장된다. 조동종(曹洞宗)을 창시한 동산 양개(洞山良介, 807~869)인지 아니면, 그보다 한 세기 후의 운문의 제자인 동산수초(洞山守初 910~990)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동산이란 이름이 둘 뿐이지는 않을 것이다. 선의 역사의 뒤안길에 이름없이 사라진 또 다른 동산이 서넛 정도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림 · 이준석

지 짜른 선사에게 구지(俱胝)라는 이름은 아주 걸맞는다. 선사들의 이름 짓기는 대체로 이 두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라면 수천의 기라성을 키운 호보용행(虎步龍行)의 거장 마조(馬祖)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속성인 마씨(馬氏)를 그대로 썼다. 그렇다면 동산(洞山)은 원래 지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은 행복하게도 두 사람의 걸출한 선사가 연이어 선의 불꽃을 지펴간 길지(吉地)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혹 모르겠다. 원래 서로 다른 곳인데 우연히 지명이 같았는지도.

아무러나 저번 운문의 질문에 멍청한 대답으로 몽둥이 찜질을 받을 때는 그토록 초라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부의 기세로 덮쳐 온다. 진리를 묻는 학인에게 동산은 짤막하나 단호하게 "삼 세 근!"이라고 대답했다. 동산은 그때 아마 삼을 손질하고 있었을 것이다. 생 줄기를 가마에 넣고 쪄서 새끼줄에 말린 피마(皮麻)를 건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혹은 정제한 삼줄더미를 베틀에 걸려고 추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동산의 대답에서 일종의 범신론이나 형이상학을 읽으려 한다. 그러나 선의 대답에는 신비주의적 색채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고려는 없다. 철저히 실천적이고 철두철미 현세적이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진리를 실제(實際)라고 부르겠는가. 여실(如實) 혹은 여여(如如) 등은 밋밋하고 싱겁기 그지없는 이름이다. 이 말을 통해 불교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 너머나 혹은 그 안쪽에 무슨 실재나 본질 혹은 의미나 영혼이 존재한다는 환상(maya)을 갖지 말라는 차갑고 냉혹한 경고를 보냈다. 그때 역설적으로 진리와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우리는 그 단순한 실재에 접촉하기 힘들다. 그 속에 살면서도 말이다. 조산의 탄식처럼 우리는 술동이를 통째로 들이키고도 술을 입에 대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다. 세계의 실상은 우리의 습관적 인식과 욕망과 관심으로 하여 차단되어 있다. 그 조개껍질은 너무나 단단하고 완강하다. 동산은 운문의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 그 견고한 껍질을 깨트릴 수 있었다. 그 속살을 그는 학인에게 그대로 열어보여 주었다. 동산이 손수 까준 조개를 학인이 한 입에 털어넣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도 지금 먹을 생각은 않고 젓가락으로 살을 뒤적거리며 이게 뭐지, 먹어도 되는 물건인가 하고 시비(是非)하고 있다. 혜개가 그러지 말라고 그리 말리는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무엇이 부처입니까" "삼세근"

견고한 조개껍질 여니 속살이 드러났다

스님네들은 속성도 쓰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중복이 있게 되었을까.

대개들 알고 있듯이 선사들의 이름은 네 글자로 되어 있다(물론 예외도 있다). 진짜 이름은 나중의 둘이다. 가령 조주선사의 본래 법명은 종심(從心)이고 이 책의 편자인 무문의 이름은 혜개이다. 앞의 두 글자는 일종의 호(號)이다. 유학자들의 호는 고향땅이나 유배지, 혹은 후학을 지도한 곳 등의 연고를 따거나, 또 혹은 자신의 삶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을 함축하는 글자를 써서 짓는다. 선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선사들은 출가와 더불어 새로 태어나므로 고향의 이름을 선택한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출가득도만행하다가 나중에 자리를 잡고 교화를 편 곳의 지명을 그대로 딴다. 조주(趙州)나 덕산(德山)처럼 산(山)이나 주(州)가 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임제(臨濟)는 그 이름에서 '아하, 어디 물가나 나루 근처에서 법을 편 모양이군' 하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깨달음의 인연이나, 법의 본질에 대한 특유한 인식을 이름에 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지금 이 책의 편찬자 무문은 '진리에 이르는 문은 없다. 그럼에도 그 철통을 뚫는 길은 있다'는 진리의 역설을 이름에 담고 있고, 손가락 하나로 깨달음을 얻고 급기야 제자의 손가락까지 짜른 선사에게 구지(俱胝)라는 이름은 아주 걸맞는다. 선사들의 이름 짓기는 대체로 이 두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라면 수천의 기라성을 키운 호보용행(虎步龍行)의 거장 마조(馬祖)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속성인 마씨(馬氏)를 그대로 썼다. 그렇다면 동산(洞山)은 원래 지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은 행복하게도 두 사람의 걸출한 선사가 연이어 선의 불꽃을 지펴간 길지(吉地)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혹 모르겠다. 원래 서로 다른 곳인데 우연히 지명이 같았는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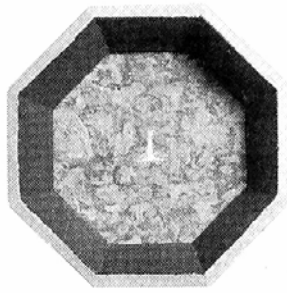
아무러나 저번 운문의 질문에 멍청한 대답으로 몽둥이 찜질을 받을 때는 그토록 초라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부의 기세로 덮쳐 온다. 진리를 묻는 학인에게 동산은 짤막하나 단호하게 "삼 세 근!"이라고 대답했다. 동산은 그때 아마 삼을 손질하고 있었을 것이다. 생 줄기를 가마에 넣고 쪄서 새끼줄에 말린 피마(皮麻)를 건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혹은 정제한 삼줄더미를 베틀에 걸려고 추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동산의 대답에서 일종의 범신론이나 형이상학을 읽으려 한다. 그러나 선의 대답에는 신비주의적 색채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고려는 없다. 철저히 실천적이고 철두철미 현세적이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진리를 실제(實際)라고 부르겠는가. 여실(如實) 혹은 여여(如如) 등은 밋밋하고 싱겁기 그지없는 이름이다. 이 말을 통해 불교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 너머나 혹은 그 안쪽에 무슨 실재나 본질 혹은 의미나 영혼이 존재한다는 환상(maya)를 갖지 말라는 차갑고 냉혹한 경고를 보냈다. 그때 역설적으로 진리와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우리는 그 단순한 실재에 접촉하기 힘들다. 그 속에 살면서도 말이다. 조산의 탄식처럼 우리는 술동이를 통째로 들이키고도 술을 입에 대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다. 세계의 실상은 우리의 습관적 인식과 욕망과 관심으로 하여 차단되어 있다. 그 조개껍질은 너무나 단단하고 완강하다. 동산은 운문의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 그 견고한 껍질을 깨트릴 수 있었다. 그 속살을 그는 학인에게 그대로 열어보여 주었다. 동산이 손수 까준 조개를 학인이 한 입에 털어넣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도 지금 먹을 생각은 않고 젓가락으로 살을 뒤적거리며 이게 뭐지, 먹어도 되는 물건인가 하고 시비(是非)하고 있다. 혜개가 그러지 말라고 그리 말리는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34〉



◇송수남 作 '자연과 명상'

8가지 고집 부정한 용수의 중도 이치

'중도는 연기법' 차별·대립 소멸법 알게돼

사탐이 수행을 고도로 쌓아 번뇌와 무명을 탁 깨뜨려 버리면 허공처럼 청정하고 확 트인 참마음 자리가 열리는데 여기에는 한점의 속박도 치우침도 없다고 한다. 이것을 중도의 경지라고 하며 이 앞에서는 우매한 중생들이 항상 끄집어 앉아 있는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높다, 낮다 하는 등의 온갖 분별이 불위의 눈처럼 사라진다. 중도는 부처님의 바르게 깨치신 법의 안목으로 치우침이 없는 경지를 뜻하는데 반야를 터득하고 공을 체험한 마음에서만이 실감되는 것이다. 중도의 완성은 불

팔부중도(八不中道)

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중도의 이치를 가장 훌륭하게 설파한 분이 용수보살이다. 그는 제2의 석가, 8종의 조사라고 할 만큼 위대했다.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선구자로서 〈대지도론〉 〈십주비바사론〉 〈중론〉과 같은 불후의 이론서를 짓기도 했다. 이와같은 논서들은 모두 삿된 것을 부수어 올바름을 드러내려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을 목표로 중도의 이치를 앞세워 당시의 잘못되고 왜곡된 불교학자와 외도들의 학설을 물리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서도 〈중론(中論)〉은 용수보살의 대표적인 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덟가지의 그릇된 견해를 부정함으로써 부처님의 적멸한 듯이 어디 있는가를 밝힌다. 이른바 불생불멸(不生不滅) 불상부단(不常不斷) 불일불이(不一不異) 불래불거(不來不去)의 팔부중도가 그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중도의 이치는 모든 법이 본래부터 자성이 없이 갖가지 인연을 통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연기법(緣起法)에 근거하여 설해진 내용이다.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공한 것으로 양변을 여의었다. 그러므로 중도는 곧 연기의 법이며 공한 법이며 일체의 차별과 대립을 떠난 적멸의 법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선 불생불멸은 지혜로운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법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질계건 정신계건 망념된 중생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일어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거짓모습이라 생멸이 끊어졌다고 말한다. 다음의 불상부단은 모든 법은 영원함도 끊어짐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다고 여기기 쉽지만 그 역시 치우친 견해로 망념된 마음의 소산일 뿐 이라고 한다.

다음의 불일불이는 모든 법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서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서로서로는 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또한 잘못된 소견들로 중도의 이치를 등졌기 때문에 이같은 편견을 짓는다고 한다.

마지막 불래불거는 모든 법은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고 어디를 향해 간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왔다가 저곳으로 가는 것이 모든 존재들의 흐름같지만 그것 역시 형상에 집착하는 망념된 마음에서 그렇게 보일뿐 실지로는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이와같은 팔부중도를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 비유를 든다면 바다와 거품에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바다의 입장에서 볼때 한방울의 거품이 생겨나고 없어지지만 바다 자체에서는 생겨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또 거품은 항상 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거품의 물이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 거품과 바다가 같은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바닷물이 인연을 만나 거품이라는 다른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그럼 반대로 거품과 물이 아주 다른 것이냐 하면 절대 그럴수는 없다. 거품은 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거품이 왔다 거나 갔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바다의 입장에서 볼때 거품은 가고 온 곳이 없다. 바람을 따라 왔건 바람을 따라 갔건 그것은 하나의 허망한 현상이지 바닷물은 그대로인 것이다. 이렇게 바닷물처럼 그대로인 법이 중도법이라면 우리들이 일으키는 차별의 법은 어떻게 소멸될 수 있을까. 자기 마음속에서 파생되는 인연의 법을 발견해 보는 일이 그 열쇠라 생각된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2

불교와 수학

27

무한과 창조

김 용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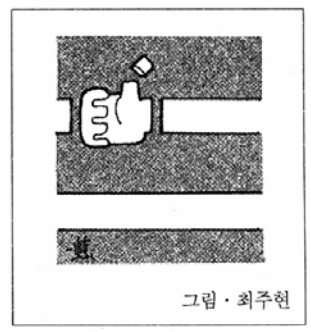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헌

무한세계, 모방·부정 거듭 창조성 발휘

'무한수학'도 유한계단 올라 초월 거쳐야

보통 사람에게 수학이라면 대상을 엄격히 구별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생각이 있다. 실제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직선, 삼각형, 원 등은 엄밀하게 구별되어 있다. 이 구별이 흔들리면 아예 이 기하학은 성립할 수가 없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도형은 모든 유한의 공간 속에 있다. 이 공간의 특징은 '일정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반드시 한 개만이 있다'는 공리에서 출발한다.

이때 "평행선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어디까지 가도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다"는 답이 나온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물음이 나올 수가 있다. "어디까지 간다는 것은 누가 어디까지 간다는 말인가?" "전지전능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정 시간에 태어나고 언젠가는 죽는 인간이다. 요컨대 유한의 시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가는 주체가 인간인 이상 평행선이란 '유한의 범위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유한의 지름을 갖는 원의 중심은 분명히 한 개이며 원 둘레는 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하지만 일단 지름이 무한대라고 전제한다면 어디에 중심을 잡아도 상관이 없다.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무한개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원과 사각형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진 것이다. 이때 우리는 삼각형, 사각형, 원 등은 같은 도형으로 생각한다.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교하면 매우 대범한 기하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범한 기하학의 세계에도 구별되어야 할 것이 있으며 모두가 무턱대고 같은 것은 아니다.

선(禪)의 세계는 유한의 인간이 무한 속에서 자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 세계다. 무한 속의 유한적인 사고, 즉 상식은 무의미해진다. 무한은 유한의 부정이며 부정적 세계에서 무한의 가능성을 찾는다. 무한 속에 인간이 최대의 가능성, 즉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창조성은 모방의 반대이며 유한에 대한 부정을 거듭하며 개성(個性)이 최대로 발휘된다.

구지화상은 선(禪)의 의미를 묻는 제자에게 항상 엄지손가락을 반듯이 세워 보였다. 제자들은 스승의 본을 따서 함께 엄지손가락을 세우게 되었다. 어느날 화상은 그런 나이 어린 제자의 엄지손가락을 잘라 버린다. '아야' 하며 물러가는 그 제자를 불렀다. 이 제자는 뒤돌아 서서 화상을 보았다. 이때 화상은 다시 자기 엄지손가락을 반듯이 세운다. 그 모습을 보며 그 제자는 자기도 엄지손가락을 세우려 한다. 그러나 이미 그의 엄지손가락은 없다. 이 순간 그는 손가락이 없어진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스스로의 길을 모색해 대오(大悟)를 얻었다는 이야기다.

구지화상은 이미 오랜 수도 끝에 자신의 경지를 개척하고 엄지손가락 하나를 세우는 선(禪)의 세계를 수립하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를 세우게 된 과정은 쉽지 않았다. 부정과 부정이 거듭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스스로 개척한 무한 세계의 극한점이다. 어린 제자는 그러한 과정도 없이 시능만으로 손가락을 세웠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다. 모방이 대오(大悟)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자신의 무한 세계를 개척하는 길에 설 수가 있었다. 모방은 창조성의 반대이다. 유한의 기하학의 결과가 무한 세계에서 의미를 잃는다.

무한의 수학, 가령 위상 수학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유한 세계의 한계를 몇 번씩 깨닫고 그 한계를 지렛대 삼아 유한 세계에 뛰어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색의 과정이 모방의 범위에서 머문다면 결코 자신의 지적 세계를 개척할 수 없다.

유한 세계를 초월하는 무한 세계로의 길은 단숨에 무한으로의 돌입이 아니라 한 걸음씩 올라가는 유한 세계 계단의 극점에서 비약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도 부정, 부정 그리고 초월이라는 과정이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문화 유산의 해 특선 도서

민족의 얼 문화 유산 알고·찾고·가꾸자

우리 절 알기(사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7,000원
한국 사찰에 얽힌 이야기 진영진/ 보경문화사/ 6,500원
한국의 사찰 대한불교(신)/ 부다가야/ 8,500원
절로 가는 마음 1, 2 신영훈/ 책만드는집/ 각 7,000 9,000원
한국 사찰의 주련 1, 2 권영한/ 전원문화사/ 각 10,000원
한국의 사찰 시리즈 불국사, 석굴암, 신라의 폐사(1, 2), 통도사, 법주사, 송광사, 해인사, 화엄사, 부석사, 대흥사, 금산사, 월정사, 낙산사, 전등사, 신륵사, 북한의 사찰, 범어사 일지사/ 각 2,500원
한국의 가람 홍윤식/ 민족사/ 12,000원
건봉사 본말사적, 유점사 본말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50,000원
금산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12,000원
만덕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24,000원
불국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24,000원
운문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18,000원
전등 본말사지, 봉선 본말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35,000원
직지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20,000원
태안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15,000원
통도사지 편집부/ 아세아문화사/ 38,000원
봉은사 사찰문화(연)/ 사찰문화(연)/ 12,000원
보문사 사찰문화(연)/ 사찰문화(연)/ 10,000원

우리 절 찾기

명찰 편집부/ 한국문원/ 15,000원
한국의 폐사 이재중/ 한국문화사/ 8,000원
겨레의 땅 부처님 땅 윤경렬/ 불지사/ 18,000원
돌부처 이근후/ 여시아문/ 6,500원
명찰순례 1, 2, 3 최완수/ 대원사/ 각 8,500원
명산 고찰따라 상하, 속1,2 이고운/ 운주사/ 각5,500원
경주 남산의 탑골 윤경렬/ 열화당/ 4,000원
우리산 옛절 김장호, 김승호/ 대원정사/ 7,500원
암자로 가는 길 정찬주/ 좋은글/ 9,500원
한국의 성지 (불교편) 이선민/ 샘터/ 4,000원

우리 문화 알기

발굴 이야기 조유전/ 대원정사/ 8,500원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1, 2 주강현/ 한겨레신문사/ 각 6,500 7,000원
문화재 다루기 이내옥/ 열화당/ 10,000원
문화재 수난사 이구열/ 돌베개/ 8,500원
문화재 비화 상, 하 고제희/ 돌베개/ 6,800원
그림으로 배우는 우리의 문화 유산 송석상, 이강승/ 학연문화사/ 10,000원
한국 전통 목조 건축 도집 한국건축가협회/ 일지사/ 20,000원
한국의 건축 윤장섭/ 서울대출판부/ 36,000원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이권복/ 효형/ 10,000원
조선 전기 불복장직물의 이해 김영숙/ 미술문화/ 20,000원
한국의 도자기 정양모/ 문예/ 25,000원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윤용이/ 학고재/ 12,000원
전통 사찰 시리즈 서울, 경기도, 보문사, 용주사, 갓바위 부처 사찰문화(연)/ 사찰문화(연)/ 각 10,000원
전통 사찰 시리즈 강원도 1, 2 사찰문화(연)/ 사찰문화(연)/ 각 7,500원
전통 사찰 시리즈 전남 1, 2 사찰문화(연)/ 사찰문화(연)/ 각 12,000원

우리 문화 찾기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1, 2, 3 유홍준/ 창작과비평사/ 각 7,000 7,500원
문화의 산길 들길 정재훈/ 화산문화/ 7,500원
문화 유산을 찾아서 이형권/ 매일경제(신)/ 7,800원
마을로 간 미륵 1, 2 주강현/ 대원정사/ 각 7,000 7,800원
우리 민속 현장 답사기 민속학회/ 태일/ 6,500원
부끄러운 문화 답사기 기록문학회/ 실천문학사/ 7,500원
답사 여행의 길잡이 동해 설악, 지리산자락, 전북, 경주 한국문화답사회/ 돌베개/ 각 9,000원
답사 여행의 길잡이 전남, 충남 한국문화답사회/ 돌베개/ 각 12,000원
답사 여행의 길잡이 경기 남부와 남한강 한국문화답사회/ 돌베개/ 10,000원
답사 여행의 길잡이 팔공산자락 한국문화답사회/ 돌베개/ 15,000원

불교 미술 알기

한국 불교 미술사 김영주/ 솔/ 20,000원
한국 불교 미술사 문명대/ 한국언론자료(간)/ 18,000원
한국의 불교 미술 장충식/ 민족사/ 7,000원
한국 불교 미술의 형식 문명대/ 한언/ 14,000원
한국의 목공예 상, 하 이종석/ 열화당/ 18,000원
한국 석등 양식 정명호/ 민족문화사/ 18,000원
남산 (영문판) 물지사/ 40,000원
꽃문 관조/ 미술문화/ 25,000원
대웅전 관조/ 미술문화/ 18,000원
세계의 불교 미술 불교신문사/ 13,000원
목조 장기인/ 보성문화사/ 12,000원
탑 김희경/ 열화당/ 5,500원
고려 불화 문명대/ 열화당/ 4,500원
한국 불교의 사리 장엄 강우방/ 열화당/ 4,500원
한국의 석조 미술 진홍섭/ 문예/ 25,000원

찾아오시는 길
광화문 운주사 종각역 공평빌딩 종로3가 현대불교신문사 벽방 여시아문 조계사 안국동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

시방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인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 733-3900



◇가을산의 단풍과 산사의 풍경소리는 그대로가 부처님의 설법. 사진은 백양사 전경. 〈사진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을산사와 만산홍엽

단풍물든 山 오르니 불심 더욱 익어가네



빨갛게 새빨갛게 단장한 잎새로
누구에게 입맞춤하려니

가을햇볕과 남몰래 사랑을 나누다가
빨갛게 되었지
〈덕진스님 시 '속리산 단풍' 중에서〉

가을이 익어간다. 언제나 그렇듯 시끌벅적한 세상. '어떻게 그런 일이…'라며 경악하는 사건이 꼬리를 잇고 경제는 꼬이고 정치는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 그래도 가을은 찾아와 옷깃을 여미며 시나브로 익어간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입맞춤하고 있는가.

단풍든 산사에서 듣는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큰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 하늘은 푸르고 산에는 단풍이 들고 산사에 풍경소리 청량하게 울리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사자후가 아니겠는가.

떠나보자. 가을 햇볕과 사랑을 나누며 새빨갛게 단장하는 가을산의 장엄회상에 잠긴 산사를 찾아 고단한 인생 여정에 쉼표 한점을 찍어보자. 우리의 떠남은 돌아오기 위한 것. 홀로 떠나도 좋고 연인과 둘이 떠나도 좋고 온 가족이 함께 떠나도 좋으리라.

가을불심은 봉정암 오세암에서 찾아들어 월정사 상원사를 뒤로 하고 갑사 화엄사 법주사 해인사를 휘어 감아 내장사로 향한다.

단풍나무 사이로 부는 가을빛 머금은 바람이 5세 동자가 성불했다는 전설을 전해주는 오세암. 5대 적멸보궁의 하나 봉정암 등 부처님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설악산. 설악의 가을은 부처님 법을 따라 새벽녘 도량석 도는 스님 옆에도 성큼 다가서 있다. 설악산 입구에서 만나는 신흥사를 비롯해 산행 그 자체가 선지식 찾아 떠나는 구도행각이 된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월정사, 현존 최고(最古)의 범종이 있는 상원사를 품고 있는 오대산은 지나온 세월을 단풍 속에 묻으며 선정에 잠긴다.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구룡사에 도달하면 치악산이 부끄러운 세악시마냥 다소곳이 다가선다. 이산의 옛 이름은 적악산으로 가을의 빼어난 단풍에서 비롯된 이름. 구룡사까지 계곡을 옆에 끼고 돌계단을 따라 오르면 속세의 번뇌가 하나 둘 씻겨 내린다. 월악산은 10월 중순경에 단풍이 절정인데 덕주사에서 덕주사지 마애불까지의 법로(法路)를 물들인 가을은 불심마저 붉게 물들인다.

우리나라 3보 사찰 중 가을이 뛰어난 곳은 법보사찰인 해인사. 해인사 주변의 단풍은 수행자의 법력으로 물든듯 홍제암 삼선암 금선암 원당암 주변의 계곡 단풍과 더불어 참선수행에 여념이 없다.

한때 27개의 사찰이 있었다는 청량산은 보살봉 문수봉 반야봉 등 각 봉우리의 이름도 불교의 향취가 물씬 베어난다. 신라말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찰 청량사에 이르는 길목은 목탁소리 은은한 가운데 붉게 노랗게 가을을 익히고 있다.

영산 계룡산엔 가을에 그 경치가 뛰어나다는 갑사가 있다. 갑사를 오르는 길목 일명 5리숲에는 철당간지주 사리탑 등의 불교유적들이 산재해 있을뿐만 아니라 단풍이 터널을 이루고 있어 가히 '추(秋)갑사'라는 찬사가 절로 나온다.

화엄사가 있어 더욱 웅장한 지리산의 가을. 전라남도 남원에서 성삼재를 지나 천은사에 이르는 지리산 관광도로는 관음보살의 넉넉함을 닮은 단풍숲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단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느즈막히 가을의 끄트머리에 우아함을 드러내는 곳 내장사. 백제 때 영은조사가 영은사로 창건했다는 내장사는 내장산 주봉인 신선봉을 비롯 망해봉 연자봉 서래봉 장군봉 등 9개의 연봉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어 그 자태가 연꽃형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장사 일주문에서 출발해 벽련암과 원적암을 지나 내장사로 돌아오는 길을 거닐다 보면 몸도 마음도 단풍물이 흠뻑 묻어난다. 이밖에 백제문화유산인 은선리 삼층석탑과 고려시대 석불입상 등도 둘러볼 만하다.

서울근교로는 25일까지 제12회 소요산 문화제와 제3회 소요단풍축제가 벌어지는 동두천시 소요산을 들 수 있다. 산 초입에는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자재암이 불교사의 숨결을 전해준다. 남한산성에 위치한 장경사는 숱한 전란의 와중에도 소실됨직 없이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흥국사와 내원암 역시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다.

> "홀로 도반과 가족과 떠나도 좋으리"

☞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부다피아에서 안내합니다. (http://www.buddhapia.com)

강지연 기자



◇단풍을 배경으로 한층 돋보이는 연곡사 동부도(국보 53호)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

산	사찰	볼 거 리	전 화
설악산	신흥사	청동삭가여래좌상 국락보전 내원암 계조암	(0392)636-7393
	봉정암	백담사에서 오르는데만 6시간 이상 소요	(0365)462-3224
	오세암	5세 동자가 성불했다는 전설 속의 암자	(0365)462-2576
오대산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적광전 보살좌상	(0374)32-3334
	상원사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동종 문수동자상	(0361)56-6753
치악산	구룡사	일주문(원통문) 국사당 거북바위	(0371)44-8100
소요산	자재암	제3회 소요단풍축제 25일까지	(0351)865-4045
수락산	흥국사	약사전 극락구품도 만임회비 속빈 느티나무	(0346)65-8010
	내원암	금류폭포 돌계단	(0351)841-8794
월악산	덕주사	덕주사지 마애불	(0443)42-1773
지리산	화엄사	각황전 대웅전 사사자삼층석탑 동·서오층석탑	(0664)782-7600
	실상사	수철화상능가보월탑과 탑비 증각대사 응료탑	(0671)34-3031
	천은사	극락보전 팔상전 진영당 수충문 청성각	(0644)781-3482
	연곡사	도선국사부도 연곡사 삼층석탑 현각국사탑비	(0664)782-7412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

산	사찰	볼 거 리	전 화
덕유산	백련사	매월당 부도 임선대사 부도	(0638)32-0837
속리산	법주사	청동미륵대좌상 마애여래의상	(0433)43-3615
가야산	해인사	대적광전 팔만대장경 장경각 백련암 원당암	(0599)31-1001
청량산	청량사	김생굴 원효정 의상대	(0573)72-1446
팔공산	동화사	마애불좌상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삼층석탑	(053)982-0101
	선본사	관음 석조약사여래좌상	(053)851-1868
계룡산	갑 사	대웅전 대적전 삼성각 동종 부도 철당간 지주	(0416)857-8981
조계산	선암사	승선교 삼층석탑 북부도 동부도	(0661)54-5224
한라산	관음사	대방 증루 봉이문	(064)22-2829
내장산	내장사	오층석탑 일주문 부도	(0681)33-8741
	백양사	쌍층 사리탑 부도군 국립보전 명부산	(0685)92-7502
무등산	증심사	석조여래좌상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오백나한전	(062)232-1722
두륜산	대둔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응진전삼층사리탑	(0634)34-5502
금 산	보리암	관음 기도처 법종	(0594)62-6115

"전통차로 가을건강 지키세요"

가을과 함께 전통차의 맛과 향이 깊어간다. 찰 우려낸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가을의 낭만과 우수를 만끽해보자. 전통차의 재료는 한약재로 쓰이는 약용식물이 많기 때문에 그 효능을 알고 마신다면 건강식품의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가을을 더욱 향긋하게 할 전통차의 효능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다.

◆**대추차**=위경련,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에 뛰어난 효능. 황기 감초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갈근차**=칡뿌리인 갈근차는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숯불로 끓이는 것이 좋은데 끓기 시작하면 냉수를 조금 부어 다시 끓이기를 3번 반복하면 차의 빛과 맛이 좋아진다.

◆**감잎차**=감잎에는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좋다. 감초 계피 생강 등을 함께 넣고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낸 뒤 마신다.

◆**구기자차**=카페인이 없어 녹차 대용으로 좋고 꾸준히 마시면 스트레스 · 피로회복 동맥경화 등에 좋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예방효과도 있다. 대추 생강 등을 넣고 중간불에서 30분정도 끓이면 붉은 빛으로 우러난다.

◆**표고차**=표고버섯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에리타데닌 성분이 들어 있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험이 있다. 또 감기특효약으로 알려져 꿀이나 설탕 등을 섞어 달여 마시면 기침 가래에 효과가 있다. 물에 적당히 불린 표고 2개를 500ml 정도의 물에 넣고 끓인다.

심장질환 예방
갈근차 표고차
가래기침 멎어
소화불량 효능
대추차 모과차
위 기능 회복

◆**길경차**=길경은 도라지 뿌리로 가래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각혈성 환자의 약재로 쓰인다. 감초를 길경의 두배정도 넣고 끓여서 마신다.

◆**두충차**=두충은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 요통 등에 좋다. 산후조리나 현기증 이명증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두충잎과 껍질을 넣고 약한 불에 오래 끓여 충분히 우려낸다. 꿀을 넣어 마시면 좋다.



◇전통차는 맛과 향뿐아니라 건강보조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사진은 9월26일 광명시 광이어린이집(원장 윤승혜)의 새싹몸자들의 다도실습 모습.

◆**동글레차**='신선들이 먹는 음식'이라 했을 만큼 좋은 향과 효능을 자랑한다. 허약체질에 좋으며 인삼과는 달리 체질에 관계없이 쓰인다. 물에 넣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뭉근하게 달인다.

◆**모과차**=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막는 소염효과가 있다. 대추 몇알을 넣어 같이 우려내면 맛이 더 좋다.

◆**봉수탕**=잣 호두를 곱게 갈아 꿀에 재워 물1컵에 2큰술씩 타서 마시면 기침 가래에 좋다. 고소하고 담콤한 맛이 일품.

◆**생강차**=생리통, 수족냉증에 좋고 꿀을 첨가하면 감기와 기침에 좋다. 귤껍질을 넣기도 한다.

◆**쌍화차**=황기 작약 당귀 천궁 숙지황 계지 대추 감초 생강을 넣어 달이는 전통 한방차로 피로회복에 좋다.

◆**쑥차**=쑥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A가 많이 들어있어 저항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특히 환절기 감기 예방과 치료에 좋다. 또 철 칼슘 등 무기질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위장병 변비 등에 좋다.

◆**인진쑥차**=간기능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감기로 인한 열이나 오한에는 생강을 두알 정도 갈아 끓여 복용하면 잘 듣는다.

◆**진피차**=귤껍질 말린 것으로 꿀 대추 생강과도 잘 어울린다. 소화력과 밥맛을 높여준다. 늦게 잠들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에게도 좋다. 변비환자나 눈이 자주 충혈되는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다.

◆**향소탕**=피로회복에 좋다. 대추와 모과 차조기 잎을 찧어 채반을 대고 뜨거운 물로 걸러 즙만 마신다.

〈자료제공 · 녹수청산〉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악행품(惡行品) ②

世人無聞 세인무문
不知正法 부지정법
生此壽少 생차수소
何宜爲惡 하의위악

세상 사람들 들은게 없어서
바른 법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 나와 얼마 살지 못하는데
어찌 악한 일을 해야 하겠는가

莫輕小惡 막경소악
以爲無殃 이위무앙
水喩雖微 수제수미
漸盈大器 점영대기
凡罪充滿 범죄충만
從小就成 종소적성

작은 악이라고 가벼이 여겨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지말라
물방울은 비록 작을지라도
방울 방울 모여 큰 그릇을 채운다
이 세상에 가득찬 죄악이란

沒取彼者 몰취피자
人亦沒之 인역몰지

빼앗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일이 옳다 하지만
남의 것을 몽땅 빼앗으면
남도 내것을 모조리 앗아간다

惡不卽時 악불즉시
如搆牛乳 여구우유
罪在陰祠 죄재음사
如灰覆火 여회복화

악의 갚음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방금 짜낸 우유가 상하지 않듯이
죄는 그늘에 가려져 있는것 같다
잿 속에 묻혀있는 불씨처럼

戱笑爲惡 희소위악
以作身行 이작신행
號泣受報 호읍수보
隨行罪至 수행죄지

나쁜 짓을 우습게 여겨서
그것을 일상의 짓거리로 하다가
울부짖으며 그 과보를 받나니
행업을 따라 죄가 다가온다

"작은 악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방울 모여 큰 그릇을 채운다"

작은 것이 쌓여서 이뤄진 것

莫輕小善 막경소선
以爲無福 이위무복
水喩雖微 수제수미
漸盈大器 점영대기
凡福充滿 범복충만
從纖纖積 종섬섬적

작은 선이라고 가벼이 여겨
그것은 복덕이 아니라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작을 지라도
방울방울 모여 큰 그릇을 채우나니
이 세상에 가득찬 복덕도
작은 것이 쌓여서 이뤄진것이다.

作惡不瘦 작악불복
如瓦所載 여병소절
牽往乃知 견왕내지
已墮惡行 이타악행
後受苦報 후수고보
如前所習 여전소습

저지른 악은 덮어지지 않는다
마치 병장기에 베인 것 같이
과보에 이끌려 알게 되지만
이미 악행에 떨어졌으니
뒤에 괴로움의 갚음 받는것은
앞서 지은 것과 같으리라

夫士爲行 부사위행
好之則惡 호지여오
各自爲身 각자위신
終不敗亡 종불패망

무릇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제각기 자신을 위해 하나니
그 과보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如毒學瘡 여독마창
船入迴復 선입회복
惡行流衍 악행류연
靡不爍剋 미불상극

마치 저 지독한 종기처럼
배가 소용돌이에 빠져든것 처럼
악행이 흘러 퍼지면
다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리라

好取之士 호취지사
自以爲可 자이위가

龍 眼

큰스님 수행한담

독사가 사람 해치듯

벽산스님 〈태고종 승정〉



말은 하기 쉽지단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그런지 무책임한 말들이 무성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정치인들의 욕심이 과도해서 국가와 사회가 시끄럽고 국민들이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마음이 맑고 일반 사람들이 참다우면 사회의 어지러움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三毒)을 놓아버려야 그곳이 부처님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삼득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인데 중생의 착한 마음을 해롭게하는 것이 마치 독사가 사람을 해롭게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늘 보시하고 인자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남을 사랑하며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진리를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봉선사 대교과 학인시절 안변 석왕사에 갔더니 큰절 뒤 극락암에 금오스님이 계셨어요. 문안인사를 올리니 스님께서 "부처님은 성불했는데 중생들은 왜 성불을 못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3독을 끊어버리셨지만 우리 중생은 3독을 못끊어서 그렇습니다"하니 "그래, 너가 경을 잘봤구나"하시며 "선방에서 공부해야 된다"며 대교과를 마치고 꼭 찾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이라 가보지 못한 것이 회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불사선(不思善) 불사악(不思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도 생각말고 악도 생각말라는 뜻이지요. 즉 선이 있으면 악이 반대되고 악이 있으면 선이 반대되므로 아무런 생각도 말라는 것입니다. 선(善)과 악(惡)을 가르면 관(觀)이 생겨서 공부하는데 가장 큰 마(魔)가 돼요. 항상 맑고 깨끗한 속에서 정갈함을 유지하고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의 목표는 세상사람 모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있습니다.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생에서 선행을 많이 쌓고 마음을 닦아서 자성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불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불법을 실천하는 일 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금강경〉 독송을 권합니다. 〈금강경〉이 있는 곳은 불(佛) 법(法) 승(僧) 삼보가 함께하는 곳이니 생활속에서 깨끗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불교에 귀의해야 겠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님께서 관세음정근 21일 기도후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 인연의 고리를 풀고 싶어졌던 게지요. 14세에 부안 내소사로 출가했습니다. 해안(海眼)스님의 문하에 있으면서 해안문풍에 따라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이 수행의 일과였습니다. 평생을 〈금강경〉속에서 일상생활화 하시면서 사셨던 은사스님께서는 늘 "금강경을 항상 독송하여 달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출가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금강경〉 가운데 사구게만 가져 남을 위하여 일러줄 지라도 복덕이 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보시보다 법보시의 공덕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은 상(相)이 있고 법은 상이 없으므로 상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없어져버리는 잠깐이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법은 불생불멸이므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사람이 잠깐이라도 고요히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항하모래와 같이 많은 칠보로 탑을 쌓은 것보다 승하다고 하셨습니다. 보배탑은 무너져 먼지로 화하지만 한생각 깨끗한 마음이 정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구게만 설하는 곳이라도 그곳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탑이나 부처님을 모신 절과 같이 모든 세간의 하늘이며 사람이며 아수라들이 와서 공양하거늘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전부를 수지독송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이는 가장 잘사는 법을 성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태중에서 올때는 한 물건도 가져온 것이 없고 죽어서 호흡이 떨어질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그림자같이 따르고 악한 짓을 했으면 악한 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일을 하던지 그 마음이 청백(淸白)하고 백천일월(百千日月)과 같이 밝은 그 자리 어디든지 애착(愛着)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가 애착을 붙이면 죽어서도 가장 되는 사람은 마누라를 찾아다니고 또 부인네는 가장을 찾아다닙니다. 또 자식에게 애착이 있으면 죽어서 자식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일갑에 전전긍긍하며 살던 어느 목수가 죽어서는 대목이 하는 일거리를 찾아다닌 답디다. 귀신이 일거리를 찾아다니니 무슨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부인 꿈에 나타나서 "봐라 내가 일하려고 일거리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일거리가 없다"고 한탄하더랍니다. 이렇듯 애착이 있으면 죽어서 갈데도 못가고 무주공산을 떠도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때 길을 가다가 바닷물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제자들이 연유를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과거생에서 그 부모들과의 애별리고(愛別離苦)로 흘린눈물은 저 바다물보다도 더 많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겠느냐"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중생들이 나고 죽

· 1922년 전북 정읍生
· 1935년 부안내소사에서 해안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40년 백양사 통도사 봉선사 유점사 강원수료
· 1952년 부안 월명암 선원 3하안거성만
· 1954년 부안 내소사주지
· 1958년 전북교구 총무원장 역임
· 1974년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역임
· 1989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역임
· 現 정읍 다천사 조실

보는바 없으면 분별이 없고
듣는소리 없으면 시비 없다
분별시비 놓고 마음을 보라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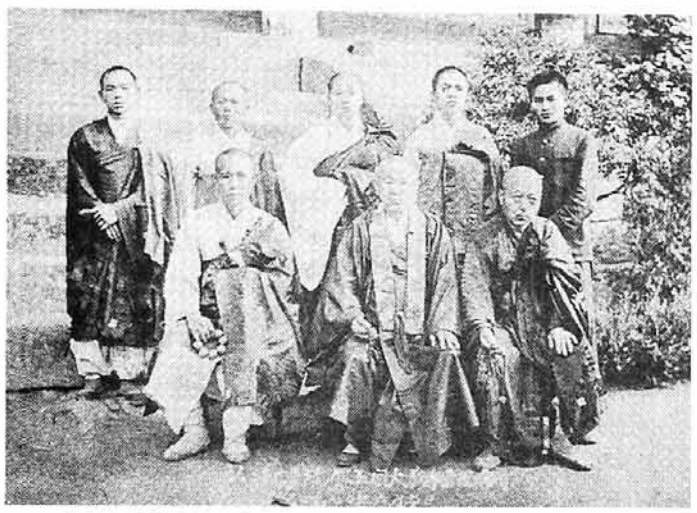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큰스님 수행한담

삼독심 착한마음 가린다

"옛날엔 공부 하려고 소임 마다했는데 요즘은 자리놓고 다투니 격세지감"



◇ 1943년 남양주 봉선사 홍법강원 제5회 대교과 졸업 기념사진. 사진 앞줄 맨 오른쪽 운허스님, 뒷줄 왼쪽 끝에 서있는 벽산스님.

는 바다에서 윤회하고 전생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백옥(白玉)과 같이 걸림이 없는 무가애고를 가지고 살아야하고 그래서 걸림이 없으면 무유공포가 돼 공포증을 없애야됩니다.

나는 교학공부에 열심인 편이었습니다. 장성 백양사, 양산 통도사, 금강산 유점사, 남양주 봉선사를 두루 거쳤는데 그 당시는 어느곳을 가던지 대강백과 선지식들이 참많았어요. 그러니 시국은 어수선해도 한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지요. 곳곳의 큰스님을 찾아 법거량을해야 하니까요.

해안스님 만암스님 경봉스님 운허스님 구하스님 등 그분들의 몸짓 하나 하나, 말씀 한구절 한구절이 모두 공부였습니다.

백양사에 계시던 만암스님은 도인이셨어요. 그래서 백양사 강원에 있으면서도 새벽3시에 항상 만암스님 처소로 가서 삼배를 올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항상 가보면 가사와 장삼을 입으시고 곧은 자세로 참선삼매에 들어계셨어요. 그것은 만암스님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공부였습니다.

도 한때 구하스님 시봉을 했는데 스님께서 하루는 나를 부르시더니 "너와 다시 못만날 것이니 이 것을 가지고 가라"며 법성게 병풍설을 써주셔요. 옛날에는 큰스님들이 이러하셨습니다. 수행자의 올때와 갈때를 아셨지요. 오직 공부로 보여주시며 후학들을 따끔하게 경책했지요.

없어서 제대로 먹지는 못했지만 서로들 법탐은 너무도 거세서 좋은 법(法)은 서로 먹으려고 했어요. 그당시는 주지같은 소임도 공부하려고 서로 안하려해서 억지로 밀려서 하던일이 많았지요. 요즘은 주지나 종단요직을 서로하려고 다투는데 격세지감이 들어요. 승풍을 바로 세워야 불교가 흥합니다.

통도사로 가서 공부할때는 재미있는 일도 많았지요. 송광사에서 오신 소산스님(입적) 전등사에서 오신 성호스님과 작당해 방학이면 경상남·북도의 모든 사찰과 기도터를 두루 돌면서 만행했지요. 이후 금강산에가서 1만2천봉과 8만암자를 두루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빼어난 경치가 하도좋아서 유점사 선방에 눌러앉아 몇철을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금강산의 비경이 눈에 선한데 하루 빨리 통일이 돼서 다시한번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절실합니다.

예전에 운문이란 큰스님은 누가 법을 물으면 "떡 자시게" 하시는데서 운문병(雲門餠)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떡이나 주면서 떡먹고 가라고 하면 괜찮은데 떡은 주지도 않고 "떡 자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조주스님은 조주고불(趙州古佛) 즉 조주 옛 부처님이라고 할 정도로 큰스님인데 그 스님께 법문을 들으러가면 "차 마시게"하시니 이것이 그 유명한 조주청다(趙州淸茶)의 옛 가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널리 일체중생을 보니 모두가 여래의 지혜와 부처님의 덕상을 갖추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없이 우리 모두가 동불중생(同佛衆生)임을 깨달아야 해요. 곧 근본진리는 부처님과 중생이 한가지로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소 환경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들 지혜의 덕상을 되살리는 노력을 경주합시다.

전국의 강원과 선방을 거쳐 부안 내소사 월명암에 오래 있었지요. 지금도 사성철현이 탄생한다는 선방으로 유명한 월명암은 그 유명한 부설거사 얘기가 전해내려오지요. 세속에 사는 거사이면서 불도를 깨달은 부설거사의 다음 게송은 유명합니다.

'묵무소견(目無所見) 무분별(無分別)하고 이청무성(耳聽無聲) 절시비(絶是非)라, 세상만사(世上萬事)를 도불관(徒不觀)하고 담간심불(潭看心佛) 자귀의(自歸衣)하라'

'눈으로 보는바 없으면 분별이 없고 귀로듣는 소리 없으면 시비가 끊어진다. 분별과 시비를 모두 놓아버리고 다만 부처님의 마음을 보아 스스로 귀의해야 한다.' 즉 세상만사를 다 돌아보지말고 모든 시비를 떠나 자기의 부처에게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이말이 무슨 뜻이냐하면 한마디로 마음이 텅비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래야만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있고 혜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도를 위해서는 신심(信心)이 묘화보살 처럼 장해야돼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깊은 신심을 가지고 오직 공부해야겠다는 맑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묘화보살이 보조선사에게 말씀드리길 "제가 아니었다면 부설 그여른은 더 큰 그릇이 되셨을텐데 하고 생각하게 되니 스님을 파계시킨 죄업이 수미산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했어요. 그러자 보조선사께서는 "아니오 보살님이 부설거사를 해탈케하시었소. 깨침을 얻는 것은 그만한 발심의 계기가 따르는 법입니다"하셨습니다.

요즘사람들 계율을 잘지키다가도 잘못하면 한가지를 파계하면 금방 무너져서 허우적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내요. 그러면 안됩니다. 빨리 바로잡아서 정도를 가야지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불도를 이루려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첫째고 계율을 지키고 고요한 곳에 앉아 관(觀)을 해야합니다.

'이 몸뚱이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 사대(四大)가 화합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생각이라는 것도 경계에 인연하여 일어나는 허망한 것임을 알자'

그리고 일체(一切) 실상(實相)의 성품은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뚱이 많은 몸뚱이, 하나의 세계 많은세계가 다 청정하여 평등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같은 것이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말들을 명심하세요.

아유일권경(我有一卷經)
불인지묵성(不因紙墨成)
전개무일자(展開無一字)
상방대광명(常放大光明)

나에게 한권의 경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된것이 아니다. 한 글자도 펴지 아니하여도 항시 큰 광명을 놓는다.

이것이 무엇인고? 아는 이는 스스로 광명을 놓겠지만 모르는 이는 또 다시 종이와 먹을 찾을 것이다.

정리=김원우 기자

고침 본란 144호 도선사 참회선원장 도우스님을 도선사 한주로 바로잡습니다.

"물질은 무너지고 부서지지만 깨끗한 한생각 정각을 이룹니다"

통도사에 계시던 만암스님은 도인이셨어요. 그래서 백양사 강원에 있으면서도 새벽3시에 항상 만암스님 처소로 가서 삼배를 올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항상 가보면 가사와 장삼을 입으시고 곧은 자세로 참선삼매에 들어계셨어요. 그것은 만암스님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공부였습니다.

도 한때 구하스님 시봉을 했는데 스님께서 하루는 나를 부르시더니 "너와 다시 못만날 것이니 이 것을 가지고 가라"며 법성게 병풍설을 써주셔요. 옛날에는 큰스님들이 이러하셨습니다. 수행자의 올때와 갈때를 아셨지요. 오직 공부로 보여주시며 후학들을 따끔하게 경책했지요.

없어서 제대로 먹지는 못했지만 서로들 법탐은 너무도 거세서 좋은 법(法)은 서로 먹으려고 했어요. 그당시는 주지같은 소임도 공부하려고 서로 안하려해서 억지로 밀려서 하던일이 많았지요. 요즘은 주지나 종단요직을 서로하려고 다투는데 격세지감이 들어요. 승풍을 바로 세워야 불교가 흥합니다.

통도사로 가서 공부할때는 재미있는 일도 많았지요. 송광사에서 오신 소산스님(입적) 전등사에서 오신 성호스님과 작당해 방학이면 경상남·북도의 모든 사찰과 기도터를 두루 돌면서 만행했지요. 이후 금강산에가서 1만2천봉과 8만암자를 두루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빼어난 경치가 하도좋아서 유점사 선방에 눌러앉아 몇철을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금강산의 비경이 눈에 선한데 하루 빨리 통일이 돼서 다시한번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절실합니다.

예전에 운문이란 큰스님은 누가 법을 물으면 "떡 자시게" 하시는데서 운문병(雲門餠)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떡이나 주면서 떡먹고 가라고 하면 괜찮은데 떡은 주지도 않고 "떡 자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조주스님은 조주고불(趙州古佛) 즉 조주 옛 부처님이라고 할 정도로 큰스님인데 그 스님께 법문을 들으러가면 "차 마시게"하시니 이것이 그 유명한 조주청다(趙州淸茶)의 옛 가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널리 일체중생을 보니 모두가 여래의 지혜와 부처님의 덕상을 갖추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없이 우리 모두가 동불중생(同佛衆生)임을 깨달아야 해요. 곧 근본진리는 부처님과 중생이 한가지로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소 환경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들 지혜의 덕상을 되살리는 노력을 경주합시다.

전국의 강원과 선방을 거쳐 부안 내소사 월명암에 오래 있었지요. 지금도 사성철현이 탄생한다는 선방으로 유명한 월명암은 그 유명한 부설거사 얘기가 전해내려오지요. 세속에 사는 거사이면서 불도를 깨달은 부설거사의 다음 게송은 유명합니다.

'묵무소견(目無所見) 무분별(無分別)하고 이청무성(耳聽無聲) 절시비(絶是非)라, 세상만사(世上萬事)를 도불관(徒不觀)하고 담간심불(潭看心佛) 자귀의(自歸衣)하라'

'눈으로 보는바 없으면 분별이 없고 귀로듣는 소리 없으면 시비가 끊어진다. 분별과 시비를 모두 놓아버리고 다만 부처님의 마음을 보아 스스로 귀의해야 한다.' 즉 세상만사를 다 돌아보지말고 모든 시비를 떠나 자기의 부처에게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이말이 무슨 뜻이냐하면 한마디로 마음이 텅비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래야만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있고 혜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도를 위해서는 신심(信心)이 묘화보살 처럼 장해야돼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깊은 신심을 가지고 오직 공부해야겠다는 맑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묘화보살이 보조선사에게 말씀드리길 "제가 아니었다면 부설 그여른은 더 큰 그릇이 되셨을텐데 하고 생각하게 되니 스님을 파계시킨 죄업이 수미산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했어요. 그러자 보조선사께서는 "아니오 보살님이 부설거사를 해탈케하시었소. 깨침을 얻는 것은 그만한 발심의 계기가 따르는 법입니다"하셨습니다.

요즘사람들 계율을 잘지키다가도 잘못하면 한가지를 파계하면 금방 무너져서 허우적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내요. 그러면 안됩니다. 빨리 바로잡아서 정도를 가야지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불도를 이루려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첫째고 계율을 지키고 고요한 곳에 앉아 관(觀)을 해야합니다.

'이 몸뚱이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 사대(四大)가 화합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생각이라는 것도 경계에 인연하여 일어나는 허망한 것임을 알자'

그리고 일체(一切) 실상(實相)의 성품은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뚱이 많은 몸뚱이, 하나의 세계 많은세계가 다 청정하여 평등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같은 것이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말들을 명심하세요.

아유일권경(我有一卷經)
불인지묵성(不因紙墨成)
전개무일자(展開無一字)
상방대광명(常放大光明)

나에게 한권의 경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된것이 아니다. 한 글자도 펴지 아니하여도 항시 큰 광명을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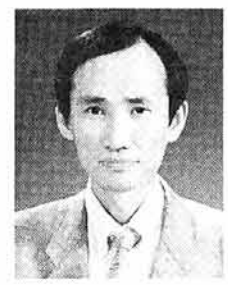
이것이 무엇인고? 아는 이는 스스로 광명을 놓겠지만 모르는 이는 또 다시 종이와 먹을 찾을 것이다.

정리=김원우 기자

고침 본란 144호 도선사 참회선원장 도우스님을 도선사 한주로 바로잡습니다.

나와 경전 〈24〉

능가경



박 건 주
조선대 강사

중국 선종의 선구자인 달마대사가 2조 혜가스님에게 전수했다는 〈능가경〉의 가르침은 명확하고 자세하며 산뜻하다. 특히 전체내용의 40%에 이르는 게송은 그 백미. 자심(自心)수행에 항상 지녀야 할 명구들이다.

불법은 자심수행의 길이다. 교법을 바로 이해하면 그대로가 자심수행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선교일치가 된다. 불법수행의 근본은 선오후수(先悟後修)요, 신해행증(信解行證)이며, 선교일치(禪敎一致)이다. 이는 제불공통의 성불하신 길이요, 가르침이었다. 이 가르침이 제대로 전제되지 않았을 때 잘못된 수행의 길을 가게 된다.

〈능가경〉은 위의 세가지 요건이 원만하고 수승하게 갖추어지도록 이끌고 있다. 아차하면 외도의 길을 걷게 되는 위험을 세밀하게 일깨우며, 묘각(妙覺)에 이르는 길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이 난해한 경으로 인식되고 여러 사정으로 초기 선종기를 지나서는 거의 잊혀지게 되었다. 3종 〈능가경〉가운데 앞에 나온 〈4권본〉과 〈11권본〉은 자구(字句)가 난삽하고 문리(文理)가 잘 통하지 않아 두루 읽혀지지 못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 번본과 앞의 2본을 합께 참조하여 당 중기에 가장 완벽하게 번역되어 나온 것이 〈7권본: 대승입능가경〉이니, 〈능가경〉 공부는 바로 이 본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7권본〉보다는 앞의 2본에 따라야 할 부분도 있어 세 본을 합께 대조하며 공부할 필요가 있다.

〈능가경〉은 어려운 용어도 많고 난해한 만큼 주석서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찍이 원효대사는 무려 5종의 〈능가경〉주석서를 저술한 바 있으나, 불행히도 모두 다 실전되고 말았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마음공부 교법 총망라…게송 40%

"이 경대로 실천 세상 구원" 달마부촉

리하여 수행자는 자심에서 묘각의 길이 확연해 진다.

달마대사는 일찍이 〈능가경〉을 2조 혜가대사에게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능가경〉4권을 너에게 부촉한다. 이 경은 여래심지(如來心地)의 요문(要門)이며 모든 중생을 개시오입(開示悟入)하게 할 것이다. 내가 보건대 중국에 오직 이 경이 있을 뿐이다. 이에 의지하여 실천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능가경〉은 모든 선불(先佛)께서 설한 법이며, 미묘제일(微妙第一)의 진실요의(眞實了義)인 까닭에 '불어심품(佛語心品)'이라고 한다. 아울러 '최상승선의 지침서요, 선종의 뿌리이다. 달마대사 이래 초기의 선종을 능가종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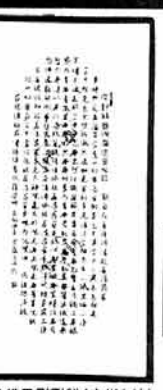
〈능가경〉에는 중관(中觀)과 유식(唯識)의 핵심교법이 정치하게 설해지며, 일체법이 자심소현(自心所現)이고 유심(唯心)임을 요달하여 무생법인을 성취하고 여환삼매(如幻三昧)와 금강유정(金剛喩定)을 거쳐 일체의 삼매도 벗어나 묘각에 이르는 길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

〈능가경〉은 그 중요성에 비해 그간 내가 〈능가경〉을 처음 접한 지 어언 18년이 되었다. 내가 처음 읽은 〈능가경〉은 김재근씨가 번역한 〈대승입능가경〉(덕문출판사, 1978)이었는데, 이 역본은 뒤의 게송품(경문전체의 30%분량)이 빠져 완역이 아니었다. 3종의 〈능가경〉을 함께 대조하지 않은 듯하고, 주해가 되어있지않아 따르기 어려운 해석이 있었다. 5년전부터 주변의 불교모임에서 〈능가경〉을 강독해 온 나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 최근에 〈여래심지의 요문-대승입능가경〉(능가산방 1997.8)을 출간하게 되었다.

선종이란 교를 멀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후대의 일반적인 풍조를 바로잡고, 진정한 최상승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능가경〉을 전한 달마대사의 뜻이 다시 천명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능가경〉공부를 통하여 불자여러분들은 달마대사가 왜 이렇게 모든 교법을 총망라한 모습의 이 경을 그렇게 강조하였는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아견(我見)을 수미산처럼 일으킬지언정
공견(空見)을 일으켜 증상만(增上慢)을 품지 말라.(〈대승입능가경〉 무상품)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
반 야 심 경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人民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승진·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만성지병 투병환자의 업힘적 해유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사경정근하세요.
神秘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전국 佛子가정에 1本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모사본에 속지 마세요.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약력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서울미술제 심사위원장(서예)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청작미술 대상수상
· 중국 대만 화교청년 고등부 서법회초대회 심사위원장
· 대한민국 80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약70만점)조사논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韓國佛敎文化 藝術院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242-0255 (야) 216-0307

법화경 특강(광주)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광주 전남지역 불교인구의 저변확대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화삼부경〉 무료특강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0월 24일 오후 2시~4시
2. 장소 : 광주 안보회관 5층 대강당
3. 동참 : 불교정법에 관심있는 모든 분
4. 혜택 : 참석자 선착순 200명에는 법화삼부경 (싯가 3만원) 1권씩과 佛字·액자용 1점씩을 드립니다.

■ 연 락 처 ■
영광 진제암 : 0686-53-9121
011-621-6966 · 015-638-6966

UN · IAEWP · KOREA MONK ACADEMY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 광 영 (공덕)
(053)952-8711 · 017-501-8711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릴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네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 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알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곡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이승을 마치다



우녀의 더부룩히 자란 삭발머리만이 온전하였다. 어쩌다가 생각나면 그 자신의 삭도질로 혼자 머리를 밀어낸 지가 얼마나 되는가. 머리가 자라나는 동안이 이 세상의 목숨이었다.

이제 머리가 자랄 일은 없으리라.

그의 아랫도리는 법씨 둘속의 조류에 의해서 벗겨져 있었다. 아무리 단단히 허리띠나 옷고름을 맸다 하더라도 파도더미에 시달리고 나면 그런 것은 덧없이 풀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상반신도 끝내 알몸이 되고 말았다.

어디에 대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다.

그에게 있어야 할 본능적인 방어로써의 몸짓도 없었다. 옷이 벗겨지면 두 손바닥으로 앞가슴을 가리는 따위의 그런 몸짓 말이다.

진작 그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다.

힘이 약화될 줄 모르는 파도더미 속에서 그의 알몸은 차츰 굳어지고 있었다. 오직 남은 것은 그의 두 손이 붙들고 있는 뱃목 한 자루에서 손을 놓는 일이었다.

아직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팔에 걸려있는 뭇옷도 파도에 너울거리며 해조류의 기다란 자락 노릇을 하고 있었다.

물 속의 허리나 다리 부위에 입질이 있던 고기들이 흩해졌다.

아마도 저쪽에서 숨진 신체들에게 달려가서 그곳의 잔치에 동참한 것 같았다.

우녀는 거의 어이없는 공상인 양 송나라 시절 대혜와 굉지의 기이한 우정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승의 마지막이 되는 이 사경(死境)에서 옛 선사들의 수작을 떠올리는 우녀가 차라리 아릇하였다.

만주족에 대한 한족의 열렬한 주전파(主戰派)였던 대혜는 그 때문에 화친파 세력의 집권으로 유배 10여년의 박해를 받아야 했다.

그만큼 대혜는 세속의 일이나 산중의 일에 무척 극한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간화선은 묵조선 따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그의 정치적 주전노선처럼 사악한 것으로 철저히 배척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 대혜를 묵조선의 종장(宗匠) 굉지는 대혜와는 달리 아주 너그럽게 대하고 있었다.

그가 10여년이 지난 뒤 유배지 공동에서 돌아오자 굉지는 그에게 한 절의 주지직을 추천하였다.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그 절의 소임자들에게 양식을 많이 비축하도록 일러두기까지 하였다.

대혜가 주지로 부임한 뒤 간화선의 세력은 남로 불어나서 과연 비축한 양식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대혜는 지난 날이나 이제나 수행의 방식에서는 여전히 적대관계였지만 끝내 굉지를 찾아가서 찬탄하기에 이르렀다.

"옛 부처가 아닐진대 어찌하여 이런 공덕을 베푸셨습니까?"

굉지는 말하였다.

"내 벗은 정녕 당신이었소."

그들은 그 뒤로도 서로 다른 수선(修禪)의 길을 갔다.

대혜가 다시 한번 굉지한테 갔다.

"이제 우리 두 사람 모두 늙었습니다. 당신이 부르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부르면 당신이 대답하다가… 하루 아침에 먼저 죽는 쪽이 있으면 남아있는 쪽이 장사지내주기로 합시다."

이듬해 굉지가 먼저 죽었다. 대혜가 장사지냈다.

"내 장사야 굉지선사의 혼령이 와서 지내줄 터이니 그 또한 기쁜 일이로다."

이런 우정을 떠올린 것은 그 우정이 죽음에까지 닿아있기 때문에 우녀의 막다른 고독이 그런 죽음에의 염원이 반영되었는지 모른다.

지금 그는 혼자였다.

"… 여럿이도다"라고 말한 사실이 어쩡도 사람들이 사라진 마당에 헛되고 말았다. 그는 여럿이 아니라 혼자였다.

그는 무욕도 쪽이 어느 쪽인지 확실치 않았으나 그 쪽이라고 여기며 파도마루에 솟아올라 쳐다 보았다.

아예 누런 해안선 따위도 없어졌다.

쉬어 가라.

쉬어 가라.

이 말은 묵조선의 너그러움을 뜻하거니와 우녀는 그런 너그러움까지도 그 자신의 몫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보다는 이미 날이 저물었도다 라는 비장한 고대의 한 넋두리가 그에게 알맞는 것이었다.

지난 날들이 번개처럼 그의 가슴 속을 그어갔다. 무욕도의 세월보다 그 이전의 어린 시절이 더 분명한 기억들이었다.

그가 맨처음 몸을 버리게 된 일도 떠올랐다. 열다섯 살이었다.

어머니 제사를 지낸 새벽이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내한테 지친 몸은 노리개가 되었던 것이다. 사내는 수건같은 것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아 비명따위를 방지할 줄 아는 주도면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두번이나 감당한 아픔 때문에 차라리 눈물 따위가 나올 겨를도 없었다.

아니, 그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랐다.

다만 두번째는 덜 무서웠고 덜 미웠다.

사내가 한 마디 남겼다.

"다시 오겠다."

새벽 검푸른 어둠 속으로 문을 가만히 여닫고 가버린 그 사내를 전혀 알아맞출 수 없었다.

그는 마을 총각들이나 남정네 그리고 먼 친척 가운데 그를 눈여겨 바라보던 사람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으나 어느 누구도 그의 심증이 닿는 대상은 없었다.

아무튼 그 사내가 말한대로 다시 오는 일은 없었다.

그 뒤로 그는 예성강 나루에서 남루한 치마자락이 흠투성이가 되는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 국밥 한 그릇에도 몸을 내준 일도 있어야 하였다.

그러다가 돌림병에 걸려 백란도 윗마을 물레방아 핫간에 격리되어 죽어가다가 살아났다.

그는 다시 나루터 주막거리에서 이 일 저 일을 도와주며 밥을 얻어먹고 헌 옷을 얻어입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환한 웃음이 많았던 시절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인당선사를 만난 것이었다.



"바람이었나니
바람이었나니
이것으로 나다 너다 하고 장난이었나니"
우녀의 넋은 바람의 노래를 불렀다

우녀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수미산 천인들은 그를…

"아!"

"아! 생을 무엇이라고… 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무지 헛되도다…."

"아! 하여간… 이승이 좋았다… 이승이 좋으니 저승도 좋으리…."

그런 생각이 일새처럼 머리 속에서 굴러가는데 고기들의 입질이 굳어진 아랫도리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돌고 돌아 제 자리인가
그동안
파도하고만 살아 왔구나
이제 무엇하고 살아가리….

아마도 이런 말 다음에는 다른 말을 남긴 것 같지 않았다. 우녀는 어느덧 시체로 파도에 떠 있었고 그가 붙들고 있었던 나무토막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다.

그 시체는 아주 잘 만들어진 정결한 제물로 되어 있었다. 그 제물에 꽤 커다란 고기들이 달라붙어 그동안 그 누구도 들여다 본 적이 없게 간직함으로써 오로지 공부만 해 온 진리의 몸을 조금씩 파먹기 시작하였다.

언젠가 우녀는 그가 무욕도에 오기 전까지를 아예 전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바로 그 전생 이후의 그는 마음 이상으로 몸도 청정 그 자체였던 것이다.

온갖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다 벗어난 후신(後身)으로서의 새로운 명운이 거기에 담겨 해와 달 그리고 뭇 별빛만이 삼가 그 몸에 닿을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 몸이 이제 고기들 가운데 가장 조급한 상어들에게 아주 진기한 음식이 되고 있었다.

고기들의 탐렬한 식욕때문에 그 시체는 마구 요동쳐야 하였다.

파도더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활발하게 밀려오고 밀려나고 있었다.

멀리서 해조음이 푸르딩딩하게 울려오지만 그것은 그 일대의 파도소리 때문에 제대로 공위를 누리지 못하였다.

얼마나 지났는가.

어둑어둑한 구름장이 신나게 달리는 공중과 힘껏 파도치는 바다 사이에서 한 나승의 시체는 큰 고기인 상어 무리에 이어서 그보다 작은 고기들이 달라붙었고 그 고기들이 떠나자 더 작은 것들이 우리 치지다 라고 달라붙어 뼈 사이의 살점 따위를 뜯어 먹었다.

끝내 그 시체는 뼈로 남겨져서 무거울 것도 없는데 솔솔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다.

이제 우녀는 이 세상에 없다. 그것이 가서 태어남인가.

하지만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 어디에도 아직 우녀가 가서 태어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한 마리 집없는 새처럼 떠다니는 넋이라면 그것이 넋이건 아니건 무슨 상관이 겠는가. 그런데 그런 떠다니기에도 법칙이 있었다.

며칠씩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일곱날의 밤낮이었다. 그러기를 몇번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일곱날이 일곱번 더하여 49일이 되었다.

우녀의 넋은 그런 바다 위 거센 바람이 몰려가는 허공 가운데서 바람의 노래(風謠)를 불렀다. 그 노래는 생시보다 더 선열한 것이었다.

바람이었나니
바람이었나니
이것으로 나다 너다 하고 장난이었나니

우녀의 넋은 그의 전생인 예성강 나루인 듯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그 자신을 위로하는 재를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재를 지내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뒤 넋은 바로 다른 세상으로 바쁘게 날아가야 하였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 넋은 어느 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세상 한 세상을 두루 들여다보며 그곳들을 지나치는 것이었다.

언제까지나 다할 줄 모르는 섬부주의 바다를 지나가 이민달라산이 나오고 그 뒤로 바다였고 이어서 상이산이고 마이산이고 선견산에 이어 더 높은 산을 넘어가니 드디어 수미산에 이르렀다.

그 넋이 33천의 한 천궁에 내려앉았다. 천인들이 아주 친밀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 · 조향숙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97 문화유산의 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보급

· 청동 100%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40.5cm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60 공주 (0416)55-0020 청주 (0415))63-3873
진주 (0591)747-0106 예산 (0458)33-5097 포항 (0562)252-7749 마산 · 창원 (0551)84-0735

평소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전하는 분의 품위가 기억됩니다.

■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간직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

천재도 바보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간의 존엄성

19 48년 12월 10일의 제3회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유명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인간존엄성의 신념은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이며 교육의 핵심개념이다. 인간 개개인은 누구나 다른 그 어떤 것의 수단이 되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존엄성의 심리적 기초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압각한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믿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식을 자기 이상으로 소중하다고 말하며 믿고 있는 어머니도 가족사진을 찍으면 우선 자기 얼굴을 먼저 보고 다음에 자식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잘 나타났으면 흐뭇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불교에서는 개개인의 절대적 가치의 존중을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바보나 장애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 천재나 정상인이나 부자나 잘 생긴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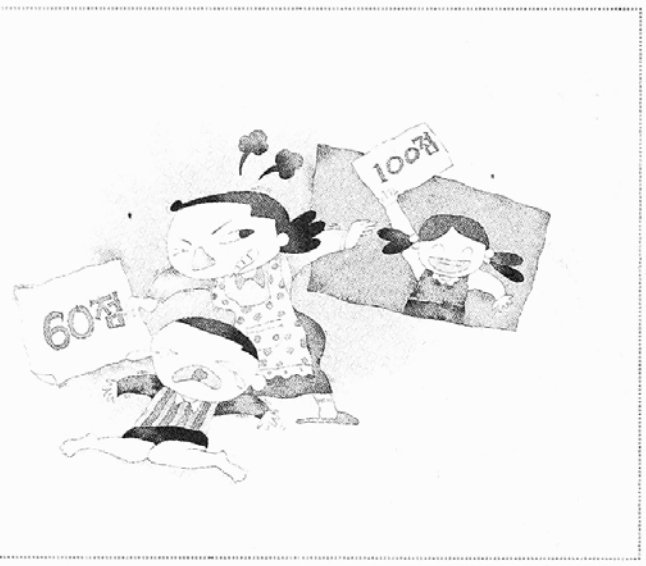
자녀가 전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었나 관심갖고 칭찬하면 발전한다

:
:
:

기대수준까지 끌어올리려 야단치고 남과 비교하면 학습동기 약화·성격 이상도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2〉



바보, 장애인, 가난한 사람, 못생긴 사람, 누구라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지구상에 있는 58억 인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라고 믿고 있다. 즉 부처님도, 천재도, 바보도 모두 똑같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교육은 이와 같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핵심개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교육현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방법에서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 교과목 성적을 평가하는 유형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두 가지가 있다. 절대평가는 준거지향평가(準據指向評價)라고도 하며 개인이 어떤 준거에 비추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밝히는 평가이다. 즉 설정된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그러기 때문에 학급 인원 전체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였으면 전원에게 만점을 준다. 반대로 설정된 목표의 최저 기준에 전원이 미달되었으면 모두 낙제점을 준다. 오늘날 학교에서의 교과성적의 평가는 이와 같은 절대평가이다. 다른 아동과의 경쟁이 아니라 목표 도달정도의 평가이다.

상대평가는 규준지향평가(規準指向評價)라고도 하며 어떤 규준에 비추어 본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는 평가방법이다. 석차를 매기는 방식이 상대평가이며 고등학교가 대학입학전형 자료로 제출하는 내신성적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평가유형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평가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가방법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과 같은 인간존엄성의 사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절대평가의 경우를 보면 선세(先世)의 업(業)에 의하여 어떤 부문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결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상대평가의 경우는 문자 그대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인 절대성, 초월성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철저한 경쟁을 유도한다.

상대-절대평가 부처님가르침에 상반 자기지향평가 '노력의 가치' 중요시

이렇게 볼 때 현행의 교과성적 평가방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한 개인 개인을 불성이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잘못된 평가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쳐 나가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제기 되고 있는 평가의 유형이 자기지향평가(自己指向評價)이다. 자기지향평가는 개인의 전후간의 발전의 정도를 비교하는 평가방법이다. 즉 향상(向上)의 흔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보고자 하는 평가방법이다.

이 평가방법에 의하게 되면 높이 있는 목표를 쳐다보며 한숨 쉴 필요도 없으며 다른 사람을 의식한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 스스로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뿐이다. 만일 경쟁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과거에 비하여 어느 정도 향상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향상일로(向上一路)의 길을 걷게 한다.

나는 글씨가 악필이다. 내가 보통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습자라고 하여 서예 시간이 있었다. 그때의 평점은 갑, 을, 병(甲, 乙, 丙)이었는데 나의 성적은 항상 병으로 정해져 있었다. 을이나 맞을까 하고 열심히 써내도 병이며, 화가 나서 막 써서 내도 병이다. 왜냐하면 병이 최하점수이기 때문이었다. 나의 서예작품을 설정된 목표에 비추어 보면 이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병이며 (절대평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도 형편없기 때문에 병이 된 것이다(상대평가). 그래서 자포자기하여 막 써 버린 것이 오늘과 같은 악필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지를 않고 나의 글씨 두 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이며 "이 글씨는 김군이 쓴 글씨인데 어느 모로 보나 잘 쓴 글씨는 아니야. 그런데 왼편의 것은 3개월 전에 쓴 글씨이고 오른편 것은 최근의 글씨인데 이 두 장을 비교해 보면 그간에 얼마나 향상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 김군이 이렇게 향상하다 보면 장차 서예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라는 식의 자기지향평가를 해주었다면 오늘의 나의 글씨가 이렇게 악필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지향평가의 원리는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도 적용시킬 수 있으며 그 영역도 지적인 발달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 자녀의 생활 전 영역에 걸칠 수 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절대평가와 같이 부모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에 자녀가 따라오지 못하면 야단치고 훈계하고 속상하게 생각하는 점이다. 즉 오늘날의 가정교육의 문제점은 부모의 기대수준이 너무 높은 데 있다. 그리고 이 기대수준에 미달한 자녀에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기대수준까지 끌어 올리려고 하는 잘못된 가정교육이 이루어 질 때 자녀의 학습동기는 더욱 약화되고 성격마저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는 부모에게 적대감정을 가지는 수도 있다.

다음은 학교의 상대평가와 같이 자기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점이다. 얼마전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우리가 바라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애와 비교하시지 않는 부모가 우리가 바라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안타까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목표에 대한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려 하지마는 주위의 눈총과 시선으로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했다가는 지방대도 못 가는 줄 알아. 응? 수학점수는 이게 뭐고 영어좀 봐. 옆집 을숙이 좀 본받아. 그 애는 서울대는 맡아 놨다더라. 그리고 큰 고모네 누구좀 봐. 공부도 곧잘 하는거 말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는 정말 힘드니까 일찌감치 공장에나 가!"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저희들은 무조건 남과 비교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올바른 가정교육은 학교의 자기지향평가와 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을 설정하지도 말고,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도 말며 오직 내 자녀가 전에 비하여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교육이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신념에 따른 교육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뒷바라지를 잘해야 일이 순순히 풀린다"고 한다. 땀흘려 얻어낸 성과나 큰 어려움의 극복에는 반드시 뒷바라지한 배경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흔히 쓰이는 바라지란 절에서 재를 올릴때 법주(法主)를 도와 경전을 독송하고 가영(歌詠)을 부르는 스님으로부터 어원이 생겼다. 재는 돌아가신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시식(施式)의식이 하이라이트를 이루는데, 이때 바라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바라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음시식의 절차 일부와 바라지의 역할을 살펴보자.

관음시식이 시작되면 법주스님과 바라지스님이 법당에 들어와서 의식을 진행한다. 이때 법주스님은 요령을 지니고 바라지스님은 목탁을 지닌다. 시식이 시작되면 법주스님과 바라지스님이 함께 요령과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하며 재를 올릴것을 고한다. 이어 법주스님이 혼자서 요령을 흔들며 간절한 청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바라지스님과 법주스님이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등 삼보에 귀의하는 의식을 한다. 이어 바라지스님 혼자서 향화청의 가영을 통해 향과 꽃과 차를 올리는 의미를 범패형식의 가락을 통해 전하는 '바라지'를 한다. 이후 법주스님과 바라지스님이 번갈아 가면 진언을 읽다.

이처럼 불교에서 비롯된 용어 바라지는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음식이나 옷을 대주고 뒤에서 일을 돌보아 주는 일, 또는 돌보아 주는 사람이라는 정도에서 사용하고 있다. '음식바라지'라든가 '옥(獄)바라지'가 사용범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경우 생활 방편의 도움, 궁지에 처한 사람 돕기 정도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용도로 바라지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바라지가 갖고 있는 본래의 역할은 지옥중생 또는 구천에 떠도는 고혼(孤魂)을 바라지하여 극락으로 왕생시키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바라지와 같이 우리 주변에 깊게 자리잡고 있는 의미의 불교용어를 찾아 음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바라지

法主 도와 의식진행하는 스님 '옥바라지' '음식바라지'로 사용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T) (0591)747-0106 F) (0591)747-0107

시·공·사·의·불·교·책·들

숨어있는 참나를 찾아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계환 지음/328쪽/값 6,500원

물음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도 이제 좀더 솔직하고
쉬운 언어로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 알기 쉽게 쓰고자 한 것이
오히려 현문우답이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를 알고자 하는 불자들의 진지한 물음
그 자체만으로도 저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기로 했습니다.
물음 하나하나를 자신에게 돌려 답을 구하다 보면
묻는 사람 자신이 어느덧 백팔고개를 넘어
부처님 도량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수행을 쌓아 부처님 되십시오.
—— 계환 스님이



불교 길라잡이
곽철환 지음/값 18,000원

미리래바의 十萬頌
가르마 첸처창이 옮긴 영역본을
이정섭 풀어 옮김/ 값 18,000원

부처님의 아흔아홉 가지 말씀
이형기 지음/값 5,000원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의범 지음/값 6,000원

禪으로의 초대
스즈키 순류 지음/최세만 옮김
/값 5,000원

갖고 싶은 경전 시공 불교경전
시공 불교경전은 현대적인 해석과 감각있는 편집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형식의 경전입니다.

1 유마경
장순용 풀어 옮김 / 값 12,000원
한 편의 연극 같은 유마힐의 설법

2 법화경 1·2
이연숙 풀어 옮김 / 값 각권 12,000원
영원한 부처님의 가르침

시공 불교경전은 계속됩니다.

시공사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교·정·보 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화 (02) 732-1522(直)
FAX (02) 737-0697

건강 관

◆한 방 암 정 보◆
02)700-6366

◆당 뇨 가 이 드◆
02)700-6131

◆그린파워녹즙기◆
길동 02)470-3102

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8118
H.P. : 011-559-8128 보은암
경남 함안군 군북면 허림리 우계동

◆대 보 생 식◆
잠실 183-10 02)427-9162~3

氣치료(초능력)

- 병과로 고생하시는 시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치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11)453-8611

전문시술원 張 三 洙

목·허리 디스크 **중풍 좌골신경통** 오십견·비만

퇴행성·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강 좌 관

◆태극권·생활역학강좌◆
문의 02)242-6188
(장안동 촬영소 사거리)
금 륜 정 사

※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해 드립니다.

밝은 삶의 지혜
「천수경 강좌」 개설

◇ 장소 : 광진구 중곡동 소재 "실상선원"
◇ 때 : 97년 10월 3일~10월 9일(7일간)
(음력 9월 2일~9월 8일)
◇ 시간 : 낮 11시, 저녁 8시 (1시간 강의)
02)499-4442
02)467-0562
정현 스님 - 무료강좌!

◆철학·풍수개인지도◆
(특수교재사용 책임지도)
비 룡 철 학 원
대구서부정류장옆
053)655-2209

학 생 모 집

◇ 포교교육과: 동양종교, 종교음악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57호)
만대교학대학원

PIANO 전문 LESSON

⊙ 찬불가 (찬불가곡·찬불가요·찬불동요)
⊙ Jass Piano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자 3개월 완성(가요·팝송·가곡)
강남피아노 교습소
02)554-1512
(강남교육구청 신고 제9657호)
강남역 8호출구 앞 3층건물의 2층

신 생 아 작 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스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월 4회 실시-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해동불교대학◆
- 법사 및 삼장법사 과정
- 불교의식과정
낙원동 02)741-0495

구인·구직 관

역술에 능통한 스님 구하실 분

스님께 전적으로 절 운영을 맡길 분이나 혹은 필요한 분
(60대 대구스님)
0578)83-5250

인재가 필요하십니까?

◇사무직 ◇운전직 ◇비서직
◇안내직 ◇전화교환직
◇전산직 ◇경비/청소
02)588-0862
(주)씨티맨파워
※취업희망자문의가능

사찰(포교원)에서 불교대학 다니며 수행할 젊은이 구함

※학자금 및 생활비 지급
032)503-4883/4886
017)321-4883
부름정사 주지스님

불교용품 관

◆신양불교사◆
대 표 양 흥 석
견지동 55-2 02)734-6331

◆正印社◆ 상패·기념패
견지동 02)735-0750

◆이화불교사◆
견지동 02)734-1383

◆祥阿佛敎社◆
견지동 02)725-0045

◆普賢心◆
공평동 02)722-4435

◆보리수◆

취급 품목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보련각서점◆
견지동 02)733-9537

◆불서보급사◆
견지동 02)732-2829

◆예 진 솔◆
견지동 02)736-5160

◆견지불교사◆
불교서적·어린이용품 전문점
견지동 02)739-3032

◆大 福 田◆
佛敎用品
견지동 02)737-0969

◆녹야원◆
견지동 02)739-0957

◆진 영 사◆
불교·단청·개금
견지동 02)734-3116

◆여 래 사◆
견지동 02)730-6939

◆성불사(구 승복센타)◆
견지동 02)636-1128

◆太成佛敎社◆
불교·단청·개금
견지동 02)732-7375

불교미술 관

佛 心 여래미술원
·탱화·개금
정 우 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011-324-5133

大圓佛敎美術院
金魚 李 鍾 春
·불화 조성 전문
13, 15, 16회 불미전 입상
0346)571-6581 (화실)
011-737-6581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주(심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광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희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 貴 玉 함장

정성길 불교 종합 전시장

■불교건축 : 법당, 신축, 탁자
■불교미술 : 단청, 탱화, 개금
■불상조성 : 천불조성, 석불, 대불
※특수기능보유자 보유
인천시 남구 도화동
032)888-5898

승 복 관

◆ 대 성 승 복 ◆
대표 임 현 호
(단체주문 우대)
견지동 02)739-6287

◆ 가 람 승 복 ◆
견지동 02)739-0080

사찰안내 관

사찰·포교원 운영하실 분

◇위 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평 수 : 대지 400평, 건평 40평
◇보증금 : 500만원
◇시 설 : 불상·탱화 일체 포함
053)981-8167
012)1130-8262
011)511-4717
※ 사찰 운영하실 스님 구함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의성
◇ 평 수 : 1,400평
◇ 건 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미륵민·요사채 2동
◇ 가 격 : 1억 2천(가격 절충)
◆ 무속인이나 보살은 거절
0576)862-0674
천 은 사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여주
◇ 평 수 : 1,500평 (등기평수 1,330평)
◇ 건 물 : 법당 18평(목조), 요사채 56평, 법회당 40평(목조한옥),
◇ 일주문·요한각·석등 2개, 산신각 4평
◇ 가 격 : 상담후 절충
◆ 서울에서 1시간거리, 여주에서 10분
0337)82-7339

사 찰 안 내

◇ 위 치 : 백운산계곡(토굴터)
◇ 교통편 : 함양 및 거창 →안의 →서상 →웃부전마을에서 2킬로 (준농림지역, 현재 밭)
◇ 평 수 : 실사용평수 3,000평 등기평수 465평
◇ 가 격 : 4천 8백만원
◆ 답사후 전화요망
053)767-563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 평 수 : 대지 280평
◇ 건 물 : 법당겸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1, 범종각 1
◇ 가 격 : 1억 3천(가격 절충)
◆ 약수물이 나옴
0556)74-4024

포교당 안 내

◇ 위 치 : 대전광역시
◇ 평 수 : 40평
◇ 건 물 : 법당 30평, 요사채 2칸 욕실완비
◇ 가 격 : 전세 3,800만원 (시설비 포함)
042)527-0559
02)372-0037

포교당 안내

◇ 위 치 : 경기도 군포
◇ 평 수 : 40평 (법당 20평, 거실·주방)
◇ 가 격 : 보증금 4,000만원, 월 20만원
◆ 전세도 가능
0343)53-8967
012)1106-1651

포교당 안 내

◇ 위 치 : 부산시 금정구 서4동 (서동시장앞)
◇ 평 수 : 4층건물 3층(24평)
◇ 가 격 : 보증금 1,500만원, 월 15만원
0593)854-0262~3
012)1106-1651

포교당 안 내

◇ 위 치 : 대구시 효목동
◇ 평 수 : 법당 60평
◇ 가 격 :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053)944-0778
0599)32-8216

포교당 안내

◇ 위 치 : 길음전철역 부근 버스정류장옆
◇ 평 수 : 법당및 요사 50평, 방 2칸 (5층건물 2층)
◇ 가 격 : 보증금 5,000만원, 월 80만원 (전세도 가능하며 시설비 일체무상)
◆ 최고시설(시설비만 5천만원 투자)
02)941-3195
017)215-3195

◆ 단 독 주 택 ◆
은평구청뒤 02)387-8159

포교당 안내

◇ 위 치 : 울산시 북구 연암동 화봉 택지지구내
◇ 평 수 : 30평 (법당 20평, 요사채 10평)
◇ 가 격 : 보증금 3천만원·월세 10만원
042)581-2022
042)581-2088

사 찰 안 내

◇ 위 치 : 대구 시내권
◇ 평 수 : 30평
◇ 가 격 : 보증금 2천, 월 20만원
◆ 포교원 운영한지 5년 되었음.
053)557-6917
성 산 스 님

사 찰 안 내

◇ 위 치 : 팽택 대로변(서울에서 1시간이내, 시장·터미널·주요관공서와 10분이내)
◇ 평 수 : 57평
◇ 가 격 : 전세 5,000만원
◆ 최고시설!!
0333)665-6686
0522)87-2276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김천(계곡좋은 휴양지)
◇ 대 지 : 580평
◇ 건 물 : 법당겸 요사 28평, 삼성각 10평, 기타 10평
◇ 가 격 : 1억 8천 (단, 사찰로서 영구히 불법을 호지할 스님에 한하여 조정 가능)
◆ 가든 또는 별장으로서 최적지임
0547)437-4135~6

◆위 치 : 전남 강진
◆부 지 : 457평 등기 필
◆법 당 : 15평 등기 필
◆요 사 : 10평 등기 필
◆시 설 : 시설일체 무상기증
◆가 격 : 2,500만원
◆ 특 징 : 수려한 산속에 소재한 기도 및 포교도량 으로 불교중흥을 위하여 이사비용만 받고 양도합니다.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언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 드립니다.
양도의 사찰 법통, 세무, 회계 및 감사업무 대행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대리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전국지역 사찰 건축, 단청 전문기업
동 국 불 사
상담전화:012)1648-6334
(24시간 호출중)
서 울 본 사 :02)3705-4447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상가·절 안내◆
고등역옆 삼한상가
(3층 28평, 보증금 3천, 월 50)
※현재 절로 운영중(타용도로도 가능)
주간 02)3409-0003
야간 02)3426-6367

여행사 관

◆ 혜초여행사 ◆
종로 02)733-3900

◆ 일광여행사 ◆
종로 02)736-6272

◆ 스마트여행사 ◆
당산동 02)631-9412

어린이집 관

◆ 불교유치원 ◆
춘천 0361)52-5040

◆ 금천유치원 ◆
강릉 0391)42-9976

◆ 낙산유치원 ◆
양양 0396)671-4167

◆ 반야유치원 ◆
속초 0392)33-0625

◆ 대원유치원 ◆
동해시 0394)33-2603

◆ 성불유치원 ◆
원주시 0371)672-1729

◆ 성문유치원 ◆
원주시 0371)82-6974

장 의 관

- 불교장례대행 -
◆ 대한불교연화회 ◆
불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02)732-9618~9

서 점 관

◆大興堂筆房◆
대표 권 대 일
견지동 02)733-7326

◆大新堂筆房◆
견지동 02)732-2830

◆安國筆房/書籍◆
● 서예서적,
● 미술서적,
● 붓·먹·벼루·화선지
견지동 02)732-4846

◆丹 陽 筆 房◆
대표 신 태 식
서예도구 일체
공평동
02)720-9991

◆ 文 寶 堂 ◆
韓紙/筆房
대표 전 인 주
● 붓·먹·벼루·화선지
견지동 02)735-3270

교 표 구 관

◆고 미 당 표 구◆
인사동 02)735-2037

◆낙 원 표 구◆
인사동 02)734-2972

◆명 륜 표 구◆
인사동 02)736-1712

◆백 송 표 구◆
인사동 02)735-5696

◆성 신 표 구◆
인사동 02)734-2344

◆신신표구사◆
인사동 02)735-2710

◆서 광 표 구◆
인사동 02)720-7442

◆다 산 표 구◆
인사동 02)720-6861

화 랑 관

◆ 용정 콜렉션 ◆
중국미술품
02)735-2700

◆동 성 방 화 랑◆
고서화.한국화
02)723-6577

◆금 성 화 랑◆
인사동 02)733-2462

◆가 람 화 랑◆
인사동 02)732-6170

◆경인미술관◆
인사동 02)733-4448

◆공 창 화 랑◆
인사동 02)725-6553

◆대 림 화 랑◆
인사동 02)733-3788

◆예 림 화 랑◆
인사동 02)732-3318

◆대 림 화 랑◆
고서화. 한국화
인사동 02)733-3738

◆ 갤러리 대아 ◆
서 양 화
02)517-2558

◆동 원 화 랑◆
인사동 02)736-3852

학 원 관

◆ 시사일본어사 ◆
● 1집 초, 중급편
● 2집 고급편
● 3집 LIVE편
NHK 일본어
국내독점 라이센스 시사일본어사
02)720-3690

한국역학대학
(97년 제 2기 신입생 모집)

1. 교육기간 및 과목
- 교육기간 : 6개월
- 교육과목 : 오행역학, 주역
2. 모집인원 및 제출서류
- 모집인원 : 3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 1통
· 반명함판 사진 : 1매
02)423-6446

기 타 관

◆ 불사 어려우신 스님들 상담바람 ◆
02)924-8047

감로심장회

감로심장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도와드립니다 ●
심장병·안면기형
안과(백내장·녹내장)
0591)747-0106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심장회 사무국

굶주리는 북녘 동포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밥한 공기 나누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밥 한 공기 나누기 운동'은 남북 화해와 민족 통일의 출발이며 평화운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인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밥 한 공기 나누기 운동을 권합시다. 먼저 전화를 하셔서 카드를 전해 받고 카드와 보시금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로 보내 주십시오. 보시금은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시고 카드는 모아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화를 주십시오. 불자 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에 박수를 보냅니다.

02)3672-5373
계좌번호: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는 쑥빠지고 참나 찾는 길"

퇴직해 제2의 삶 희망

문 하급공무원 생활이 26년째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생활이 너무 지겹게 느껴집니다. 정년퇴직은 9년 남았습니다만 이제 그만 제2의 삶을 살아보려고 밤낮으로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주인공을 믿고 관하라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런지요. 〈이인수〉

답 역시 믿음입니다. 제 나무가 제 뿌리를 믿지 못하고 밖으로 헤매거나 욕심을 앞세우는 까닭에 모두들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되는 것이나 안되는 것이나 다 돌이 아닌 도리를 알고자 한다면 첫째, 나와 내가 둘이 아니어야 하고 둘째,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어야 하고 셋째, 나와 더불어 과거 미래가 둘이 아니게, 현재가 찰나찰나 화해서 나툴 뿐 일체가 공한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할머니가 미역들고 나타나…

문 몇달전 조상님을 영탑에 모시고 얼마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제 어머님의 꿈에 할머니께서 손에 미역을 들고 친정 동생내외의 뒤를 따라 가시더라는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혹시 그쪽으로 몸을 받으러 가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 세계가 둘이 아니어야 하고 나와 과거 미래 현재가 空한줄 알아야"

아니거 자기 자신이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니 매사에 자신을 끌고 다니는 선장,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십시오.

자유롭게 새롭게 사시려거든 이를 명심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스스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우주를 꿰뚫어

문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교포입니다.

어느 날 스님들과 함께 저녁예불을 마치고 참선에 들어 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한국을 한바퀴 돌고 달나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온통 흙먼지 돌뿐인 달이 어쩌면 그토록 밤마다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지 감탄한 나머지 반야심경을 끝까지 염송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자리에서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힘이 솟아 달나라를 이리저리 꿰뚫고 다시 지구도 꿰뚫고 나갔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힘이라면 우주도 꿰뚫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스님도 한순간에 심키고 법당의 부처님도 꿰뚫어 심켜 버렸습니다.

우매한 짓은 아닐는지요. 〈박분음〉

답 보살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데 가고 옴이 있으랴.
내가 없는데 꿰뚫을 것이 있으랴.
내가 없는데 심켜버릴 것이 있으랴.
그 모두가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니 조심하기 바랍니다. 보살님이 진정으로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자 한다면 이 몸을 싹이라 한다면 그 뿌리를 믿고 닥치는 대로, 자성불 뿌리에다 놓는다는 생각조차 없이 모든 것을 다 일임하십시요.

잘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을 말고 오로지 믿고 놓으세요.

막행막식이 업이 될 땐…

문 저는 놓는다는 것을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침없는 행동이 자칫하면 막행막식이 되어 업을 짓게 될 터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대원〉

답 거침없이 하는 것은 어른이 다 되고 다시 늙어서 또다시 한 살이 되어야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공부하는 중에는 다스리는 바가 있어야 하지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나한테도 남한테도 이익이 되게 잘못된 생각이 들 때는 '야, 왜 잘못된 생각이 떠오르게 하느냐. 잘못되지 않게 다시 굴려서 그렇게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당신만이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놓는 겁니다.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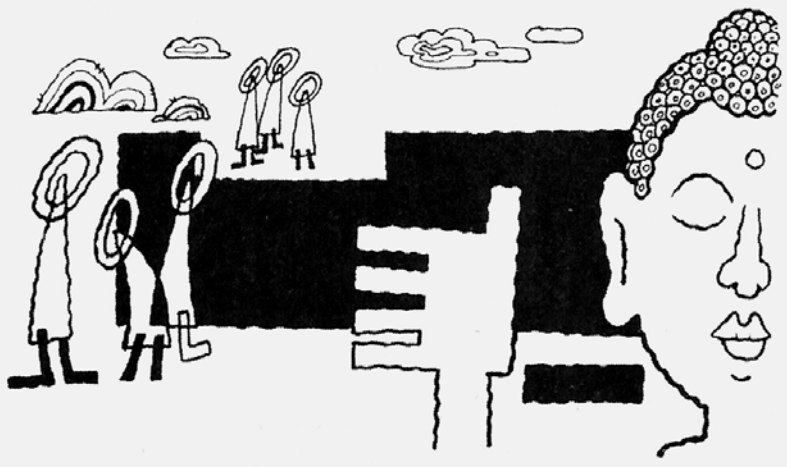
그것이 선이고 공덕을 쌓는 것이구요.

無我인데 누가 윤회하나요

문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는데 나 조차도 없다고 하면서 어떤 개체성이 윤회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듣기에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방법에 관한 내용 중에 참선이 따로 없다고 하시는 것은 좀 황당하게 들립니다. 저는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할 때는 전통방식대로 참선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 말씀

☞ 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헌

> 제나무가 제뿌리를 믿지 못하고 밖으로 헤매거나 욕심을 앞세우니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천리안 네트〉

답 어머님께서 생각하신게 옳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남녀의 참 성품 다른지요

문 마음공부를 해 나가다보니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대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참성품을 찾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사회운동 - 예를 들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권운동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제 마음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궁극에는 그런 운동에 뛰어드는 것보다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10년간 미국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신적 지도자를 찾아다녔는데 스님처럼 색신이 여성인 분으로서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스승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 여성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만 스님께서는 하필 가부장제가 현존하는 한국에 나투셔서 저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까?

〈박경화〉

답 사회운동이나 여권운동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본래 물질계와 정신계는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와 상대가 어디 있겠으며 본래로 내가 없는데 여자 남자는 따로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하여 내가 한다는 게 없습니다.

마음공부를 해서 내 불성이 있는 줄을 알게 된다면 내 불성이 여여한 줄도 알게 되고, 내 불성이 일체를 맞추어 있는 줄 알게 되고, 더불어 내 불성이 만법을 걸림없이 들이고 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시점에 한국에 나서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해 물으십니다만 내가 없으니 도두 이끄는 사이가 없이 가고 한번도 움직인 바가 없습니다.

말세가 온다고 하는데요

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세라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의 비밀을 밝혔다고 하는 어떤 책들을 보면 인류문명은 머지않아 멸망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들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주영〉

답 말세가 온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제 생각으로 그려낸 얘기이지 포괄적인 차원의 생각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말이 하고 싶겠지요.

말세라고 하든, 불로 심판을 한다고 하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 - 불 그 자체가 각자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요. 전체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말입니다. 차원에 따라서 틀림없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서야 온 우주와 직결되어 있고 이 세상과 가설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내 몸 하나 가꿔가는데도 건전하지 못한 일이 많지요. 술먹고 담배 피우고…. 그것도 편안한 마음자리에서라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그냥 갈등과 번민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몸이 망가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실하지 못하면 지구도 그렇게 망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도 말세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새 다 심판을 받고 넘어갔는지도 모르지요. 지금도 심판을 받는 중일테고.

이 심판이라는게 뭐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대로…, 어디 지옥이 따로 있고 어디 말세가 딴 곳에서 오는게 아니라 전부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면 끌려가고 잘못한 일 없으면 그대로 살듯이 이 마음에 따라서 잘못을 저질러 끌려가는게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온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40)

내가 나를 고(苦)에서 건져 내려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에 일체 만법이 나로 인해서 들고나며 상대성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참나 · 주인공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

자기로부터 우주의 근본이 비롯되었으므로 자기를 알아야 한다. 우주의 작용이 광대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의 근본보다 더 한 것은 없다."

내가 지금, 여기에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게 무엇이랴. 기쁨은 무엇이고 슬픔은 무엇이랴. 내가 없다면 성공이든 실패든 내 몫이 아니고, 세상의 만물 만사가 다 내 일은 아닐 것이다. 고로 내가 없다면 세상도 없고 우주도 없다. 내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세상도 존재하고 우주도 존재한다. 그러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이다. 나 하나 있음으로써 천상천하가 있고 나 하나 없음으로써 천상천하가 없다. 내가 가장 잘난 존재라서가 아니라 나는 곧 우주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일체 만법의 비밀이 풀리고 천상천하를 알고 우주를 섭렵케 된다.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내 집에 문패 붙여놓고 내 재산을 등기하고 내 이름을 주민등록에 올려놓고 있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 이 물건 저 물건에, 이 일 저 일에 '나'라는 존재를 다 보증처리해놓고 산다.

나로서 주인행세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제 마음에다 '내가 주인'이라는 등기를 못하고 산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지와는 달리 불안할 때도 많다. 한결같지도 않다. 내가 분명 주인일 터인데 자재롭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내 집에선 틀림없이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에선 내가 주인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다. 나의 진정한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사람의 근본 성품은 부처의 성품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누구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석가모니불과 다르지않고 역대 조사님들에 비해 손색이 없다.



비유하자면 우리들은 근본자리에서 제불보살, 역대조사와 함께 염주알 꿰듯이 꿰어져 있는 셈이다. 고로 자기부처가 참부처요 나 역시 석가모니불처럼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믿지도 못한다.

자신이 유아독존의 존재임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우리는 진정으로 아는 게 없다. 스스로를 모르는데 무엇을 안다고 하랴. 스스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내게서 나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나를 우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나를 구원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발견하지 못함이 나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를 불안케 할 것이다. 주인노릇을 할 수 없으니 삶에는 간혹 기쁨이 있을지라도 대체로 괴로움이 더 많게 될 것이다. 하인의 고달픈 삶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서 나를 발견하자면 먼저 자아부처가 참부처임을 믿어야 한다.

내 속에 석가모니불이 있고 여러 보살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지금의 나는 참나가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나로 돌아갈 때에 지금의 나는 참나가 된다. 유아독존의 그 나가 된다.

고로 지금의 나는 오로지 내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우주의 주인으로 살려면 그것밖에 없다. 마음 편하게, 자재롭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내 속의 참나를 믿고 일체의 살림살이에서, 하인이 주인을 믿고 따르듯이 그렇게 해야한다.

믿고 맡겨야 한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일거수일투족에서 나의 참주인을 믿고 따라야 한다.

그럼으로써 내가 내게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구원해야 한다.

협찬 : 김 진 극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네게 주장자 없다면 뺏으리라"

☞ 17면에서 계속

부탁드립니다. 〈김원호〉

답 앉으면 좌선, 누우면 와선, 일어서면 입선이요, 일하면서 하면 행선입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그대로 참선이니 어떤 것 할 때에 참선이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앉지 말라고 하나 서지 말라고 하나요? 여유가 있으면 앉기도 하고 여유가 없으면 일하면서, 뛰면서 하는 거지요. 참선 아닌게 없으니 내가 따로 참선한다, 이 공부한다는 게 따로 없다는 얘기 입니다. 절대로 따로는 없습니다.

또 윤회가 있다고 할 것이냐 없다고 할 것이냐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를 건 또 뭡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걸 나무들이 또 받아서 먹고 거기서 내놓은 걸 우리가 또 먹고…. 저 물도 우리가 먹고 내놓고 그걸 다시 식물이나 동물이 먹고, 그렇게 먹고 다시 내놓고 또 먹으면서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전체가 그렇게 돌고 도는 속에 자꾸 바뀌는데 이게 윤회가 아니면 뭡니까? 자연의 진리가 그냥 그렇게 바뀌는 거기에 있으니 공했다고 하질 않습니까?

또 개체성으로 윤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무의미한 말이 어디 있느냐고 하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요. 순간순간 달라지는 걸요.

단전호흡 도장을 하고 있어요

문 저는 단전호흡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세월 오랜동안 도를 닦는다고 부모님과 제 자신에게도 많은 누를 끼쳤습니다. 지금은 그걸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합니다만 제 입장에서 지금의 도장을 계속 운영해도 되겠는지요? 〈김영준〉

답 이 단전호흡이라는게 기를 모으고 피를 맑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공부라는 게 마음으로 문리가 터져야 일체만법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몸뚱이만 가지고 씨름하다보면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기가 잘못 돌아가면 머리꼭지로 올라가 병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단전호흡한다고 붙들어 앉혀놓기보다 마음공부를 가르쳐야 하겠지요. 그래야 나도 좋고 남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거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공부도 가르치도록 하세요.

간경해도 공부 진전 안돼…

문 저는 경전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의 신행담도 꼼꼼히 읽어보고 법문도 가능한 한 챙겨서 읽어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형필〉

답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입니다. 이론으로는 모두들 잘 안다고 하지만 실천면에서는 칠십 팔십이 되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몇년을 공부했다는 그것을 떠나서 실천합시다.

또 글에는 죽은 글이 있는가 하면 산 글이 있어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생수가 될 수도 있고 썩은 물이 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공부하기가 고통스러워요

문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부하는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제가 공부하면서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서 이 공부를 받아먹기 싫습니다. 스님! 〈안성우〉

답 놓는 것과 받는 게 둘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거기에도 걸리지 말아야 하지요. 놓는 놈과 받는 놈이 어디 둘이든가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자면 바깥 일도 있고 안에도 일이 있으니까 바깥 세계와 내면세계가 있어서 이것이 둘이 아니면서도 둘이라 불리우질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찌 숨을 들이 쉬는 것만 쉬는 것이고 내 쉬는 것은 쉬는 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 양면의 작용이 하나인데 어렵긴 뭣이 그리 어렵다 합니까? 이 몸 있을 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공부는 꼭 해야만 하는지

문 스님,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공부는 하고 죽어야 될 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형철〉

답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지요. 죽을 때 죽더라도 콧구멍 없는 죽음이 되어야 죽는 것이지요.

이 체없는 마음은 벽도 없고 보꾹도 없고 들이쉬고 내 쉬고도 없습니다.

주인공은 언제 찾아옵니까

문 견성한다, 단박에 깨친다, 돈오돈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공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순호〉

답 일체만물이 찰나로 나투면서 고정됨이 없이 전부 공심 공용하고 돌아가니까 공(空)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이 자체는 공입니다. 공이기에 죽는다 산다, 즉 생멸이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주인공을 찾는다는 것은 수억겁년 전부터 자기를 끌고온 근본적인 주처를 발견한다는 것인데 그게 그냥 깨달음이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 맷돌에 무엇이든 넣어서 갈려 나오게 하려면 아래위로 심봉이 딱 맞아 끼워져야 하지요. 그래야 맷돌이 제대로 돌아가고 곡식을 넣으면 갈아져서 나옵니다. 그러나 심봉은 힘을 가해줄 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들에 대비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내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뚱이와 마음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맷돌에 물질을 넣어서 돌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심봉은 꿈쩍도 하지 않지만 심봉이 딱 중심을 잡고 힘을 받쳐주어야 돌아가듯이 자기의 참 주인공은 힘만 가해줍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믿고 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본래 없는 게 아니니 발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오돈수냐 점수냐 하지만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탑을 쌓아 올리려면 밑부분부터 차곡차곡 돌을 놓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점수라고 한다면 탑 봉우리를 딱 올려 놓는 걸 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탑을 쌓아 완성하는 과정에서 돈오돈수다, 돈오점수다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세번 죽는다는게 무슨 뜻이죠

문 스님께서는 '세번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번 죽는다는게 무슨 뜻이며 거기에는 단계나 순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순호〉

답 항상 얘기했지요. 나를 발견할 양으로 모든 걸 주인공 자리 거기에다 놓고 들어가는 것은 내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쑥 빠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런 저런 이름이나 노릇을 하며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어느 것 할 때를 딱 꼬집어서 내가 했다,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질 않습니까? 중심이 있긴 있지만, 저 맷돌의 심봉처럼 있지만 어느 편에 섰다고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결로 세울수 없어서 내가 참으로 쑥 빠지는 도리를 아는 것, 그것이 내가 죽어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상대와 더불어 죽지 않으면 둘이 아닌 도리를 터득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둘 아닌 도리를 알려면 또 죽어야 한다 이겁니다.

세번째 내가 죽는다는 것은 둘이 아니게 나투는 경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돼지를 건질려면 돼지로 응신이 되어야 제대로 건질 수 있지요. 돼지가 되질 않고서 사람으로서 돼지를 건질려면 저항을 느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체만물과 응신이 되는 걸 세번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두번 죽어서 일체만물이 둘이 아니게 돌아감을 알고 세번 죽어서 모두가 나 아님이 없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 앞에 있는 수박을 그냥 쩍 갈라서 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월하고 편리하게 나를 찾는 길이지요.

가령 수박을 쪼개서 맛을 보지 않고서 그냥 수박을 바라보며 '이게 뭣일꼬' 하고 들여다 본다면 20년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해도 수박맛은 모르고 맙니다. 쩍 쪼개서 맛을 보는게 일단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마시고, 겁내지도 말고, 죽든 살든 개의치 마시고, 무조건이다 하며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리를 발견하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제 주인공은 어떻든간에 먹이고 입히고 제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 갑니다.

이 도리를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한 세상 잠시 살더라도 보람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갈 때는 잘 익은 콩깍지에서 콩이 툭 떨어지듯이 고생하지 않고 갈 게 아니겠습니까?

주장자 주고 뺏는 도리

문 스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네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고 네게 주장자가 없다면 네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방효순〉

답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네 집에 전화를 놓았다면 내가 전화를 걸어줄 수 있지만 전화를 놓지 않았다면 걸어줄 수 없지 않느냐.

설사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전화가 있고 이 전화로 말할 것 같으면 온 우주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고 이 세상 어디하고도 가설이 되어 있으며,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하고도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마음으로 통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제 전화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걸어줄 수도 받을 수도 없을테니 네게 주장자가 없다면 뺏으리라한 것과 같은 셈이 되는 것이지요. 아예 통화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무한량 주고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서로 통신을 한다면 참으로 재미있는 체험을 자꾸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스님! 이게 뭡니까? 하고 매달리지 말고 내 전화통부터 개통을 시키라 이거죠.

그래야 마음과 마음이 항상 같이 통하고, 그래야 체험을 하게되고, 비로소 내가 이토록 묘하고 광대무변한 도리를 왜 진작에 몰랐던가 하는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마음' 이란 무엇입니까

문 마음공부다, 마음도리다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 무엇이 마음공부이고 진짜 마음도리인줄 잘 모르면서도 쉽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스님께서 쓰시는 그 말과 제가 쓰는 그 말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치환〉

답 이렇게 여러분과 늘 한자리 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역대 부처님의 마음이나 어디 둘이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는 것이라 광대무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 온갖 법을 다 들이고 냅니다.

모습은 다 제각각이지만 부처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한마음으로 응결되어서 크거나 작거나 각각의 용도에 따라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력을 끌어 쓰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제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한마음으로서 거대한 발전소라고 한다면 그 발전소로부터 용도에 따라 작게 쓰면 전등을 켜고 크게 쓰면 공장을 돌리듯이 얼마든지 원하는대로 끌어 쓸 수 있는게 이 마음법입니다.



그림 · 최주현

"수박을 쪼개서 맛을 보지 않고 '이게 뭣 일꼬' 들여다만 보면 20년 50년을 해도 맛을 모릅니다"

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법계란 것은 우리 몸뚱이로 말하면 세포 하나 하나, 지구로 말하면 만물이 하나 하나 서로 가설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마치 전파 통하듯이 오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법계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네 마음이 꽃나무하고는 안 통하고 달나라 별나라, 저 태양계 은하계하고는 안 통하겠습니까? 우주 전체 구석구석이 인간의 마음과 통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기에 이 세상 만사 살림살이가 전부 우리 마음, 내 마음에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심 공체요 공생 공용 공식하고 있다, 이것이 진리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네 살림살이, 이 생활을 떠나서 무슨 부처님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알아라, 너부터 깨달아라, 너를 끌고 다니는 너로 그냥 넣는 것입니다. 본래는 놓고 안 놓고도 없지만 그 이치를 모르시니까 재차 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공부이고 참선의 길입니다.

그냥 불바퀴에 놓고 가다보면 '아하,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진짜 참선인 것입니다. 그러길래 시주를 억만금 한다 해도 내 마음 깨닫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라고 합니다. 가령 내 집 한 채를 팔아다가 다 갖다바쳐도 기복으로 하신다면 하나도 이익이 없고 공덕이 무효입니다만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면서, 일체가 다 같이 돌아가는 한마음으로써 하신다면 이 손가락 하나에 올려 놓을만큼 했다 해도 그것은 큰 공덕이 되고 이자에 이자가 불어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주인을 떠나서는 불법도 없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것에 의미도 없게 됩니다. 고로 이 마음공부 하나를 진짜로 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정말이지 그대로 우리들의 법이 됩니다. 불가사의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들의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공부다, 마음도리다 하는 걸 어렵다고 할 게 없지요. 여러분이 내 한마음 주인공에, 자기를 끌고 다니는 선장, 운전수한테 일체를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데 세금을 내라니 걱정입니까. 비용을 내라니 걱정입니까, 고기덩어리 이 중을 믿으라니 못 믿겠다는 겁니까.

제 마음의 주인을 믿으라는데, 제 마음의 주인을 의지하고 거기에 맡기라는데 왜 못합니까? 왜 못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마음도리에 참으로 엄청난, 광대무변한 묘용이 있다는 데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가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에 따뜻한 불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야단을 한다거나 하면 빗나가기 십중팔구 이지요? 마음이 엇나가지 않고 서로 통해야 이 육신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게 아닙니까?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인간은 물론이지만 개미하고도 통하고 꽃하고도 통하고 날짐승 들짐승 곤충하고도 통합니다. 다 가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물며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하고야 더 이를 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속의 스위치는 컬 생각을 안하고 겉모습으로만 온통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뭔지를 너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마음과 마음은 천리 밖에도 통합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니 모두들 실험을 해보세요. 내 집부터 전화를 놓고 통화를 해보는 겁니다.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고서는 남의 집에 전화를 걸 수도, 남의 집 전화를 받을 수도 없으니 내 집에 전화부터 놓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해보세요. 이게 통합니다. 이건 자연법칙입니다. 불가사의한 법이면서 불가사의한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무한량 주고받는 통신을 해보세요" 내 전화부터 개통해야 모든 이웃과 통화 가능

협찬 국제변호사 정 규 상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우성아파트 103동 705호

단 신

여불련 '인간성회복' 토론



한국불교여성연합회(회장 김묘즈)는 9월26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의식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세미나에서 전재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은 '정보화 전환시대의 윤리적 모색'이라는 발표문를 통해 불교의 연기적 윤리관이 정보화 시대의 자아중심적인 세계관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부인회 종로거리 청소



대한불교부인회(회장 구자순)는 9월29일 종로일대 거리청소를 실시했다.〈사진〉 1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벌인 환경정화활동은 종로구 보신각에서 탑골공원까지 진행됐다.

청교련 지도자 연수교육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11월14~17일 3박4일간 현성정사에서 '97청소년 자원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내달 7일까지 청소년단체 종사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수생을 모집한다. (02)735-8165

"민속놀이로 동심 키워요"

불교유치원 가을 운동회가 달라지고 있다. 기마전 바구니터트리기 공굴리기 등 단결을 통한 단체놀이를 중시하던 왜색(倭色)풍의 단골 메뉴가 사라지고 닭싸움 비석치기 끝말이어가기 등의 우리 고유민속놀이를 통한 민족의 전통과 새싹불자들의 개성, 창의성을 존중하는 '열린 운동회'로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불교유치원의 운동회는 새싹불자들은 물론 엄마, 아빠를 동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불교유치원 운동회 왜색풍 탈피

닭싸움 · 비석치기 · 굴렁쇠 굴리기 등 도입

창의성 · 자비정신 심어…학부모 동참유도

이같은 변화는 호전성(好戰性) 집단의식을 키우기 위한 일제때의 군대식 발상을 떨쳐버리고 새싹불자들에게 자비와 자리이타, 화합과 자율, 창의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평일이 아닌 휴일에 운동회를 열어 불자가 아닌 학부모들에게 불교유치원과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30대 가장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족등반대회 및 참여수업을 마련해 전북 유아교육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던 군산 반야유치원(원장 법송스님)은 12일 서초등학교에서 마련하는 운동회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경기 및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밀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기존의 단순한 달리기를 '꼬마 낚시꾼 경기'로 변형시킨 경기가 한 예. 이 경기는 맨손으로 출발한 뒤 중간에 놓인 낚싯대로 자석이 달린 목어를 낚아 달리는 것으로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법송스님은 "닭싸움, 비석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공기놀이, 굴렁쇠굴리기 등은 지금의 기성세대를 사로잡았던 놀이들이다. 사금파리도 훌륭한 놀이 도구가 됐고, 다 쓴 공책표지는 딱지 만들기에 그만이었다"고 말하면서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내용 대신 민속놀이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창의성과 화합에 대한 새싹불자들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유치원연합회 회장 정인스님은 "불교유치원은 부처님의 사상을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반영해야 하는 분명한 교육이념이 있는만큼 운동회에서 또한 그 근본적인 운영취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필선 기자

전국 유치원 가을 운동회

유치원	날짜	주소	전화
서울 홍이미술유치원	8일	경기도 양평 구린농장	(02)574-9869
서울 한마음유치원	10일	경기도 광주농장	(02)554-8662
서울 구룡사유치원	12일	구룡초등학교	(02)577-1986
서울 세성유치원	12일	상월초등학교	(02)937-0604
서울 불광유치원	19일	석촌초등학교	(02)422-1311
부산 소립사유치원	12일	도원초등학교	(032)667-7878
안양 무궁화유치원	19일	광송 중앙공원	(0343)82-8160
인천 보명유치원	19일	동춘초등학교	(032)816-2508
창원 다나유치원	12일	용지공원	(0561)64-3444
창원 큼비니유치원	12일	남영초등학교	(0551)81-2002
대구 원만사유치원	19일	능인고등학교	(053)253-3373
광주 용화유치원	10일	유치원 경내	(062)228-7475
목포 보현유치원	12일	금산사	(0631)76-0395
전주 연꽃유치원	12일	금산사	(0652)86-4520
남원 연꽃유치원	12일	7733부대 운동장	(0671)32-0190
군산 반야유치원	12일	서초초등학교	(0654)42-0954
제주 원명유치원	12일	원명선원 옆 잔디밭	(064)55-3323

건강 365일 〈2〉 율무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비타민 A 풍부 대장 氣생산 도와 암 · 마비증 · 폐암 치료효과 탁월

현대의학에서 암은 발병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다. 그 암은 마치 문명국의 척도처럼 경제가 발전할수록 늘고,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생약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율무'다.

율무는 〈동의보감〉의 약성가에 따르면 습을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마비증과 폐암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

영양학적으로는 비타민 A가 풍부하며, 대장기능을 보강하는데 영향을 준다.

소화가 안되고 아랫배가 아프며 대변을 자주 보는 것은 대장이 습해서 오는 증세다. 대장이 습하면 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습성관절염이나 각기병이 생기기 쉽다.

나와 친분이 있던 어느 여의사는 만성위장병을 앓고 있었다.

하루는 날 찾아와 만성 위염과 설사로 고생하던 남편이 율무를 먹고는 괜찮아졌다고 말하고는 자신도 먹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그 여의사의 증상과 체질을 보니 습이 많은 '태음인'이라 복용을 권했다. 삼개월 후에 다시 여의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생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통할 수가 있냐"면서 감탄을 했다. 요즘은 아예 밥에다 섞어 먹는다고 했다.

폐장에서는 기를 순환시키고 대장에서는 기를 생산한다. 대장이 습하면 기가 생기지 않고, 기 순환이 안되면 몸에 습담이라는 노폐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살이 찌고 고혈압, 관절염을 앓게 된다.

폐나 대장이 습한 체질은 '대체로 얼굴색이 희다, 땀을 많이 흘린다, 코를 곤다. 기관지가 약하다, 피부가 거칠다, 땀구멍이 크다. 과묵하다, 젊잖다, 말이 별로 없다, 복통과 설사를 자주 한다'는 증상을 보인다. 율무는 이같은 증세에 더할 수 없는 성약(聖藥)이 될 수 있다.

율무는 미싯가루로 복용하거나 또는 율무 20g 무우씨 10g을 1시간 정도 끓여 1일 2회 마시면 된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정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 · 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 · 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 · 행사 기획 · 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 · 연출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불자 세상보기

O-157 '비상' "식품위생 생명과 직결"

수입식품 범람…쇠고기 등 검역강화해야
"국민불안 해소하라"…日 작년 14명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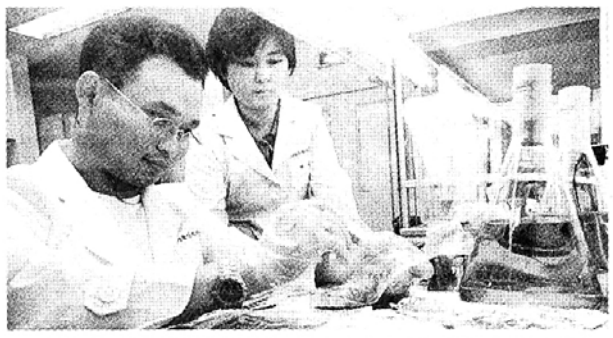
병원성 대장균 O-157로부터 우리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어린이나 노인이 이 병원균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용혈성 요독증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이 병균에 감염돼 14명이 사망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식품위생은 국방·치안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런데 보건위생을 맡고 있는 관계당국의 허술한 대처가 국민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국립동물검역소 부산지소는 9월 6일 네브라스카주 수입쇠고기에서 O-157 오염사실을 밝혀내고도 일주일 뒤인 13일 본소에 구두보고했다. 그러나 국립동물검역소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재검사를 거친 뒤 26일에야 이 사실을 발표했다. 네브라스칸산 쇠고기는 올들어 8월까지 1만1천톤이 수입됐으며, 일부 물량의 표본검사만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강원과 제주지역에 오염가능성이 있는 네브라스카산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다.

경상시 검역이 전체 물량의 13%만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검역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7월부터 거의 모든 농축수산물이 자유화되면서 외국 먹거리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O-157뿐이겠는가. 수입쇠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다. 수입 농축산물에 묻어들어온 각종 해충은 생태계마저 교란시키고 있다.

우선 검역인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농축산물 수입자유화로 검역물량이 3배가량 늘었는데도, 부산검역소의 정밀검사원은 9명에 불과하다. 이런 지경이니 무작위 선택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주요수입선에 검역원을 파견, 현지조사를 실시해 병원균에 감염된 농축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성운 기자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O-157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가운데 서울의 한 식품업체 연구소에서 자사 가공식품에 쓰이는 쇠고기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제공〉

'O-157' 예방법

"반드시 익혀 먹어야"

O-157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원균이지만 위생점검만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 병원균은 섭씨 75도에서 3분 이상 끓이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예방법을 소개한다.

△간·양·천엽·참자 등은 갈색이나 회갈색이 될 때까지 익혀서 먹는다. △육류를 운반 또는 보관할 경우 냉장은 섭씨 10도 이하,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 △육류와 야채는 구분 보관. △칼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는 수시로 열탕 또는 햇빛으로 소독. △생고기 조리에 사용한 기구는 끓는 물에 소독. △생고기를 만진 뒤에는 손을 씻는다. △생고기를 놓아둔 곳은 깨끗이 소독. △생고기를 담았던 그릇에 구운 고기를 담지 않는다. △조리나 설거지는 가급적 수돗물을 이용.

'인니' 산불…주변국 환경분쟁

한국도 中 대기오염물질 피해 심각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연무현상이 주변국에 큰 피해를 끼치면서 국가간 환경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연무피해를 보고 있는 동남아국가 일부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 피해보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나라의 공해가 다른 나라로 번지는 월경공해(越境公害)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로 1년에 1조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 진전으로 2010년에는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이다. 산업폐수에 의한 서해바다 오염도 예상된다.

이런데도 중국은 피해를 보전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럽국가의 경우처럼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환경기금' 같은 기구를 구성해 재원과 기술을 공유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벨상 과학부문 수상자 대다수를 포함한 세계의 저명 과학자 1천5백여명은 9월 30일 각국 지도자들에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과 산림파괴 감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지구 대양의 수위가 높아지고 식량난이 잇따를 것이며, 인류의 건강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처기업인 보은의 장학금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삐삐와 PCS단말기 분야 중견업체로 성장한 괜택의 박병엽사장이 9월 29일 정보통신대학원에 1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사업초기 고비를 넘겨 지금은 매출 1천억원을 바라보는 상장회사가 됐습니다. 이제 은혜를 조금씩 갚아야죠." 박사장은 이에앞서 95년에도 한국통신산업협회에 5천만원을 통신산업 연구비로 기탁하기도 했다.

교수들이 대학생 금주 앞장

전국 15개 대학교수 22명이 '한국대학생 알콜문제예방협회'를 만들어 대학생 금주에 앞장서고 있다. 교수들은 11월까지 8개 대학에서 '대학생활과 음주문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지며, 내년 각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에는 과음의 해악을 경고하는 팸플릿 1만부와 포스터 2천부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13명과 代父결연

'가정의 아버지에서 사회의 아버지'가 되고자하는 아버지재단이 3일 설립됐다. 재단은 이날 서울 어린이회관 일대에서 재단발족을 기념하는 '모두 내 자녀, 모두 우리 가족' 큰잔치를 펼쳤으며,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광명 하남초등학교 특수학급 13명과 대부(代父)결연식을 갖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재단으로 발전한 이 모임에는 9백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녹조 부추겨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놓은 탄천 시화호 마산 등 전국 14개 하수처리시설이 녹조현상의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을 유입수보다 더 많이 내보내고 있다고 환경부가 28일 밝혔다. 이들 시설들은 모두 1조9천여억원의 건설비와 하루 9천7백여만원의 운영비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또 9개 하수처리장도 정상처리율(30~40%)에 훨씬 못미치게 가동되고 있다.

여성음주운전 62% 급증

여성음주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여성운전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9백51명)보다 62.1% 증가한 1천5백42명에 이른다. 대학생 음주운전자도 1천4백61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해당 직장상사 또는 대학총장에게 적발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법원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벌금형 대신 자유형을 처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도로의 무법자'

녹색교통운동과 광주YMCA 등 시민운동단체들이 8~9월 전국 8개 도시의 1백27개 시내버스노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버스 한 대가 시간당 평균 4.8회의 차선위반과 1.8회의 신호위반, 8.4회의 경음기 사용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류장에 서지 않고 무정차 통과하는 경우는 시간당 3.9회, 급출발 급제동이 평균 30분에 한 번꼴로 나타나 이용승객들이 난폭운전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1시간당 10.4건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생활정보

에듀넷 학교폭력 '01410' 부실공사·공무원비리 '188'

교육부는 9월 29일부터 교육정보종합전산망인 '에듀넷'에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려면 '01410' 또는 '01411'번을 통해 컴퓨터 통신망에 들어간 뒤 에듀넷 문자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감사원도 93년부터 부실공사 및 공직자비리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기 위해 '188'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02-188, 서울에서는 지역번호없이 188번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고용평등의 달' 행사 다채

10월은 '남녀고용평등의 달'. 한달동안 관련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문의 02)720-2464. ▲9일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여성개발원 ▲14일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식 및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방안' 세미나, 프레스센터 ▲16일 '여성농민 직업교육 실태' 세미나, 서울 종로성당 ▲17일 '전문직 성차별 실태조사' 세미나, 여성개발원.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고용확대' 세미나, 전남대 ▲30일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여성업무능력과 고용확대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섬유기술개발연구원 ▲10월 하순 '노동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여성고용정책' 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감자생즙 암·고혈압 효과

'감자 생즙이 암과 고혈압 등 각종 현대병을 물리친다.' 감자에 함유된 페놀류는 발암물질의 대사억제, 퀴논류는 제암효과가 있다. 또 사포닌성분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을 녹여 피를 맑게 해준다.

이렇게 들었다

미국 네브라스카산 수입쇠고기에서 검출된 'O-157 대장균' 파문이 국정감사 첫날인 1일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하듯 국정감사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소관 부처인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보건복지위의 감사에서 의원들은 △O-157에 감염된 수입쇠고기의 시중유통 여부 △업무영역을 둘러싼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알력 △검역제도의 문제점및 보완책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와관련 경전상의 위생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위생 가려먹어 地水火風 조화롭게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 〈유교경〉

▨사람이 병들게 되는 데는 열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오래 앉아 눕지 않는 일이요, 둘째는 먹는데 절제가 없는 일이요, 셋째는 근심하는 일이요, 넷째는 몹시 지치는 일이요, 다섯째는 애욕에 빠지는 일이요, 여섯째는 성내는 일이요, 일곱째는 대변을 참는 일이요, 여덟째는 소변을 참는 일이요, 아홉째는 상풍(上風, 몸안의 위쪽을 향해 올라가는 호흡)을 억제하는 일이요, 열째는 하풍을 억제하는 일이다.〈의경〉

▨사람의 몸은 네가지 원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地) 수(水) 화(火) 풍(風) 네가지 중 어느 한 원소가 조화를 잃으면 백한 가지의 병이 생기므로, 네가지 원소가 함께 조화를 잃을 때에는 사백네 가지의 병이 동시에 생겨난다. 〈오왕경〉

▨비구는 보름마다 목욕해야 하는 바, 병 없는 비구는 응당 이를 받아들여 그냥 지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사분율〉

▨계절을 따라 5근(根,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4대가 뒤바뀌어 늘거나 줄거나 함으로써 몸에 병이 나게 한다.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는 좋은 의사에게 보여 적절한 시기에 잘 다스려 4대를 조화시키고, 병에 따라 약을 먹도록 해야 한다. 〈금광명경〉

▨보살마하살은 입는 옷과 침구를 더럽게 안하고 깨끗하기를 즐기므로 병이 적으니라. 〈마하반야경〉

▨더러운 손으로 물그릇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응당 배워야 한다. 〈해탈계경〉

▨비구는 깔개와 발씻는 그릇, 발 닦는 수건, 물 담는 그릇에 이르기까지 모두 깨끗이 해야 한다. 〈사분율〉

▨비구는 마땅히 방사(房舍)를 치장하고 침대를 털며, 침구는 볕에 쬐고 방안의 거울을 치우며, 방을 청소할 때는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닦으며, 일정한 곳에 수건과 각건(脚巾, 발닦는 헝겊)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오분율〉

▨묵은 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작은 벌레가 생겨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물은 거르지 않고는 마시지 말아야 한다. 〈정법념처경〉

새상품 차 흡집제거제 '카 닥터'



못, 돌 및 가벼운 접촉사고로 생긴 흡집을 누구나 손쉽게 보수하여 원상태로 만들어 주는 자동차 흡집제거제 '카 닥터(car doctor)'가 나왔다.

이 제품은 UV 코팅과 부식원인을 막아주는 특수 화약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차체 보호는 물론 광택효과가 뛰어나며 부식도 방지해 준다. 또 보기 흉한 이물질과 녹물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 가격은 3만3천원. 한국정밀(주) (02)202-6067.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FAX 053)943-9371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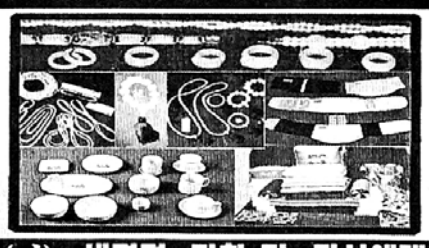
대구여래한방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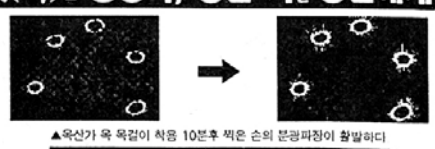
침·기공 연수

■ 연수 대학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60-7129
■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분
■ 기 간 : 8박 9일
■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등의 침치료, 기공등
■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進修 證明書)
■ 인 원 : 10명 선착순
■ 출 발 일 : 1997년 10월 21일(화)
■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 화 : (02)511/2026-8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옥복대, 베개, 반지 이렇게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모든 병이 호전됩니다.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씹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玉도자기 玉이볼 金賞 수상
이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시 론

한글 사랑하기

지난해 KBS에서 매주 토요일 밤마다 진행해오던 심야토론 방송 때였나 보다. 지금은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참석자가 누구누구였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한 젊은 대학생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만든 상품들은 지나치게 외국어 표기 일색이라고, 꼭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상표마다 뜻모를 외국어

모 재벌기업의 회장이라는 양반이 외국어로 상표를 붙여야만 수출이 잘 되고 내수시장에서도 활발한 제품 수요가 있다면서 당연한 것을 묻고 있다는 듯이 당당하게 답변하던 그 잘난 눈빛만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다.

단지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양에만 치중한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뻔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름만 들어도 잘 알 수 있는 외국 유명 기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들은 오랫동안 떳떳하게 자신들의 모국어로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 달고 오직 품질과 신용만으로 승부를 걸어왔다.



김 용 오
〈시인〉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세계의 시장 곳곳을 자기집 안방처럼 들락거리며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조금은 가는 길이 험하고 우회적일지라도 처음에는 돈벌이가 쉽지 않더라도 그런 개성과 근성만큼은 자기들만의 중심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남의 나라 말이나 기술만 빌려다 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끈질긴 인내심과 성실성 그리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함께 동봉해와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렇다고해서 언제까지나 몇몇 기업가들만 탓하고 있을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인과응보요, 개개인 각자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을 탓하기 전에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가까운 주변부터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길 거리에 나가면 쉽게 만나게 되는 상점 간판들 하나라도 좀더 신경을 기울이면서 바라보자는 거다. 무슨 뜻인지도 모를 외국어로 도배를 해놓은 그 많은 간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감칠맛나는 우리 말의 간판이 있거든 그 가게로 들어가 맛있게 음식을 먹고 물건도 구매해보자. 다시 말해서 여러 종류의 바다고기들을 수족관에 넣어 놓고 장사해오던 횟집에서 딱딱한 한자어나 일식표기의 간판을 떼어내고 어느날 갑자기 '바다 친구들'이라는 아주 시적인 간판을 매단 경우라든지 '뉴욕 베이커리'라는 외국어가 붙어있던 자리에 '빵굽는 작은 마을'이라는 인정미 넘치는 글귀를 보았을 경우에 말이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좀 어설프고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 모두가 다 부질없는 기우였음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겠지만 한자에 익숙한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젠 빠른 시간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해본다.

우리들이 상가에 문상을 갈 때 하얀 봉투에 항상 '근조' '부의'라고 쓰기보다는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로 바꿔 써보고, 결혼식에 갈때도 '축 결혼'이라는 상투적인 말보다는 '행복하소서'라는 문장을 써보기도 하고, 책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증정할 때 '○○○선생님 혜존'이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 받아 보소서'라는 말로 풀어쓴다면 삶이 한결 정겨웁고 가슴에 와닿는 느낌 또한 다르지 않을까.

글과 말부터 발상의 전환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보통사람들의 변화에 기업가들도 눈을 돌릴 것이고 그들이 만드는 상품 하나하나에도 한국어의 표기를 사용하지 않을수 없지 않겠는가.

요즈음 위정자들이나 그룹총수들이 21세기를 위한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 것을 알고 우리 것을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영원히 남의 나라 장단에 춤을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기분나쁜 생각도 해본다.

열린마당

북돕기 불교창구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녘동포를 돕기위한 불자들의 마음이 뜨겁다. 교계에는 연합단체형태로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와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가 캠페인과 모금행사 등을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단체가 올 후반기 사업으로 '겨울옷 보내기'를 각각 계획하자 교계 일부에서는 같은 취지의 일을 하는데 굳이 두 단체로 나뉘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단체가 그간 유사한 행사를 해 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이러한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북녘동포돕기운동 창구단일화·다양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동포에 희망" 명분 같아…단일화해야

도법 〈남원 실상사 주지〉

불교계가 내 동포를 살리는 일에 외면하지 않고 힘을 모은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의 당연한 도리이다. 또 94년 조계종 개혁이래 교계 최대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북녘동포돕기운동은 다시한번 불자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오랜만에 결속된 힘을 '동포살리기'라는 똑같은 명분임에도 여러 창구로 나누어 분산시키고 있는 것은 교계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량 분산은 동포살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대중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부담과 함께 혼란만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량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된 힘으로 결속할 때만이 대중의 의견을 공론화하며 정부가 식량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인도적인 사업은 종교계가 앞장설 때 더욱 빛난다. 불교계는 자체 역량을 키워 정부의 의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교계 북돕기 창구 단일화를 통해 식량지원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며 정보를 공유할 때, 동포를 위한 북돕기운동의 참뜻을 살리며 최대한 빨리 많은 식량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창구마다 다양한 사업 '민간교류 발판'

김동혼 〈경불련 운영위원장〉

지금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북녘동포돕기운동은 단지 식량을 전달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는 이뤄질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남북 경수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남북한간의 민간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민간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작은 희망을 엿볼 수가 있었다. 다양한 민간창구를 통한 식량지원은 마찬가지로 다방면에 걸친 민간교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식량을 조건으로 민간교류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지원을 계기로 그다음 민간교류의 발판을 다지는 계기를 모색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길은 곧 보다 통일에 한 발 다가서는 길이다.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이념과 사상, 이해와 요구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일괄적인 대북지원 창구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각 창구마다 특성에 맞는 민간교류의 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해야 한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은 한가지이지만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북녘동포돕기운동에 있어서 불자들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금한 돈·옷가지 어디다 보내야 할지"

김자경 〈'맑고향기로운모임' 실장〉

기회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물며 그것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내 동포를 돕는 일이라면야…. 그러나 우린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내가 대표나, 네가 우선이냐는 따위의 분별은 어리석은 자리 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비슷비슷한 북한동포돕기 행사들이 마련되는 최근의 교계 움직임 역시 불자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지 않을까.

언론보도에 의하며 현재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의식주 전반에 걸친 것들이라 한다. 그런데도 교계의 대응은 아직도 따라가기에 급급한 인상을 준다. 남들 앞에 내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싶은 때도 솔직히 있다. 게다가 교계의 북돕기 창구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모금된 기금이나 옷가지 등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참으로 망설여진다. 개인적인 참여라면 몰라도 교계의 공적인 단체들은 보통 난처한 상황이 아니다. 실제 우리 단체는 고민끝에 적십자사로 전달했다.

분초를 다퉈 북한동포돕기에 나서되 내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기회를 더 많이,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할 것이다.



◇북녘동포돕기운동은 94년 조계종 계혁이후 교계 최대운동으로 자리잡으며 불심을 결집시키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제공〉

교계 북돕기창구 현황

95년 이후 북한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식량난의 심각성은 소위 말하는 '인공기 게양사건'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북한동포를 살리자"는 종교·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했다.

교계에서는 지난해 12월12일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가 발족함으로써 본격적인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시작됐다. 불교운동본부는 발족 이후 '밥 한 공기 나누기운동' 등 자체 모금운동 외에도 타종교단체와 함께 '옥수수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며 교계 안팎에서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북한 현지에서 직접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외국 구호단체의 대표자를 초청, 북한 식량난의 실태를 생생히 들을 수 있는 각종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교계내 북녘동포돕기 '붐'을 형성하기도 했다. 현재 8억2천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한 불교운동본부는 그 중 6억6천여만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민족돕기불교본부

96년 12월 발족 '밥한공기 나누기' 활동 활발

불교운동본부에 이어 북돕기운동에 나선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지선스님)는 한국종단협의회 전종단과 제단체가 참여하는 교계 단일기구임을 표방하며 지난 5월7일 발족됐다. 불교추진위는 무엇보다 '북녘동포살리기 1백일 결사법회'를 통해 전국 사찰단위까지 모금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 특히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의 동참은 북녘동포돕기운동이 범불교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추진위는 총 7억1천여만원의 성금을 모금, 지난 9월초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옥수수 2천톤(약 2억7천만원)을 전달했다.

북돕기불교추진위

종단협등 참여 '1백일 결사' 통해 전국사찰서 모금

그러나 '북녘동포를 돕자'는 단일목적 아래 결성된 두 단체의 활동은 북을 향한 남녘불자들의 불심을 두 갈래로 나누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교추진위는 발족 당시 범종단 단일기구라는 점을 내세워 불교운동본부에 동참을 제의했다. 하지만 교계내 북돕기 선두주자로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불교운동본부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고 설명했었다. 결국 불교운동본부와 불교추진위는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서로의 정보와 내용을 공유,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선에서 합의하고 각각 모금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각자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단체의 논의와 합의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불교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단체의 식량지원에 있어 허용보다 규제를 더 많이 하는 현실에서 큰 규모의 단체로는 발빠른 식량전달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불교추진위원회 실무자는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아무리 많은 식량을 전달하려 해도 그 한계가 있다"며 "분산된 힘을 모아 대정부 교섭력을 키우고 역량을 쌓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식량을 전달하는 길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두 단체의 입장은 모두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교계의 전반적인 의견은 부처님의 '자비방생(慈悲放生)'의 정신을 진정으로 살리고자 한다면 두 단체 모두 보다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북녘동포돕기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다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책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등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다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삼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첨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삼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불기 2542(무인년) 달력 보급 안내


동자승 (大·小)




산사의 향기 (大·小)




나한도 (小)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小)-사진 안장헌', '동자승(大·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체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무인년 조견표가 들어 있습니다.

- 크기 : 小(26×26.5cm) 大(30×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견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

종단소식

조계종

종단등록 10만명 돌파



포교원(원장 성타)은 9월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도증발급 10만명 기념식을 봉행하고 10만번째 신도인 류우자불자(용흥사 신도)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기념식에는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포교원장 성타스님 및 직할사암 주지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안성 칠장사 범종타종식

경기 안성 칠장사(주지 도광)는 15일 오전 10시 범종타종식을 봉행한다. 또 지역민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도 함께 개최한다. 타종식에는 원로회의의장 혜암스님을 비롯해 이해구 신한국당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태고종

행자소양시험 실시



총무원(원장 인곡)은 9월30일 총무원 설법전에서 제21회 합동득도 수계산림 신청자에 대한 소양시험을 실시했다.〈사진〉 모두 1백6명의 행자가 응시한 이번 소양시험은 종단관 및 천수경, 반야심경 등 경전에 대한 이해정도를 측정하는 면접과 목탁실수 등 실기로 치러졌다.

대구경북종무원 연수

대구경북종무원(원장 김일우)은 9월28, 29일 이틀간 종무원 설법전에서 종무원 간부와 산하 각 사찰 주지, 교임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려 및 교임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종단과 종무원의 활성화문제, 범음범패, 수행자의 기본의식, 불교개론 등에 대한 주제강연과 분원활성화 및 종단 영산대법회 동참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최월봉 종무원장 취임

경기남부종무원은 9월29일 수원 흥국사에서 종단간부를 비롯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월봉 신임 종무원장(흥국사 주지) 취임식을 봉행했다. 월봉스님은 취임사에서 "주인의식의 부재로 침체에 빠진 교구와 종단의 위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태종

삼광사 알뜰장터 마련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사찰내에서 사회복지 성금마련 알뜰살림 꾸리기 장터를 열었다.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열린 알뜰장터는 진구를 비롯한 15개 지회별로 전통차, 멸치, 쌀, 고추, 법복 등 먹거리에서부터 각종 농산물을 마련해 판매했다.

관음종

전국사암주지 연수회

총무원(원장 홍파)은 13일 오후 2시 대전 유성구 유성관광호텔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전국사암주지연수회를 개최한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지도적 역할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회는 '성직자의 자세와 수행정진' '불교의식론' '대승보살 운동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한 강의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대한법화종

통일기원 방생법회

총무원(원장 대호)은 6일 경남 통영 광도면 안정리에서 평화통일 기원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국태민안과 국가번영을 이뤄 통일을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법회에는 종단간부 및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가했다.

조동종

미얀마 · 태국 성지순례

총무원(원장 송정)은 9월23일부터 29일까지 6박7일간 일정으로 불교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부원장 덕운스님을 비롯해 종단간부 및 신도 40여명이 참가해 미얀마의 차욱타치와불, 태국 에머랄드사원과 새벽사원 등을 참배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도심포교당 거점 '포교 활기'

조계종 본사들 일요가족법회·교양대 설립 잇따라

조계종 교구본사들이 포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심포교원, 교양대학, 일요법회가 잇따라 개설되고 교세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포교법회를 실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본사들의 포교활동 주요거점은 직할 포교원. 이는 본사들의 포교활동 난제였던 △법회 시간과 활동 제한 △신도들의 동참 어려움 △주거지와 원거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각 교구본사들은 1~2곳 정도의 도심포교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교구본사가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 도심에 설립한 포교원은 약 40여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본사는 양산 통도사로 서울 구룡사, 부산포교원등 직할 포교원만 11곳이다. 포교효과 또한 괄목할만하다는 것이 본사측의 얘기다.

제주 관음사는 9월 27일 서울 송파구에 직할 포교원 마음의 절을 개원, 섬과 육지와의 원할할 포교를 선언했다. 특히 마음의 절은 시민선방운영, 도제양성을 위한 지원책마련, 청소년상담실운영 등 미래형 포교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각 교구본사들은 도심포교원을 통해 최대의 포교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구본사들은 도심포교원을 통한 포교뿐만 아니라 본사가 직접 나서는 포교에도 진력하고 있다. 김제 금산사는 교세가 취약한 말사를 중심으로 순회포교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8월부터 실시한 순회포교프로그램은 각말사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천 직지사는 체계적인 신도교육과 불심함양을 위해 불교교양대학을 처음으로 개설했다. 해인사는 일요일 사찰을 참배하는 불자들을 위해 일요가족법회를 개설했다. 영천 은해사는 토요철야참선법회를 실시하는등 각 교구본사들은 최근들어 포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교구본사는 다양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몇몇 본사의 경우는 도심포교원 운영부재는 물론 포교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중근 기자〉



헝가리 불자들의 합장 헝가리 유일의 한국사찰 파라미타사(상임 포교사 진오)는 매월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헝가리에 한국불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법회 때마다 30여명의 현지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어린이 불교학교를 열기도 했다. 9월 정기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한 사진을 진오스님이 본사에 보내왔다. 사진의 배경은 파라미타 경내에 92년 세운 높이 36m, 넓이 24m에 이르는 유럽최대의 불탑으로, 헝가리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송상무가 베트남 도피자금 댔다"

BBS 범대위 '김선도 검찰 진술' 공개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지원스님)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하스님(前 불교방송이사장·관음사 주지)의 종정스님 표창패 수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선도씨(前 불교방송 경리차장)가 "베트남도피자금을 송병욱씨(前 불교방송 상무)가 대줬다"고 진술한 검찰 조사자료를 공개했다.

범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영담스님과 종하스님의 이사직 사퇴 촉구 △재단이사회 소집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와 같이 공개한 검찰 조사자료에서 김씨는 송씨가 불교방송 부지 확보 및 종하스님의 조계종 종회의장 선거를 대비한 비자금 10억여원 조성을 지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송씨는 김씨의 진술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7일에는 조계종 불교방송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정대스님) 소위가 열려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강화 연등국제선원 문열어

외국인스님 20명 참석 삼존불 점안

외국인들의 한국선 수행을 위해 마련된 국제선원이 문을 열었다. 연등국제선원은 9월28일 인천 강화군 국제선원 법당앞에서 외국인 스님 20여명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27일 연등국제선원은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하고, 영국, 스리랑카, 일본, 싱가포르 스님을 초청해 개원을 기념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주제 세미나를 열었다.

연등국제선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수련회와 한국인을 위한 주말선방 등 단기간 또는 1주, 2주 단위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세미나도 개최할 방침이다.
〈관련인터뷰 3면〉

한·몽 불교교류 협의

통도사 몽골국립대 간담회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은 몽골 국립대학 부설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및 부원장을 초청,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양국 불교교류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에서 몽골 불교문화연구원장 하브터씨는 불교문헌번역 및 간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며, 통도사 부산포교원은 내년중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2일 가진 간담회에서는 양국 불교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동국대 지방서도 입시전형

부산 광주 등 8개 지역서…국내 첫 실시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98학년도 입시를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키로 했다. 이처럼 입학전형을 지역별로 실시하는 것은 동국대가 처음이다.

동국대는 원서접수, 응시, 합격여부 확인 등 입시 전과정을 거주지 또는 인근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대학입학전형 현지방문 실시계획'을 9월28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입학전형 계획안은 지방 수험생들의 교통비, 숙박비 등의 추가부담을 덜고, 대학행정을 수요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방문전형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역별 고사장은 보문고(대전) 청주상고(청주) 대구여고(대구) 경남상고(부산) 광덕고(광주) 전주농고(전주) 강릉상고(강릉) 오현고(제주) 등이다.

납골당 현대화 지원

복지부, 1차 153억원

보건복지부는 9월 28일 개정 장묘법 시행에 맞춰 화장장·납골당을 현대화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화장한뒤 납골하는 형태로 바꾸는 방식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1차로 내년부터 사설 납골당 설치융자금을 40억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개선에도 국고 58억원, 납골당 신축에 55억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방송작가 학술세미나

조계종, 9~10일 월정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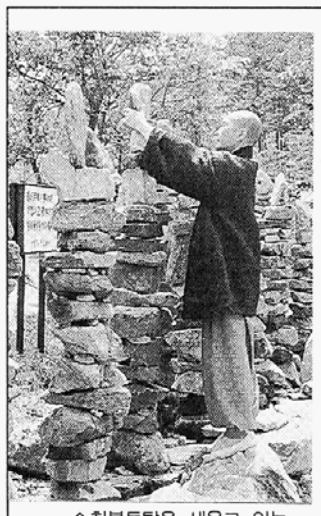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방송작가 초청 불교학술세미나를 9~10일 월정사에서 개최한다.

14회째 맞는 이번 세미나에는 50여명의 방송작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연주암 선원장 명진스님(중앙종회의원)이 '수행방법으로서의 선불교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와 함께 참선실수를 지도한다. 참가자들은 상원사 적멸보궁과 동해 등 명낙가사도 참배한다.

천불탑 쌓으며 중생해탈 기원

옴천사 정암스님 3년 결사

1년6개월여만에 5백기 완성



◇천불돌탑을 세우고 있는 정암스님.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고통과 죄업에 빠진 중생제도를 위해 '3년 결사정진 지장보살 천불돌탑'을 세우고 있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전남 강진 옴천사(주지 정암)가 바로 그곳. 옴천사가 지장보살돌탑을 세우기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해 5월. 사람(성인)크기 돌탑을 하나 둘 쌓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지장보살독경을 하면 다생다겁 지어온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는 주지 정암스님의 믿음 때문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쌓아올린 지장보살의 돌탑은 현재 5백여기다. 일주문부터 법당앞까지 가득메울 정도다. 옴천사가 지장보살돌탑을 세우게 된 이유가 또하나 있다.

옴천사터는 6.25전쟁때 수많은 양민들이 무참이 살해당한 곳이다.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장보살 천불돌탑을 세우게 된 것이다.

옴천사는 일체유주무주고혼들이 지옥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지장보살 천불돌탑을 조성하고 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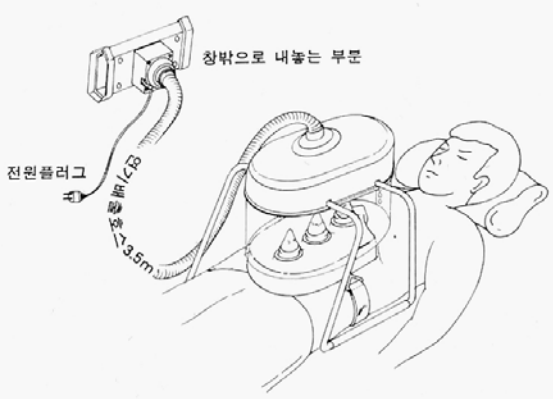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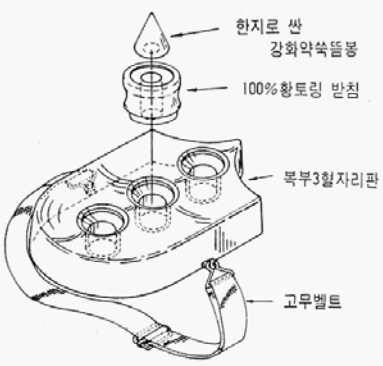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60,000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왠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 종로·서대문구 (02)747-7033 송파구 (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북 : 울산 남구 (0522)74-7536 울주구 (0522)85-1284 포항 (0562)75-1560 경남 : 마산 (0551)23-9016 부산 : 연제구(보문포교원) (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경기 : 광주 (0347)64-3172 용인 (0335)36-4294 충북 : 제천 (0443)46-3023 충남 : 예산 (0458)33-3208 보령 (0452)33-1336 전북 : 익산 (0653)856-8659 강원도 : 강릉 (0391)645-2117

한글이름 절 '눈에 띄네'

'연꽃피는 절' '마음의 절' 등…한글의식 정착 한몫

광주에 사는 반야행보살(55)은 최근 '연꽃피는 절'을 참배한 뒤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이런 절 이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도 컸다.

그러나 연화사(蓮華寺)를 한글로 그대로 풀어 쓴 것이며 '연꽃피는 절'의 뜻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의구심이 풀렸다. 게다가 법회도 한글의식으로 치뤄져 한문을 모르는 반야행보살에게는 의식일체가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그동안 뜻도 모른채 입으로만 읊조렸던 것이 최고의 신행생활이라고 믿어왔던 사실이 부끄럽게만 여겨졌다. 그리고 이젠 신행생활을 위해 일부러 먼곳의 유명사찰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됐다.

이처럼 우리말로 표기된 사찰이 불자는 물론 비불자들에게까지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지가 9일 한글날을 앞두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월 27일 제주 관음사가 서울포교당 '마음의 절'을 개원한 것을 비롯 현재 서울 마음의 절, 창동절, 산이깊은 절, 부처님 계신집, 광주광역시 연꽃피는 절, 경기도 이천 우리절, 전남 곡성 작은 절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한글이름의 절이 등장한 것은 90년대 초반부터이며 포교당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특징이다.

혜우스님(작은절 주지)은 "사찰이름을 굳이 딱딱하게 한문으로 표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이름사용이 오히려 포교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글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찰주지스님들은 "신도들이 처음에는 어색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집같이 생각하는 것같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일부에선 "한글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은 없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찰이름이 더 불교답다"며 "한글이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중근 기자〉

조계종 **기초교육개혁추진위 발족**

의제·호칭등 개선안 마련…졸업시험은 강원재량

비구(니)와 사미(니)의 기초교육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일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을 확정 발표하고 8일 총무원 4층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비구(니)와 사미(니)의 의제 및 호칭문제, 승려증 발급문제, 승가위의와 기초교육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총무원장과 교육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9명의 자문위원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총무원 교육원 각 2명, 중앙종회 4명, 계단위원회 2명, 동국대교수 1명, 중앙승가대교수 1명, 비구니계 2명, 간사 1명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인에게 '학인증'을 발급하고, 호칭도 '학인'으로 통일키로 했다.

주한 외국인스님 첫 연수회

조계종, 11월5일부터…11개국 37명 대상

주한 외국인스님들에게 조계종 고유의 수행법과 한국불교의 특수성 인식토록 하기위한 연수회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오는 11월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송광사에서 '97년도 주한 외국인스님 연수회'를 개최한다. 조계종에서 주한 외국인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11개국 37명의 종단재적 외국인스님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회는 조계종 수행법과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제고 외에도 한국에서의 수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외국인스님들간의 모임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발심수행장, 소참법문, 한국의 선종사상, 참선실수, 다도실습, 한국불교의 문화, 한국 사찰 조형의 특징, 구산선문 탐방 등이며 강의 및 슬라이드 상영,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초등교 사회교과서 '직지' 관련 잘못 기술

현존 세계 최고의 직지심체요절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잘못 소개, 고려의 금속활자 발명시기가 2백년 가까이 늦어진 채 교육되고 있어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59쪽에는 직지심체요절의 컬러사진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라고 적혀 있다. 관련학자들에 따르면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의 금속활자 인쇄물 중 가장 오래 됐으나 최초의 인쇄물은 분명 아니라는 것.



"참회 합시다" 육군교도소 위문법회 한국불교교화원(원장 백운월)은 9월30일 경기도 장호원에 있는 육군교도소에서 수련생 위문법회를 개최했다. 3백여명의 수련생들이 참회와 죄업소멸을 하여 갱생의 길을 걷도록 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는 사물놀이 공연에 이어 명국환, 남강수씨 등 불자가수봉사단 회원들이 흥을 돋우웠다. 이번 위문 행사에는 한국불교교화원 이외윤총재 이사장 성도스님을 비롯 동림동문회 회장 성운스님, 동대불교대학원 총동문사회복지회 자용스님, (사)자비와행함이하나되어회 회장 송묵스님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장호원=김주일 기자〉

도갑사 출토유물 도갑사로 반환

문화재관리국, 청동문수동자상등 15점 사찰소유 인정

지난 3월 전남 영암 도갑사(주지 범각)에서 발견돼 조계종과 문화재관리국간의 소유권 분쟁이 있었던 청동문수동자상 등 유물 15점이 도갑사로 반환조치됐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문화재관리국이 도갑사 출토 유물에 대한 사찰소유를 인정, 반환조치하겠다는 공문을 9월25일 보내왔다는 것. 이번 반환조치는 매장문화재는 국가 소유라는 기존의 관례를 깬 최초의 사안으로 향후 사찰소유지에서 발견된 문화재가 사찰소유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발굴담당자인 목포대 박물관이 임시보관중인 도갑사 출토유물은 도갑사 여건상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힘들어 본사인 대흥사의 성보전시관에 보관할 예정이다. 다만 대흥사 성보전시관이 건립중에 있으므로 위탁기관을 총무원과 도갑사가 협의, 임시보관하게 된다. 또 성보보존위원 및 문화재 전문가에게 이를 감정의뢰,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문화재신청을 할 방침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원학스님은 "앞으로 조계종 사찰에서 출토되는 모든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물론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당 사찰과 협의, 출토에서 관리까지 종단 중앙에서 총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조계종내 발굴기구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철스님 사리탑 크기놓고 '논란'

해인사 소장파스님들 "축소하라" 반발

성철스님의 사리를 모시게 될 부도전 건립규모에 대해 해인사의 소장파 스님들이 반발하고 나서 구추가 주목된다.

원학 향적 여연 현응 선혜스님 등 20여명의 해인사출신 스님들로 구성된 상림회(상임의장 원학·조계종 문화부장)는 9월27일 종무소에 성철스님 부도전 조성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현재의 부도전 건립규모를 축소조정 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림회는 성철스님 부도전의 규모가 총 1천여평에 사리탑의 높이도 3.5m 정도에서 바로옆에 위치한 다른 큰스님들의 부도탑과 형평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무소유의 삶을 살다간 성철스님의 평소뜻과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성철스님 문도회측은 "성철스님 부도전이 3년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산중회의 결정과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거친 사안"이라며 공사를 계속할 뜻을 비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부도전은 성철스님 5주기를 앞둔 98년 7월30일 준공될 예정이다.

목탁소리

장애인도 동참한 법회

이 경 숙 〈취재2부 부장〉

9월28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1세기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대행스님 부산대법회'는 팔만대장경 전산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뜻깊은 법회였다. 이날 3만여 사부대중은 팔만대장경이 21세기의 대장경으로 새로운 생명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즉석에서 모금액과 약정금이 3억5천여만원을 넘었다고 하니 뜨거운 동참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이것 못지않게 가슴 뭉클한 광경이 있었다. 뜻깊은 이 법회에 뇌성마비 청각 시각 장애인들 1백여명이 3시간 법회 내내 동참한 것이다.

대부분이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원들인 이들은 휠체어를 타고, 맹인용 지팡이에 의지해, 또는 서로서로 손을 잡고 일찌감치 법회장에 입장, 정성인들과 같이 삼귀의를 하고 반야심경을 봉송하고 법문을 듣고,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성금까지 정성스럽게 기탁했다.

지금까지 불교계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법회가 있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에는 인색했다. 부처님오신날, 법회행사를 TV 방송사가 중계하면서 수화통역이 나온 적은 있지만 장애인들이 대거 법회에 초청되어 법문을 직접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장애인들도 법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단지 몸이 좀 불편할 따름으로 법회에 참석해 스님의 법문을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은 정상인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수많은 도심포교당이 새로 생겼지만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배려한 곳이 어디 있는가.

이날 부산대법회에 동참한 청각장애인 이창도거사(63·부산 영도구 동삼동)는 "불자이지만 이런 큰 법회장에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님의 법문을 직접 들으니 무척 기쁘다"고 수화로 소감을 피력했다. 법회가 끝나자 이거사를 비롯한 장애인들은 팔만대장경 후원금을 정성스레 봉투에 넣어 앞다투듯 모금함에 동참하는 흐뭇한 광경을 연출했다.

뉴스 & 뉴스

특수전학교법당 이달말 기공

지난 5월 종교탄압 정책으로 물의를 빚었던 육군 특수전학교에 법당이 세워진다. 육군 특수전학교를지원하고 있는 노도영법사(봉화사주지)의 발의에 임선교 성남 불교신도회장, 성남·광주·용인·사암연합회 임원 등이 후원회를 결성하고 법당건립을 추진해왔다.

이달말 기공식을 가질 법당건립은 대지 2백평, 연건평 1백평, 2층조립식 벽돌건물(1층 80평, 2층 60평)에 총공사비 2억원 규모로 내년 3월 완공된다.

동화사등 4곳 박물관 검토

문화재관리국이 9월3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25교구본사 중 9건이상의 지정문화재를 소유한 15개 사찰 중 법주사 등 7개 사찰이 이미 성보박물관을 건립했으며, 월정사 등 8개사찰은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문화재가 9건 미만인 관계로 성보박물관 건립에서 제외됐던 동화사 범어사 백양사 쌍계사 등 4개 사찰은 성보전시관 건립전 소장 문화재 지정을 추진, 9건 이상을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신도회 전국수련회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가 18~19일 경기도화성 신흥사에서 제1회 전국신행단체 대표자 수련대회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인 조직화 작업에 나선다. 〈관련인터뷰 4면〉

중앙신도회는 9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련대회 대주제를 '바람직한 신행단체의 미래상'으로 정하고 '신도·신행단체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각급신도회와 중앙신도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분과토론 주제로 확정했다. 중앙신도회는 이와함께 상임이사 및 비상근 기획실장으로 최일산법사(월곡청소년센터 관장)와 김동흔씨(경불련 운영위원장)를 각각 임명, 백영식 사무부총장 사퇴로 인한 사무국 공백을 메웠다.

4개 종교대학 北돕기 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원불교전국대학생연합회, 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 한국기독학생총연합회와 한총련소속 50여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 30여명은 2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겨울용품, 의약품 접수를 비롯한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전승련, 대의원회의 체제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의장 원돈)은 9월26일 제4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8대 의장 원돈스님이 개인적 사유로 사퇴함에 따라 비상대의원회의 체제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비상대의원회의 의장으로는 범우스님(송광사)이 선출됐다. 비상대의원회의는 전국 학인대회 개최 등 하반기 전승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세계인의 상표 SANYO

반갑다! 최첨단 안마의자!

두들겨 주고, 주무르고, 피로를 풀어준다



모델명:HEC—751(HD)

우리몸 6000여곳의 경혈을 풀어주는 —
일본 산요 침대형 안마의자

세계 중·상류층 인사들이 격찬한 산요 안마의자로
도시의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에 쌓인 피로를 그날에 풀으십시오.
건강한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안마의자는 사치품이 아니라
이제 가정 필수품입니다.

■기능



롤라스위치 상반신을 롤링동작으로 맛사지
리부 롤라스위치 주무름 롤라가 약 15cm 범위로 롤링동작을 하며 맛사지
폭조절 스위치 「롤링」/「부분롤링」/「두드림」의 맛사지시 3단계로 주무름 롤러의 폭 조절
상하조절 스위치 「부분롤링」/「두드림」/「주무름」의 맛사지 경우 주무름 롤러의 위치를 상하로 조절
다리펼침 스위치 스위치를 눌러서 약—강—정지를 조절 자동적으로 타이머가 작동해 15분후 정지
주무름 스위치 주무름 동작으로 맛사지
두드림 스위치 두드림 동작으로 맛사지
속도조절 스위치 「자동코스」/「두드림」/「주무름」을 맛사지할 때 롤라속도 3단계로 조절
자동코스선택 스위치 스위치를 누르면 목→허리→상반신 순으로 작동
원위치(되돌림) 스위치 전자 동작을 멈추고 주무름 롤라가 최상부(천의치)로 일주시 할/ 최상부(원위치)까지 이동되는 중인 모든 스위치는 조작 불가

■사양
- 두드림맛사지/ 주무름맛사지/ 두드림 주무름 혼합맛사지
- 전문지압사의 리드미컬한 손놀림에 가장 근접한 인체공학 안마
- 3가지 자동코스(목, 허리, 상반신)(15분)/ 3단속도조절/ 최고급 빌로드 쿠션
- 등받이 각도조절/ 진동식 다리맛사지 등 첨단 기종
- 크기 폭68cm×길이96cm×높이109cm
- 무게 3kg / 전압 220V / 원산지 일본 / 공급원 (주)태경그린

※ 일본 외료용 기구 승인

₩3,300,000 ▶ 할인가 ₩2,740,000

전국 어디든지 배달과 A/S를 해 드립니다

30% off

우리몸 6000여곳의 경혈을 풀어주는 —
콤퓨러 안마의자

콤퓨러 안마의자는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제품으로
신경통·관절염·자식 걱정 등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선물로, 날마다 자식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부모님께 편안한 휴식과 깊은 수면을 드립니다.

■기능
- **주무름 기능** 전문 지압사의 손놀림으로 좌우상하로 누르고, 조이고, 당겨줍니다
- **등줄기 두드림 기능** 등 전체를 기볍게 두드려 줍니다 (후두부에서 요추까지 자동상하운동)
- **등줄기 맛사지 기능** 등줄기 전체를 주무르듯 퍼 줍니다(후두부에서 요추까지 자동상하운동)
- **부분 등줄기 맛사지 기능** 원하시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퍼 줍니다 (자동상하운동)
- **두드림 기능** 주먹으로 두드리는 기능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 원하는 등받이 각도를 리모콘으로 조작 할 수 있습니다
- **이동용 바퀴 부착** 이동도 자유자재 청소할 때도 편리합니다
- **자동 코스 맛사지 기능** 전문 지압사의 맛사지 순서와 동일한 코스 맛사지입니다 (3가지 자동코스)
- **타이머 내장** 약15분 작동후 자동 정지됩니다. 적절한 사용시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징 재질:고급레져 / 220V 전용 / 원산지:대만 / 공급원 (주)태경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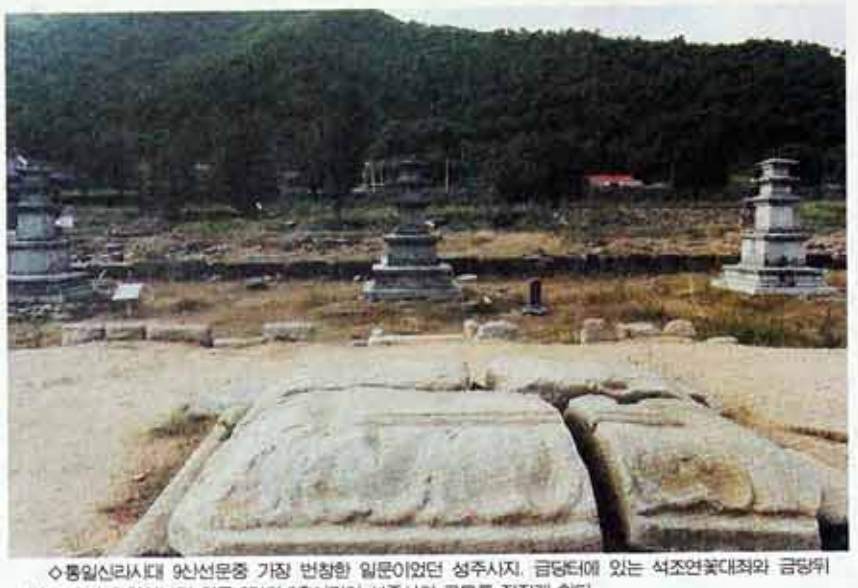
모델명:TS-6301

₩1,980,000 ▼ 할인가 ₩1,380,000

판매원 한양M&C
서울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803호
전 화: (02)737-8891(대)



◇백제양식을 계승한 무량사 5층석탑(보물 185호)과 극락전(보물 366호)은 백제시대의 단탑 단금당식으로 장엄한 조화를 연출한다.



◇통일신라시대 9산선문중 가장 번창한 일문이었던 성주사지. 금당터에 있는 석조연꽃대좌와 금당뒤 다른 절에서 찾아보기 힘든 3기의 3층석탑이 성주사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돌 바람에도 온화한 백제미소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9월 무량사·성주사지

"무량으로 이어지는 백제불심"

'무량(無量)'이라. 무엇을 셀 수 없다는 말인가. 부처님의 지혜, 생명의 소중함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무량사는 바로 극락정토를 뜻한다. 28일 80여명의 답사팀은 무량사 극락전 앞에서 백제불교의 장중한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말았다. 지극한 불심속에 탄생된 백제유물을 둘러보면서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기개넘쳤던 백제인들의 모습을 회상하며 한국인의 기상을 보고 느꼈다. 〈편집자 주〉



◇설잠스님(매월당 김시습)의 부도 앞에서 스님의 기개를 엿볼수 있는 시를 읽고 있는 답사팀

극락전 소조아미타불 동양최대 자랑

"성주사서 무염선사 '無舌吐論' 들었으면"

"백제탑은 대개 몸매가 수평으로 돼 있고 늘~찐합니다. 나무를 돌로 변환하여 나무처럼 몸을 쓴 것이지요. 토기 건축물 석조물등 모든형식이 그렇지요. 이것은 차령산맥 끝자락의 자연과 어우러진 백제인의 성품과도 관계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백제사학연구회 회장 임병고선생(향토사학자)은 백제문화를 이같이 한마디로 집약했다.

무량사(無量寺·주지 의연) 가는 길은 산경문전을 빼닮은 신비로운 산과 들이 펼쳐져 있었다. 무차별의 문(門)인 한칸짜리 일주문을 지나 무량사로 들어가는 길옆에는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며 속진번뇌를 말끔히 씻어주어 무량한 마음을 일깨워 준다. 이어 3칸의 천왕문에 들어서니 보기드문 5칸의 2층 극락전이 장중한 모습을 드러낸다. 가탑배치가 1→3→5칸 차례로 배치돼 부처님의 가르침이 넓고도 넓다는 것을 일러주는 듯하다.

'한량없는 생명의 산'을 뜻하는 만수산(575m) 기슭에 자리잡은 무량사는 671년 문무왕 11년 창건됐다. 범일국사(801~881년)가 창건하여 성주사에 주석했던 무염스님이 중창했다고 한다. 임란전 유수의 대가람이었던 무량사는 천불전등 30억원을 투입하는 복원불사를 추진중이다.



◇극락전 아미타삼존불은 흙으로 만든 소조불로 동양최대 규모

주전인 극락전은 천장까지 통층으로 돼있는 2층집이다. 아랫층이 정면 5칸 측면 4칸이며 윗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목조건축의 장중한 맛을 더해준다. 극락전 안에 모셔진 불상은 본존 아미타불(5.4m)과 양옆의 협시보살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4.8m)이 있는데 흙으로 만든 소조불로는 동양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절미당 가운데 있는 5층석탑은 투박한 백제양식을 계승했으나 고려초기의 작품이다. 5.2m의 2층기단위에 7.5m 높이로 5층을 올렸는데 웅장하면서도 안정감을 주고 있다. 옥개석 받침돌을 하나 하나 조립식으로 끼워넣은 탑으로 20여개의 풍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그 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하다. 그 앞에 있는 석등은 상대석과 하대석에 봉봉하게 살이오른 연꽃이 조각돼 있는 고려초기 석등이다. 선이나 비례가 매우 아름답고 높이 2.5m로 탑과 조화를 이룬다.

무량사 극락전 뒤로 호젓하게 산길을 걷다보면 계곡이 나오고 나무다리를 건너면 나무숲에 싸여있는 산신각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왕이되자 불문에 귀의하여 만년을 무량사에서 보내다 입적한 설잠스님(김시습)의 영정이 빛바랜 흑백사진처럼 걸려있다.

경내를 나와 일주문앞의 다리를 건너기전에 우측으로 나있는 솔밭길로 들어서면 설잠스님의 부도가 있는데 당시 유행하던 종형이 아닌 팔각원당형을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테마여행 답사팀은 설잠스님의 풍류와 절개를 마음에 새긴 채 성주사지로 향했다.

차로 20분을 달리니 백제가 멸망하자 흰말이 사찰에 와서 울며 불우(佛宇)를 돌다가 죽었다는 호국도량 성주사지가 나타난다. 9산선문중 가장 번창한 일문이었던 성주사는 사적에 불전 80칸 행랑 8백여칸 수각 7칸 고사(庫舍) 50여칸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무염스님의 문도는 2천여명에 이르고 쌀씻은 뜨물이 십(十)리나 됐다고 한다.

그 장대하던 절이 화재로 송두리째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2만여평의 터에 잡초만 무성하여 이곳을 찾는 세인들에게 무상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사지에 들어서면 기교넘치고 화려한 통일신라양식의 오층석탑이 의연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금당터에는 철불이 있었던 석조연꽃대좌가 인상깊다. 백제탑과 석등은 법당앞에 1개씩 일렬로 자리잡은 것이 특이했다. 성주사지는 금당뒤에 다른 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층석탑이 3개나 솟지어 있다. 절터 동쪽 한편에 있는 순박한 석불입상은 지금도 마을사람들이 미륵으로 여기며 신봉하고 있었다.

또 북쪽에는 낭혜화상부도비가 전각안에 들어있는데 신라말 비석으로 최치원이 쓴 사산비문의 하나로 신라하대 사상의 흐름을 밝혀주고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성주사지 뒷쪽으로 바라보이는 구릉의 무수한 소나무들은 백제 불교문화의 맛을 더해주고 교하이 융성한 오늘 무염선사의 이심전심 무설토론을 다시 듣고픈 마음이 간절해진다.

글=김원우 사진=고영배 기자

임 병 고 〈백제사적연구회장〉

전문가 안내

무량사는 신라 범일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동안 학술적인 조사결과 고려초기에 창건된 사찰로 확인되고 있으며 임진왜란때 소실된 것을 인조14년경에 중창한 것이다.

무량사는 삼국시대 특히 백제시대의 단탑단금당식 가람배치양식을 원형대로 보존해오는 사찰로 중문은 사천왕문으로 신축하였고 금당 후면에 강당지는 빈터로 남아있으나 남북에 석등과 석탑 금당이 가지런히 자리잡고 있다. 보물 제356호로 지정된 무량사 극락전은 우리나라 전통목조건물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또한 극락전내에 보존되고 있는 범종은 인조 14년에 주조된 것으로 일제시대 일인들에 의해 강탈당해가던 중 해방되자 종의 표면에 양각된 '흥산현북면 만수산 무량사 대종'이라고 적혀있어 되찾을 수 있었다는 비화가 전한다.

극락전앞 5층석탑은 보물 제185호로 지정된 고려초기의 석탑으로 전체적인 조형수법이 국보 제9호로 정림사지 5층석탑과 비슷해 맞절안되는 백제탑양식의 석탑으로 주목받고 있다. 탑앞의 석등도 탑과 동시대 작품으로 보물 제233호로 지정돼 있다.

무량사는 생육신의 한사람인 매월당 김시습 설잠스님이 마지막 승려생활을 하던 곳

무량사 671년 범일국사 창건
웅장한 5층석탑 '백제양식'
성주사 행랑 800칸 기록



◇임병고회장으로부터 백제불교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는 참가자들.

이어서 더욱 감명깊다.

만수산 자락에는 무량사가 있고 성주산자락 계곡옆에는 성주사지가 2만여평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성주사지가 불탄것은 임진왜란때로 전해오고 있다. 농가의 장독대에서 작은 비석조각이 발견돼 이 절터가 삼국시기에 나타나는 백제시대의 오합사터라는 것도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성주사지에는 국보8호 낭혜화상 백월보탑비를 비롯하여 중앙5층석탑 중앙3층석탑 동3층석탑 서3층석탑 석조불상등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중문지 금당지 회당지 3천불전지등 수많은 건물까지 완연해 백제문화권내에 유일한 통일신라시대 석조문화재 전시장이라 불리울정도로 중요한 사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신라나 고구려도 비슷한 면은 있었지만 특히 백제는 불교를 수용하면서 불교정신과 불교문화를 통해 고대 강력한 문화선진국을 만들었고 당시 인접한 신라나 바다건너 일본을 선도해 주었다. 통일신라나 고려가 불교국으로 발전한 원동력은 곧 백제의 뿌리를 근간으로 자라난 것이다.

큰기술 PCS 016 세상-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 예약가입자중 실가입전환 고객에는 더욱 많은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10월 실가입전환시	· 가입비 3만원 할인 · 10월 한달간 기본료 면제 · 10월 한달간 부가서비스료 면제 · 10월 한달간 300분 무료통화지급 (국제전화, 700서비스는 유료)
11월 실가입전환시	· 가입비 5만원 전액 면제 · 2개월 (11월~12월) 기본료 면제 · 11월 부가서비스료 면제

* 프리텔삼성카드회원은 위 혜택외에 최고 300분의 무료통화, 단말기 보상보험가입, 가입년도 연회비 면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가입을 하신 대리점(방문판매원)에서 예약가입을 확인하시고, 실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PC통신, 인터넷, 고객센터, 프리텔삼성카드 등을 통하여 예약하신분은 인근 대리점이나 PC통신, 인터넷을 통하여 실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할인혜택은 9월 말까지 예약가입을 하신 고객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예약가입기간을 연장합니다.

· 기 간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혜 택 : 연장된 예약가입기간중 2만원의 예약금만 내시면 실가입시 가입비가 면제되고, 원하시는 번호를 우선적으로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중 예약가입고객은 12월 이후 실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가까운 한국통신프리텔 대리점, 영업소 또는 PC통신(go pcs016)에서 예약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통신프리텔 고객센터 영업소 및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소리가 보인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

고객상담 080-016-0000(수신자 요금부담) 서울 02)3277-0016 부산 051)4400-016 대구 053)4300-016 광주 062)5200-016 대전 042)2500-016 단체 고객 및 법인가입자 상담 02)3277-7000 · 인터넷 www.pcs016.co.kr